

초보자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

자말루딘 자라부즈 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이슬람·이슬람기금·선교부 출판·연구국

초보자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

자말루딘 자라부즈 저

킹사우드 대학교 통번역센터 역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이슬람·이슬람기금·선교부 출판·연구국

2016 – 1437

(غلاف خارجي)

دليل المسلم الجديد

تأليف:

جمال الدين زرابوزو

ترجمه:

مركز الترجمة

جامعة الملك سعود بالرياض

باللغة الكورية

طبع ونشر

وزارة الشؤون الإسلامية والأوقاف والدعوة والإرشاد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차 례

- 역자 서문 7
- 머리말 9
- 초보자 무슬림을 환영하면서 11
- 본서 저술 목적과 동기 11
- 본서의 특징 12
- 본서의 출처와 접근 14

제1장 | 이슬람 종교

- 01-이슬람이란 단어의 의미 17
- 02-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종교 23
- 03-마지막 메시지 26
- 04-시대를 초월한 이슬람의 보편성 30
- 05-이슬람법의 출처 34
- 06-이슬람의 목적 45
- 07-인간 및 무생물 숭배로부터의 해방 50
- 08-지구촌에서 번창하고 건전한 인생 만들기 53
- 09-정의와 타인에 대한 피해 금지 57
- 10-진정한 평화 64

제2장 | 이슬람의 장점

01-일위일체의 신관(tawhid)	69
02-하나님의 종교	72
03-포괄성	73
04-현세와 내세의 복지를 고려한 이슬람	78
05-어려움이 없는 쉬운 규범	81
01)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확고한 유대관계	84
02)선행에 대한 촉구와 사악한 행위 근절	90
03)사람 존중	95

제3장 | 이슬람교 입교

01-믿음의 선서 문구(shahadah): 라 일라하 일랄라 (la ilah illa Allah)	101
02-믿음의 선서 문구(shahadah): 무함마드 라술룰라(Muhammad Rasullah)	109
03-이슬람 입교 관련 기타 절차	114
01)목욕(gasl)	115
02)털 제거	117
03)할례	118
04-초보자 무슬림과 관련한 보상과 특별한 상황	119
05-이슬람 이전에 취득한 새로운 무슬림의 재산	124
06-이슬람 이전의 결혼	126
07-이슬람의 입교와 개명	130
08-이슬람에 입교했을 때 얻은 열매	133

09-주님이시자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는 것	134
10-진정한 행복	138
11-자신에 대한 정의	141
12-하나님의 징벌로부터의 구원받는 길	143
13-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내세의 천국	144

제4장 | 신앙인(mu'min)이 되는 방법

01-믿음(iman; belief)의 정의	149
02-맹목적인 믿음	153
03-믿음의 기둥	158
01)하나님에 대한 믿음	159
(01)타우히드 루부비아(tawhid al-rububiyah)	160
(02)타우히드 울루히아(tawhid al-uluhiyah)	162
(03)타우히드 아스마 와 시파트(tawhid al-Asma wa al-sifat)	172
02)천사들에 대한 믿음	176
03)성서들에 대한 믿음	180
04)예언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믿음	184
05)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188
06)운명(al-qada)과 예정(al-qadar)에 대한 믿음	195
(01)운명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서 얻는 열매들	203
(02)결론	206

제5장 | 무슬림의 신앙의례

01-예배	209
-------------	-----

01)예배의 의미	209
02)예배규범에 관한 주요사항	217
03)예배수행 방법과 절차	223
02-이슬람세	227
03-라마단 달의 금식	233
04-메카에 있는 하나님의 집 순례	239

제6장 | 신앙인의 품행과 사회생활

01-이슬람은 고매한 인격과 훌륭한 품행을 촉구	249
02-자신과의 관계	252
03-부모와의 관계	257
04-새로운 무슬림과 비무슬림 가족 및 친인척과의 관계 ..	260
05-배우자와의 관계	267
06-결혼 대상자	270
07-남편과 아내의 권리	273
08-이혼	279
09-자녀와의 관계	280
10-이웃과의 관계	281
11-다른 무슬림과의 관계	286
12-비무슬림과의 관계	292
13-사회와의 관계	298
14-재물과 재산과의 관계	301
15-이슬람의 상거래 에티켓	303
16-투기 혹은 모험적인 것(gharar)	306
17-이자(riba)	309

18-사기와 기만	311
19-금지된 재물 취득	312

제7장 | 믿음의 강화와 증대

01-마음의 청결(tazkiah)	314
02-믿음의 증대와 감소	320
03-믿음의 성장과 발전	323
04-믿음을 증대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길	328
05-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328
06-예언자에 대한 무슬림의 예절	331
07-선행	338
08-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돕는 방법	346
09-마음에 피해가 되는 것들	348
10-회개	351
새로운 무슬림에게 드리는 마지막 글	360
역자 약력	366
참고문헌	367

역자 서문

2012년 1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킹 사우드 대학교 통번역 센터에서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메일 내용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부처에서 역자를 추천했다고 하면서 동봉한 아랍어 책을 6개월 안에 한국어로 번역하여 달라는 제안이었다. 책의 제목은 『dalil muslim al-jadid』로 336쪽에 달했다. 제목으로 보아서 는 이슬람에 입교한 초보자 무슬림을 위한 안내서였는데 그 책을 대충 읽어보았을 때는 무종교인이 이슬람에 입교한 자와 타종교의 신자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무슬림을 위한 안내서였다. 그런데 책 속을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았더니 제목이 담고 있는 것 이상이었다. 초보자 무슬림을 비롯하여 초보자 무슬림과 기존 무슬림들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신학, 이슬람 학문, 이슬람문화, 특히 이슬람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책이었다. 그래서 본서의 제목을 직역을 피하고 『이슬람 이해를 위한 길잡이』로 의역을 하였다가 다시 원문대로 『초보자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로 자구번역을 하였다.

학교수업, 외부강의, 2012년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일정 등으로 6개월 안에 번역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이 부담스러워 1년으

로 제안을 했고 상대방은 역자의 제의를 기꺼이 받아주었다. 그런데 역자는 다행히 이슬람관련 서적들을 번역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아랍어 꾸란 한국어 번역을 비롯해서 예언자 무함마드 전기 2권, 부카리 하디스 3권,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5권 등 63여 권에 달하는 이슬람관련 책들을 번역 및 저술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다른 이슬람관련 서적들 번역에 들어갈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5월 5일부터 번역작업에 들어갔다. 그 동안 번역 경험이 축적된 덕분인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번역할 때는 저명한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는 기분이었고 이슬람에 대한 나의 지식이 더해가는 것을 느낄 때는 가속도가 붙었다.

한편 작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번역해야 할 분량도 많았지만 한국과 이슬람세계와의 문화교류 부재로 아랍어 이슬람문구에 대한 적절한 한국어 문구를 찾기가 가장 힘들었다. 그 결과 이슬람 어휘에 대한 우리말 표현이 부자연스럽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고 독자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2개월이 넘지 않는 55일 만에 초기번역을 마칠 수 있었다. 역자가 본서 번역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번역을 완료했을 때 희열을 느꼈던 것처럼 본서를 읽는 독자들도 이슬람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상식을 얻어 역자와 같은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머 리 말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미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며, 그분께 용서를 간구하고, 그분의 안내를 추구합니다. 저희가 나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안내를 받은 자는 방황하지 아니하나 그분의 안내를 받지 못한 자는 어느 누구의 안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분에게 비유될 수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사도라는 것을 저는 선서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글을 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종교를 소개하는 데 부족한 점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주소서.

본서의 자매서 『이슬람이란 무엇인가』란 책 집필에 도움을 주신 이슬람부처의 무함마드 투르키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흐마드 라쉬드 선생님의 지속적인 지원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분께서 본 사업의 원동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본 사업에 도움을 주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압둘카림 아알 싸이드 박사님, 나하르 라쉬드 형제, 무함마드 알
우사이미 박사님, 아흐마드 푸라이끼 박사님, 압둘라 형제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면서 현세와 내세에서 이분들에게 가장 좋
은 보상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서에 언급된 여러 주제들은 이미 다루어졌다는 것을 지적
하면서 『그는 당신의 종교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왔
습니다』, 『영혼의 순화: 개념, 과정 및 방법』 이라는 저의 초
기 작품에서 인용하거나 문자 그대로 옮겼으며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나와위의 하디스 40선 해설』 에서도 어느 정도
인용하였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여, 본 저서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으로 받아주소
서. 본 저서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오류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
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아량을 베풀어주시
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당신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말루딘 M. 자라부즈

보울더

2007년 1월 17일

초보자 무슬림을 환영하면서

이슬람은 많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슬람에 관한 사실이 아닌 부정적인 풍문들이 널리 퍼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에게 이슬람의 진리와 광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무슬림을 비롯한 모든 무슬림은 하나님의 종교에 관한 지식과 이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초보자 무슬림은 이전의 생활과 많이 다를 수도 있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로인하여 기뻐하시고 또한 새로운 무슬림은 이슬람을 통하여 주님과과의 만남으로 기쁨을 얻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슬람 안에서 성장하고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슬람의 미(美)를 더욱 더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슬람과 예언자에 대한 사랑이 더해갈 것이다. 이슬람에 귀의한 결과는 이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적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슬람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 첫 단계이며 그 다음 과정은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더해가면서 이슬람에 애착을 갖는 것이다.

본서 저술 목적과 동기

본서는 초보자 무슬림에게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슬

람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길잡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새로 이슬람을 받아들인 무슬림은 이전에 걸어왔던 길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초보자 무슬림도 이슬람이 진리의 종교라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교를 자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충분한 상식은 부족하다.

저자는 초보자 무슬림이 처음부터 이슬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그의 일상생활에 바르게 적용하여 최상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당황하고 혼란을 겪는다. 오늘날의 대다수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이슬람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이 바로 새로운 무슬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부 새로운 무슬림들에게는 현실속의 이슬람과 책들을 통해서 얻은 이슬람을 식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본서는 초보자 무슬림이 꾸란(Quran)과 순나(Sunnah)에 근거한 바른 길을 걷는데 도움을 주는 시도와 작은 노력에 불과할 뿐이다.

본서의 특징

이슬람에 관한 개설서들은 많다. 그런데 본서는 다른 개설서에 없는 특징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첫 번째, 본서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초보자 무슬림을 위한 몇 권 안 되는 서적들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슬람의

진리를 깨닫고 개종을 하였기 때문에 이슬람에 관하여 독자를 납득시키기 위한 토론은 시도하지 않겠다. 한편 이슬람교로 개종한 무슬림에게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먼저 그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천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다. 무슬림으로서 그가 피해야 할 행위들을 깨닫는 안내도 역시 필요하다.

두 번째, 저자 자신도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이다. 그래서 저자는 개종한 무슬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도출하고 오랫동안의 경험을 되새겨 초보자 무슬림이 알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가 처음 무슬림이 되었을 때 얻고자 했던 그 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더욱 저자는 여러 해 동안 개종한 많은 무슬림들과 교류하면서 개종한 초보자 무슬림들이 교류해야 할 개념적인 문제와 실천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

세 번째, 저자는 최선을 다하여 검증된 정보와 자료들에 근거하여 본서를 저술하였다. 특히 예언자의 말씀은 더욱 그렇다. 이슬람에 관한 글을 쓴 사람들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렇다보니 그들의 작품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본서의 저자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된 주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이슬람의 본질적 가르침이 정통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꾸란과 예언자의 말씀으로서 하디스(Hadith)가 순수하게 원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슬람 종교는 어떠한 형태로도 왜곡되지 않고 원형대로 보존되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이나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의 글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에서 온 진리인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서의 출처와 접근

이슬람 저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출처는 반드시 꾸란¹⁾이어야 한다. 꾸란은 이슬람에 관한 총체적 가르침²⁾의 토대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본서에 표현될 견해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꾸란의 증거가 강조될 것이다.

하지만 꾸란은 길가에서 누구나 읽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를 선택하여 그에게 꾸란을 계시하면서 무슬림들에게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지시³⁾에 순종하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살아온 생활방식이 순나이며 그 생활방식이 기록된 책들을 가리켜 하디스라고 한다.

-
- 1) 꾸라(surah) 또는 장 번호 다음에 절(ayat)이 온다는 것을 독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2:16)은 제2장 16절을 의미한다.
 - 2) 이슬람을 다루고 있는 책이 꾸란 절에 근거하지 않고 있거나 그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면 독자는 곧바로 그 책에 담겨진 견해에 대하여 의심을 가져야 한다.
 - 3) 순나의 권위와 위상, 즉 예언자의 모범과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은 꾸란의 이곳저곳에 40번 이상 언급되었다. 이 사항에 대한 추가 내용은 본서의 저자가 집필한 『순나의 권위와 전통, Denver, CO: Al-Basheer Company for Publications and Translations, 2000 참조』

그러므로 예언자 하디스⁴⁾에 있는 그분의 가르침과 안내를 받아야 한다.

꾸란과 순나(sunnah)는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이며 다른 출처들은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보조문헌의 내용이 꾸란과 순나의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언자께서는 꾸란의 안내와 예언자의 지침에 따라 한 세대를 가르치셨다. 그분의 교우들(ashab)도 일반 사람들처럼 실수를 범하는 인간들이었다. 그들도 이슬람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슬람 교육에 적용할 때 예언자의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들처럼 정확하고 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슬람에 관한 여러 저서들을 참조하였다. 이슬람 역사에서 지도적 역할을 했던 학자들의 저서들은 물론 다른 개설서들도 본서 저술에 참고문헌으로 활용할 것이다.

4) 예언자의 행위와 말씀에 관한 보고서로 이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슬람 학자들('ulama)에게는 정통 하디스와 그렇지 않은 하디스를 구별하는 임무가 허용되고 있다.

제1장 | 이슬람 종교

01-이슬람이란 단어의 의미

이슬람(islam)이란 단어는 아슬라마(aslama)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복종하다' 또는 '스스로 항복하다'라는 의미다. 이 어휘가 하나님의 권리와 연계되어 사용된다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이다.⁵⁾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주님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슬람의 의미다. 다른 표현을 빌리면 이슬람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고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 이상의 어떤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며 복종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구적으로 풀이하면 이슬람이란 복종 그 자체 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대한 창조주의 지배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진 종교를 이슬람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그분의 권능과 지배에 순종하며 삶의 기본원칙을 온 마음으로 그분께 순응하게 하는 것이기 때

5) E. W. Lane, *Arabic-English Lexicon* (Cambridge, England: The Islamic Texts Society, 1984), vol. I, p.1413.

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리의 요점이요 핵심이다.⁶⁾

주지하고 싶은 것은 이슬람이란 단어가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평화'에 해당하는 아랍어 단어는 살람(salam)이다. 이 단어도 이슬람(islam)이란 단어의 어근과 동일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내적·외적의 진정한 평화는 이슬람을 정확하게 적용할 때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동시에 무슬림 각자는 마음으로 그의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하고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복종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점이 바로 무슬림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야 할 핵심이다.

이슬람과 타종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슬람이란 어휘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슬람이란 일위일체의 진정한 하나님께만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에 따라 자기 자신을 그분께 복종시키는 사람을 가리켜 무슬림이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예언자들의 종교는 이슬람이요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무슬림인 것이다. 예를 들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도 무슬림이며 그들의 종교도 진실하고 가식이 없이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이슬람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말씀하시기를,

13. 그분께서는 노아에게 내리신 종교를 그대에게도 계시하

6) Muhammad Manzoor Nomani, *Meaning and Message of the Traditions* (Lucknow, India: Academy of Islamic Research and Publications, 1975), vol. 1, p. 54.

여 너희들의 종교로 정하셨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도 그 종교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분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느니라...(42:13)

본 꾸란 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었고 하나님만을 숭배한 신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유대교나 기독교 신자가 아닌 무슬림이었고 그의 뒤를 따른 추종자들도 무슬림이었다.

모세와 예수의 추종자들 모두가 무슬림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7.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집의 주춧돌을 세우며 기도하였느니라. 주여!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소서. 주여! 실로 당신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2:127)

128. 주여! 저희가 무슬림으로서 당신에게 복종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자손들도 무슬림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당신에게 복종하도록 하여 주소서. 순례하는 방법을 알려 주소서. 저희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소서. 실로 당신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2:128)

129. 주여! 그들⁷⁾ 중에서 사도를 택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성서와 지혜를 가르쳐 그들을 당신에게로 인도할 사도를 보내 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청결케 하여 주소서. 실로 권능과 지혜가 주님께 있나이다(2:129)

130.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반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조롱

7)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하는 것과 같나니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세상에 보내셨느니라. 그는 내세에서 정의의 편에 있을 것이니라(2:130)

131. 주님께서 그에게, '내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온 누리의 주님께 복종한다고 하였느니라(2:131)

132.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종교를 따르라 하였고 야곱에게도 그랬느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종교를 선택하여 주셨나니 그 안에서 무슬림으로 일생을 마칠 것이니라(2:132)

133. 야곱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지켜보고 있었나니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내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라고 물으니, '당신의 하나님이며 당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유일신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복종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느니라(2:133)

134. 이들은 지나가버린 민족이니라. 그들은 그들이 얻은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얻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책을 받지 않을 것이니라(2:134)

135. 그리고 이들이 말하기를,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그러나 말하라. '우리는 가장 올바른 아브라함의 종교를 따르노라 그분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노라'(2:135)

136.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것들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차별하여 믿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따름이라'(2:136)

137. 너희가 믿는 것처럼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될 것이나 그들이 배반한다면 그들은 지옥에 빠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그들에 대항하도록 충만하게 할 것이니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 (2:137)

138.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라. 어떤 종교가 하나님의 종교보다 더 나은냐? 우리는 오로지 그분만을 경배함이라 (2:138)

139. 말하라 '우리의 주님이요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관해 우리와 논쟁하려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에게는 너희의 일이 있노라. 우리는 진실로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복종하느니라'(2:139)

140.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유대교인 혹은 기독교인들이라 말하느냐? 말하라.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증언을 숨기는 자보다 더 부정한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일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니라'(2:140)

141. 이들은 지나가 버린 한 민족이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따라 대가를 치룰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

문 받지 않을 것이니라(2:141)

본 꾸란 절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은 예언자들을 따른 모든 추종자들의 종교였다. 다시 말하면 아담시대부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의 진실한 신자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른 진정한 무슬림이다. 더구나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것을 추종하라고 명령한 유일한 종교다. 그래서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유일한 종교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 진실로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이니라(3:19)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요 내세에서 손해를 본 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니라(3:85)

그래서 이슬람의 형제애와 진실한 믿음과의 유대관계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형제자매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유일한 형제애다.

특히 각 시대의 모든 무슬림들은 모든 예언자들을 믿는다. 그들 모두를 옹호하고 그들의 명예를 지킨다. 진실한 무슬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예수 등 예언자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않는다. 무슬림들은 예언자 모두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사랑한다.

02-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종교

예언자 무함마드가 온 이후 이슬람 종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예언자가 오기 전에도 여러 형태의 이슬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각 시대의 각 민족에게 예언자가 있었고 각 민족들은 그 시대의 예언자를 추종했다. 즉 그들도 이슬람 종교의 길을 따른 것이다. 그 이후 동일한 예언자 계보에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예언자가 그들에게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새로운 예언자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새로운 예언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그는 무슬림이 아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와 앞서 온 예언자들이 걸어온 도정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예언자 무함마드의 법이 이전의 모든 법을 파기하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전임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원전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48. 내가 그대에게 그 이전에 계시된 것을 추인하고 증거하는 성서를 계시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린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되 정의에서 벗어난 자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 (5:48)

본 절은 꾸란이 이전에 계시된 것들을 추인하면서 꾸란이 법

이요 이전 경전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꾸란은 이전 경전들에 담겨있는 것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동시에 이전의 경전들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꾸란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요 진리이나 꾸란과 모순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꾸란은 이전의 경전에서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아 본래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이 예언자 예수를 하나님의 신성으로 믿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꾸란의 견해는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57.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다른 자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자 그 사람을 죽였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을 할 뿐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느니라(4:157)

이전 경전들이 왜곡되었다는 것은 꾸란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서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좋은 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79. 그들의 손으로 성서를 써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값싸게 사소서.'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쓴 그들의 손에도 재앙이 닥칠 것이요 그것으로 금전을 모으는 자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라(2:79)

78. 그들 중에는 자신들의 혀로서 성서를 왜곡하여 그것이 성서의 일부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무리가 있으나 그것은 성서의 일부가 아니니라. 그들은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거짓 말을 하고 있느니라(3:78)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 무함마드가 말하길, “성서의 백성들이 말한 것을 믿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여러분에게 계시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과 여러분의 신은 한 분으로 동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는 무슬림입니다.’”⁸⁾

‘하나님께 복종’ 또는 이슬람이란 명칭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종교가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회복된 종교라는 것이 흥미롭다. 다른 종교들의 명칭은 모두가 개인이나 민족 또는 장소의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카타(Microsoft Encarta)에 의하면 현대 히브리 시대 이전에는 유대교란 명칭이 없었다. 그 명칭은 바로 유다(Judah)를 가리킨다. 불교(Buddhism)가 붓다(Buddha)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독교(Christianity) 역시 그리스도(Christ)의 이름을 딴 것이다. 힌두교(Hinduism)는 힌두스탄(Hindustan)이란 지역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모든 예언자들의 단 하나뿐인 진리의 종교 명칭은 줄곧 보존되어 왔으며 모든 인간을 위해 파견된 마지막 예언자의 메시지

8) al-Bukhari.

에 간직되어 있다.⁹⁾

예언자 무함마드의 메시지가 전임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들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은 이슬람으로 귀의를 마다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6. 종교가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진리는 암흑으로부터 구별되나니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을 잡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2:256)

그렇지만 그들을 이슬람의 본질로 초대하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03-마지막 메시지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시대를 통하여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마지막 예언자를 통하여 종말의 그날까지 모든 인류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로 하셨다. 그 이후에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대체할 어떠한 예언자도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도 절대 오지 않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마

9) 18세기와 19세기 초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동양학자들은 이슬람을 가리켜 무함마드교라 부르고 무슬림들을 무함마드교도이라 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명칭을 지었던 것 방법에 따라 부른 명칭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성공하였다. 이 명칭은 무슬림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함마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막 메시지는 이전의 메시지들과 약간 다를 수밖에 없다.

첫째, 오류나 왜곡된 것을 수정할 어느 예언자도 오지 아니함으로 마지막 예언자에게 제시된 마지막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져야만 한다.

둘째, 그래서 마지막 예언자의 징후(ayat)는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징후는 예언자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에 올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이전의 예언자들은 단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온 것이므로 서로 달랐지만, 마지막 예언자는 어떤 한 공동체를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의 계보가 종료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메시지도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이 메시지의 법과 가르침은 종말의 날까지 모든 인류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유용성이 있어야 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예언자 무함마드의 메시지는 이 모든 기준에 부합된다. 왜냐하면 꾸란과 순나가 무척 자세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원한 기적 꾸란이 오늘날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세 번째 주제는 예언자 무함마드 그가 어떤 한 민족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보내졌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先民)이라 부르며 그러므로 그들의 메시지

10) 본 주제에 대한 더 이상의 토론은 본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미 저자가 『이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Riyadh: Ministry of Islamic Affairs, 2006)

는 전적으로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많은 정통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로의 개종을 믿지 않는다. 신약성경 역시 예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부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수께서 이 열 둘을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태복음: 5-6) 가나안 여인이 예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마태복음: 24)¹¹⁾ 예수의 제한된 임무가 꾸란 61장 6절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한편 예언자 무함마드의 임무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58. 무함마드여, 사람들에게 말하라. ‘실로 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모두를 위해 온 사도이니라...’(7:158)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꾸란 절이 있다.

28.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의 전달자서 그리고 경고자로 그대 무함마드를 보냈느니라.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을 뿐이라(34:28)

예언자 무함마드도 자신은 이전의 예언자들과 다섯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분이 언급한 마지막 부분은 이렇다.

11) 이와 관련한 예수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다. 도움을 청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마태복음: 15:26) 이것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가는 하나님께서 알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예언자들은 단지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만 보내졌지만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 보내졌습니다.”¹²⁾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마지막 예언자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40. 무함마드는 너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도이자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니라(33:40)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 보내졌으니 나는 마지막 예언자요 마지막 사도입니다.”¹³⁾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언자들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 예언자가 죽자마자 다른 예언자가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뒤를 이을 예언자는 없습니다.”¹⁴⁾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예언자들을 받아들일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예언자 무함마드를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는 진실한 사람이었으나 그 대신 나는 예수 또는 모세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입장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언자를 보내면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전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메시지들을 폐기하라고 꾸란을 통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1.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를 믿으라 했을 때, ‘우리에게 내

12) al-Bukhari.

13) al-Bukhari.

14) al-Bukhari and Muslim.

려진 것을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예언자의 소식을 이미 그들의 책에 확증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온 것을 불신하노라. 말하라. 진실로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이전에 온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왜 살해하려 하였는지 물어보라(2:91)

하나님께서서는 이 상황을 불신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150. 하나님과 예언자들을 불신하며 하나님과 예언자들을 이간시키려 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일부를 믿고 일부는 믿지 않노라.’ 그들은 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취하려 하노라 (4:150)

151. 실로 이들이야말로 불신자들이거늘 나는 이 불신자들을 위해 치욕스러운 벌을 준비하여 놓았느니라(4:151)

152.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보상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은 가장 관대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니라(4:152)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을 불문하고 나에게 관한 소식을 듣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거주자가 될 것입니다.”¹⁵⁾ 또 한 교우에게 말씀하길, “만일 모세가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그분은 나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¹⁶⁾

04-시대를 초월한 이슬람의 보편성

예언자 무함마드는 마지막 예언자다.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

15) Muslim.

16) Ahmad and al-Darimi. 알바니에 따르면 이 하디스는 훌륭한 것 (hasan)이다.(*Irwa*, vol. 6, p. 34.)

님께서 분명한 지침서 없이 인간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언자에게 내린 마지막 계시가 모든 인류를 안내하는 데 충족되어야 한다. 마지막 예언자께서 이에 관한 핵심을 말씀하셨다. “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두 가지에 매달린다면 나 이후로 절대 잘못 안내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책 꾸란과 예언자의 순나입니다.”¹⁷⁾

예언자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라는 사실에 덧붙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종교로 만족케 하였느니라...(5:3)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는 온 인류를 위한 예언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8. 무함마드여, 사람들에게 말하라. ‘실로 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위해 보낸 사도이니라’...(7:158)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나 이전의 어떤 예언자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다섯 가지가 나에게는 주어졌습니다. ... 그 중의 하나가 나 이전의 각 예언자는 그가 속한 민족에게 보내졌지만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 보내졌습니다.”¹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교는 완벽하게 완성되었으므로 대

17) al-Bukhari.

18) Muslim.

체나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 메시지는 심판의 날까지 모든 것을 충족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위해 보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언자의 가르침과 전통이 모든 인류를 위해 정당한 것이므로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은 당대의 아랍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뉴욕에 사는 무슬림이건 또는 말레시아의 무슬림이건 모든 무슬림이 당연히 따라야 할 중요한 핵심이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이 심판의 날까지 모든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대답은 이 법칙의 아름다움으로 가능하다. 예언자께서 선포한 법을 연구하면 그 안에서 예언자 시절에 적용되었던 것이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 실제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배를 하고자 하는 인간 성격의 본바탕은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 법칙은 심판의 날까지 변함이 없다.

둘째, 인간이 반드시 피해야 할 해로운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분명히 그리고 영원히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은 모든 시공을 초월하여 삶을 안내할 구체적인 법과 통칙을 필요로 한다. 인류를 위해 이슬람법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요약하면 이슬람법이 인간에게 필요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유연성이 있어 서로 다른 시대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적용했던 것들이 이슬람법 안에 들어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면서 심판의 날까지 인간의 삶을 안내하는 신성한 길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거래에서 이

자는 영원히 금지된다. 그에 더하여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주어졌다. 그 가이드라인은 현대시대에서와 같이 새로운 거래 형태가 발생할 때 인간은 이슬람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수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듯 이슬람법은 1천 4백 년 동안이나 유연하게 적용되어져 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슬람법이 유연성 덕분에 심판의 그날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종교가 완성되어 있으므로 무슬림은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교가 이런 저런 형태로 발전할 필요도 없으며, 더 보탬 필요나 더 줄일 필요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분명한 이유로 예언자께서는 강력하게 종교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나 이설을 경고하였다. 무슬림들은 이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완성된 하나님의 종교에서 아름다움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교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이설을 피해야 합니다. 정말로 가장 나쁜 행위는 새로운 이론이며, 새로운 이론은 이설이요 모든 이설은 방황입니다.”¹⁹⁾

또 말씀하길, “방황하는 자는 불지옥에 있을 것입니다.”²⁰⁾

또 말씀하길,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이 소개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배척해야 합니다.”²¹⁾

19) Muslim.

20) al-Nasai.

21) al-Bukhari and Muslim.

05-이슬람법의 출처

이슬람의 목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지침서의 출처와 인간 행위의 원칙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하여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법의 출처를 이야기한다. 이슬람법의 본원적인 두 가지 출처는 꾸란과 예언자의 순나다.

꾸란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다.²²⁾ 꾸란은 23년 동안 간헐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계시되면서 초기 무슬림 공동체를 단계별로 하나하나 안내하였다. 또한 공동체를 신앙심이 훌륭한 세대로 변화시키고 후에 올 무슬림 시대를 위한 본보기를 만들었다. 그 당시 문명권 밖에 있던 아랍민족들을 위대한 문명의 지도자들로 안내하였다. 이들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슬람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응용한다면 개인과 사회가 변화하고 경건한 세계로 진입하여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꾸란을 계시 받은 즉시 추종자들에게 문자 그대로 전하면서 동시에 글을 쓸 수 있는 교우들로 하여금 기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예언자께서 꾸란에 관하여 말씀하길, “기적을 행하지 않는 예언자가 없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신성한 계시가 주어

22) 꾸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소하고 있다: Hamza Njozi, *The Source of the Quran: A Critical Review of the Authorship Theories*(Riyadh, Saudi Arabia: World Assembly of Muslim Youth, 1991)

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부활의 날 어떤 다른 예언자들보다 더 많은 추종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²³⁾ 다시 말하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기적은 꾸란이었다.

꾸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기적으로 간주된다. 예언자 무함마드 시절의 아랍인들은 언어에 능숙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예언자에게 적대시하였지만 꾸란의 언어에는 도전할 수 없었다.²⁴⁾ 그러나 꾸란은 기적 이상이다. 미래의 사건들을 충족시킨 예언들이란 점에서도 꾸란은 기적이다. 23년 동안 계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꾸란 절들에 있는 유사성, 과학적인 지식에 있어서의 정확성, 정확한 역사성, 조금도 틀림없는 보존성, 관대하고 지혜로운 법, 개혁과 인간의 변화 등 여러 면에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꾸란은 기적일 수 밖에 없다.

꾸란 다음으로 순나로 알려진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과 행위들이 있다. 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계시의 한 형태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나에게 꾸란과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이

23) al-Bukhari and Muslim. 꾸란은 꾸란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자에게 도전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한 것에 관하여 의심한다면 그와 같은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대어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사실이라고 고집한다면 하나님 외에 증인들을 대어보라 하셨느니라.”(2:23) 오늘날까지 어느 누구도 이 도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24) 꾸란 연구에 관한 가장 좋은 참고문헌은 무함마드 압둘라 드라즈가 『영원한 기적』이란 제목으로 저술한 책이다. *The Quran: An Eternal Challenge* (Leicester, United Kingdom: Th Islamic Foundation, 2001), pp. 65-179.

주어졌습니다.”²⁵⁾

예언자의 순나는 신성의 권위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언자 무함마드는 여타 예언자들과 다름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예언자의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과 연계된다. 예언자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은 꾸란 속의 하나님이시다. 예언자의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에 대한 행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0. 예언자에게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이니라. 그러나 뒤돌아선 자가 있더라도 나는 그대 무함마드를 그들에 대한 감시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니라(4:80)

하나님께서서는 꾸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예언자 무함마드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31. 말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니라(3:31)

예언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 진실로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과 내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따라야 할 가장 훌륭한 모범자이니라(33:21)

예언자는 살아 있는 하나의 꾸란이었다. 예언자의 아내 아이샤가 남편의 인격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분

25) Abu Dawood.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Muhammad Nasir al-Din Albaani, Saheeh al-Jaami al-Sagheer (Beirut: al-Maktab al-Islaami, 1986), #2643.

의 인격은 꾸란이었습니다.”²⁶⁾

꾸란과 순나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 순나는 꾸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꾸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꾸란이 제시하고 있는 도덕과 품행과 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꾸란의 가르침에 대한 구체성은 무슬림들을 위한 큰 축복이요 자비로써 하나님의 안내를 모든 사람에게 보다 더 확대하고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꾸란과 순나는 심판의 날까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안내의 모든 원리와 세칙들을 제공하면서 하나로 맺어진 단위다.

물론 꾸란은 6백 4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권의 책이다.²⁷⁾ 한편 순나는 전혀 다르다. 순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과 행위를 다루고 있다. 수집이 완료된 순나는 하디스(hadith)로 알려져 있다. 하나의 하디스는 예언자께서 말한 것과 행한 것에 대한 하나의 기사다.²⁸⁾ 무슬림 학자들은 하나님의 종교를 완벽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예언자에 관한 모든 기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예언자와 관련된 하디스들과 말씀들을 세심하게 연구하

26) Muslim.

27) 저자는 200쪽 이상으로 표현했으나 역자는 꾸란을 암기하는 암송자들의 선호도를 배려하여 604쪽으로 표현했다.

28) 하디스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육체적 특징과 그분의 삶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다.

여 정확한 것(al-sahih)과 허약한 것(al-da'if)을 가려내었다. 그 결과 이슬람법에서는 모든 하디스가 모두 옳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엄격한 검증을 거쳐 확인된 예언자의 말씀의 정도에 따라 이슬람 학자들은 사히흐(sahih: 정확한 것), 하싼(hasan: 훌륭한 것)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다이프(da'if; 허약한 것), 혹은 다이프 짓단(da'if jiddan: 매우 허약한 것)이나 또는 마으두으(mawdu': 위조된 것)로 분류한다.

꾸란의 아랍어 원본과 하디스의 아랍어 원본이 있기는 하지만 비아랍인에게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하다. 특히 꾸란에 관한 번역은 알힐라리(al-Hilali)와 칸(Khan)이 공동 번역한 영문판 『성 꾸란: 의미와 해설』 과²⁹⁾ 사히흐 인터내셔널(Saheeh International)에서 영어로 번역한 『꾸란: 아랍어 원본과 의미』³⁰⁾ 두 권을 추천한다. 이 두 번역서를 추천하는 이유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분의 가까운 교우들의 꾸란 이해에 근거하여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꾸란의 진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꾸란 해설을 읽어야 한다. 훌륭한 영문판 꾸란 해설서가 많지 않아 유감이지만 다른 언어들로 나온 해설서들은 많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10권으로 출

29) Muhammad al-Hilali and Muhammad Muhsin Khan, trans., *The Noble Qur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Meanings and Commentary* (Madinah, Saudi Arabia: King Fahd Complex for the Printing fo the Holy Quran, n.d.). 본 서는 다른 곳에서도 출간되었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30) Saheeh International, *The Quran: Arabic Text with Corresponding English Meaning* (London: AbulQasim Publishing House, 1997).

간된 타프시르 이븐 카씨르(Tafsir ibn Kathir)란³¹⁾ 영문판 작품이 있다. 이 책은 이븐 카씨르(1301-1372 C.E.)의 꾸란 해설을 요약하여 번역한 것이다. 무함마드 후세인 다하비(Muhammad Hussein al-Dhahabi)는 이 해설서를 가장 훌륭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³²⁾ 이 작품에서 이븐 카씨르는 이븐 타이미야(ibn Taimiyyah)로³³⁾ 잘 알려진 그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꾸란 해설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 작품의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늘날 많이 볼 수 없는 전통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불 아을라 마우두디(Abul Ala Maudoodi)가 쓴 영문판 '꾸란의 이해를 위하여'(Towards Understanding the Quran)라는 책³⁴⁾도 영문판 꾸란 해설서로서 완벽하고 폭넓게 다룬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다. 1979년에 사망한 마우두디는 많은 저술을 남겼고 그의 여러 작품들이 영어로 번역되었다. 타프힘 알꾸란(Tafhim al-Quran: 꾸란 이해)의 저술 목적은 우르두어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우르두어 사용자 대중들에게 꾸란의 의미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본서는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는 정당한 평가³⁵⁾를

31) Tafsir ibn Kathir (Abridged) (Riyadh: Darussalam, 2000).

32) Muhammad Hussein al-Dhahabi, *al-Tafseer wa al-Mufasirun* (Dar al-Kutub al-Haditha, 1976), vol. 1, p. 247.

33) 꾸란 해설 원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Roy Young Muhammad Curtis, "Authentic Interpretation of Classical Islamic Texts: An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Ibn Kathir's '*Tafseer al-Quran al-Ai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89), passim 참조.

34) Abul Ala Mawdoodi, *The Meaning of the Quran* (Lahore, Pakistan: Islamic Publications, 1982).

하는 반면에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꾸란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상식을 넓혀주는 작품으로 남아 있다.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다른 작품으로는 싸이드 이끄발 자히르(Syed Iqbal Zaheer)의 타프씨르 이슈라끄 알마아니(Tafsiri Ishraq al-Ma'ani: Being a Quintessence of Quranic Commentaries)가 있는데 이 작품은 한 현대 작가가 포괄적으로 쓴 것이다.

하디스 혹은 예언자의 행위에 관한 기사들이 수집되어 편찬된 것으로는 두 종류의 중요한 영문판이 있는데 그것은 사히흐 부카리(Sahih al-Bukhari)와³⁶⁾ 사히흐 무슬림(Sahih Muslim)이³⁷⁾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슬람법은 심판의 날까지 모든 인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꾸란과 순나에는 이슬람의 규범이 세분화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일부 사안에 관한 것은 무슬림들에게 맡겨 스스로 꾸란과 순나

35) 예를 들어 마우두디는 꾸란을 이해하는데 있어 예언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의 해설서는 하디스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일부 이슬람 규범을 토론할 때만 하디스들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그가 인용한 하디스는 옳은 하디스에 들어간 하디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그는 이따금씩 예언자의 교우들이 전한 꾸란 해설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의미를 예언자의 교우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36) Muhammad Muhsin Khan, trans., *Sahih al-Bukhari* (Riyadh, Saudi Arabia: Darussalam Publishers and Distributors, 1997). 본서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37) Abul Hamid Siddiqi, trans., *Sahih Muslim* (Lahore, Pakistan: Sh.Muhammad Ashraf Publishers & Booksellers, n.d.). 본서 역시 쉽게 접할 수 있다.

를 세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그에 관한 문제의 답을 찾아내도록 하셨다.

규범에 관한 조항이 꾸란과 순나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이즈티하드(al-ijtihad), 즉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물론 이 법학의 근원에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비록 하나님과 함께한 진리가 항상 영원한 것이 된다고 하면서도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진실한 노력에 의해 결론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하디스의 내용이다. “한 법관이 최선을 다하여 정확한 결론을 도출했다면 그에게는 두 가지의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였지만 오류를 범했다면 그에게는 하나의 보상만 주어질 것입니다.”³⁸⁾ 그렇지만 그들의 결론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이즈티하드는 반드시 꾸란과 순나의 관점에서 평가를 받고 이 두 법원에 가장 적합한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무슬림은 자신의 최종 목적이 꾸란과 순나³⁹⁾에 근거한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역사가 발전되면서 학자들은 꾸란과 순나로부터 법과 규범

38) al-Bukhari and Muslim.

39) 이즈마아(Ijma': 합의)라 불리는 또 다른 법학의 원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말하길,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공동체가 실수로 몽치게 하지 않습니다.”(알부카리가 전하고 있으며 알알바니가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모든 무슬림 학자들이 어떤 사안에 관하여 동의하였다면 동의된 그것은 옳은 것이 된다.

을 성문화하고 이 규범들을 발전시켜 사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적 이즈티하드를 도출하였다. 물론 이즈티하드는 원전에 규범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들 학자들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그들의 이즈티하드에 근거한 법학파가 나오게 되었다. 서로 다른 이들 법학파들은 이슬람법의 법원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류나 결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무슬림은 이들 법학파에 적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안들에 관하여 여기에 의존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영향력이 큰 법학파에는 4개 파가 있는데 이들 학파의 명칭은 그 이론을 제시한 학자의 이름에서 비롯되고 있다.

1) 하나피 학파(madhab Hanafi)

아부 하니파(Abu Haneefah: 80-150 A.H.)에 의해 창설된 학파이다. 그는 이라크에서 살았던 초기 학자였다. 이 학파를 추종하는 무슬림들은 주로 오늘날의 터키,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구소련, 및 중동 일부 지역에 퍼져 있다.

2) 말리키 학파(madhab Maliki)

말리크 이븐 아나스(Malik ibn Anas: 95-179 A.H.)에 의해 창설된 학파이다. 그는 예언자의 도시 메디나에서 평생을 살았다. 이 학파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막 절반 지역에

퍼져 있다. 수세기 동안 이 학파를 추종했던 무슬림들은 주로 안달루스, 즉 무슬림이 지배했던 스페인에도 많이 퍼져 있었다.

3) 샤피 학파(madhab Shafi'i)

무함마드 이븐 이드리스 샤피이(Muhammad ibn Idris al-Shafi'i: 150-240 A.H.)에 의해 창설된 학파이다. 샤피이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속한 꾸라이쉬 부족 출신으로 여러 도시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집트에 정착하였다. 이 학파를 추종하는 무슬림들은 주로 오늘날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중동 일부지역에 퍼져 있다.

4) 한발리 학파(madhab Hanbali)

아흐마드 이븐 한발(Ahmad ibn Hanbal: 164-241 A.H.)에 의해 창설된 학파이다. 그는 바그다드에서 살았으며 하디스 학문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이 학파를 추종하는 무슬림들은 주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라비아반도 일부지역에 퍼져 있다.

이들 거장 학자들과 그 밖의 다른 학자들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견해를 달리하기도 했다. 법학자들 간에도 여러 사안에 있어 견해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학자들 간의 그러한 견해차에 대하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무슬림의 최종 목적은 진리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진리를 찾는데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꾸란에 있는 길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즉 계시에 대한 통찰과 사고를 통하여 진리를 찾는다. 그리고 찾고자 하는 진리에 도달했다면 그 진리와 가장 올바른 견해를 따른다.

둘째, 해석상의 견해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성실하게 진리를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빈약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 개인의 견해가 꾸란과 순나와 뚜렷하게 모순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면 그의 해석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도 한 개인으로써 존중을 받아야 한다. 앞서 하디스가 말해주듯이 그의 해석에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하였다. 그의 해석에 반론을 펼치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필요성을 느낄지라도 수용 가능한 견해차이로 인해 이슬람 형제에 정신을 뒤흔들어 무슬림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꾸란과 순나와 이즈티하드만이 법원(法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날의 현대법과는 달리 이슬람 법원(法源)들은 도덕, 윤리, 행위 등 여러 영역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소들은 법원이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무슬림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요 행동 지침서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의 지면에서 다루겠지만 꾸란과 순나와 이즈티하드는,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자세, 이웃과의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오늘날의 관습법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슬림 학자들은 이슬람의 규범들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삶의 전반에 걸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포괄적인 주제로 이슬람법의 법원(法源)을 다루고 있다.

06-이슬람의 목적

이슬람의 가르침은 까닭도 없고 이유도 없는 단순한 의식이나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이다. 계시는 이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나님 한분만을 섬기는 것

의심할 바 없이 이슬람의 가장 위대한 목적 그리고 인류를 위한 가장 큰 기여는 하나님 한분만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그 어떤 것도 비유해서는 안된다.⁴⁰⁾ 이것이 인간을 위한 최종 목적이요 본질적인 목표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추구하고 있는 본질이므로 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위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본서 여러 곳에서 언급될 것이다.

56. 내가 진들(jinns)과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만을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51:56).

일위일체(tawhid)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보다 더 숭고하고 고상한 목적은 없다. 모든 인간을 당황하게 만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일위일체의 신관이 해답을 제공하는 유일한 믿음의 체계이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슬람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인간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경 받는 피조물로, 가장 고귀한 피조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장 천한 피조물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 나는 인간을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였느니라(95:4)

5. 그리고 그를 낮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떨어뜨리노라(95:5)

6.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그렇지 않나니 그들에게는 무한한 보상이 내려지느니라(95:6)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간은 인간의 주님이시자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 가고 있다고 이슬람은 대답한다. 이 위대한 만남은 죽어 이 세상과 이별한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만남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때 인간은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현세에서 살아 있을 때 행하였던 모든 행위가 저울에 올려져 계산될 것이다. 하나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 그날 인간들은 자신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보기 위해 여기 저기에서 떼를 지어 나오느니라(99:6)

7. 티끌만한 선을 행한 자도 그것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요 (99:7)

8. 티끌만한 죄를 저지른 자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99:8)

이 계산은 인간이 행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된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고, 안내서를 보내주시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는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자애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에게 감사하고 복종했는지에 대한 것부터 계산이 된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간은 가장 고귀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슬람은 대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분만을 숭배하는 것, 다시 말해 진실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처럼 고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세에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소망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아픔과 병이 종식되기를 바랄 수도 있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탄복할 만한 목적들은 고상한 상태로 남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일을 해낸 인물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주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 의한 목적 추구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되고 이기주의와 배은망덕함을 보이며 고상한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다.

영혼의 숭고함과 실천의 미덕으로 안내하는 목적들과 비교할 때 그러한 목적들은 사실상 이차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내세의 영원한 행복으로 안내하는 목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현세에서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숭배이다.

자신의 진실한 목적을 충족시키고 성공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진정한 일위일체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추구하고 있는 일위일체의 신관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경우에 이 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러 경로로 오염되고 있다. 현대문명 이전 초기에 사람들은 일위일체의 하나님에게 자식들과 딸들을 연계시켰다. 그 후 불행하게도 순수한 일위일체에 역행하는 모순이 기독교에 의해 오늘날의 현대시대로 전해졌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예수에게 예배하는 소리를 듣는다.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 한분만을 숭배하고 있다고 논리적인 변명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순수한 일위일체의 하나님을 받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상 당대의 일부 삼위일체론자들은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순수한 일위일체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이다.

새로운 무슬림은 시간을 갖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정한 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진정한 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제들을 입법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위일체의 진정한 하나님께 일종의 사신을 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사제는, 아니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권세로 눌러 취소하거나 폐기할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진정한 일위일체의 하나님 신관에 대한 모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 그들은(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들의 랍비들과 수사들을 그들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노라. 또한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경배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분에게 찬미와 영광이 있으소서 (9:31)

이슬람은 진정한 일위일체의 하나님 신관에 근거한 종교로 하나님께 사신을 두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의심할 바 없이 이슬람은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초보자 무슬림이 이 믿음을 공부하면 할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쳐줄 것이다.

07-인간 및 무생물 숭배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바로 일위일체의 하나님 한분만을 숭배하는 첫 번째 교리이다. 그분 외에 다른 것들에 굴복하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그러한 현상을 받아들여 인간이 인간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인간에게 굴복하여 인간을 숭배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인간의 지위를 저하시키고 타락시키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동일한 본성과 동일한 허약함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어느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여부를 떠나서 폭군이 나 독재자도 그렇고 사제들도 마찬가지이다.

초기 이슬람 시절의 두 무슬림이 이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페르시아 황제가 그 두 무슬림에게 그들이 온 목적을 물었을 때 예언자의 훌륭한 교우였던 그 두 무슬림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온 목적은 인간을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숭배하고자 원하는 자를 구제하고, 이 세상의 좁은 곳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여러 종교의 불의로부터 이슬람의 정으로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⁴¹⁾

폭군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통치의 해악을 깨닫는다.

그러나 엘리트 집단이 위장된 민주주의를 매개체로 나라를

41) Ismail bin Kathir, *Al-Bidayah wa al-Nihayah* (Beirut: Dar al-Kutub al-Ilmiya, n.d.), vol.7, pp.39-40.

다스릴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그 엘리트 집단의 통치와 억압에 순응한다. 실질적으로 이 두 형태의 통치에는 악이 있다. 이 악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입법자 그리고 절대적인 통치권자로 받아들인 것뿐이다. 후에 설명하겠지만 정의로운 법과 공정한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분은 욕망과 편견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굴복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욕망을 비롯하여 국가 또는 권력, 혹은 물질적 욕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으로 취하는 것들을 묘사하셨다.

23. 그대는 제멋대로 신을 만들어 내는 자를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황하게 만들며 그의 귀와 마음을 봉하여 버리고 그의 눈도 봉하여 버릴 것이니라. 하나님 외에 누가 그를 인도하겠느냐? 그럼에도 너희는 속고하지 않느냐?(45:23)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디르함의 돈과 디나르 돈의 노예가 되고, 카미사⁴²⁾의 화려하고 비싼 옷의 노예가 된 자는 그것들을 받으면 만족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낼 것입니다.”⁴³⁾ 이것은 재물숭배의 한 형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아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42) 네 종류의 재물과 화려한 옷이다. 이것은 저자의 실수다. 언급된 재물은 네 종류가 아니라 단지 두 종류다. 디르함과 디나르 두 화폐만 예언자 시대에 알려진 것이고, 카미사는 화려한 옷의 일종이다. 위에 언급된 것은 세 종류(디르함, 디나르, 카미사)이지 네 종류가 아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하디스를 완전하게 전하고 있는데 있다. 즉 까띠파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화려하고 비싼 옷의 일종이다.

43) al-Bukhari.

다면 기뻐할 것이나 만일 얻을 수 없다면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가 원하는 물질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굴종과 노예는 마음의 굴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굴복시키고 노예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음은 그 대상의 노예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종(인간)은 자유인이지만 그가 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유인(인간)은 노예입니다.’”⁴⁴⁾

이슬람은 욕망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모든 형태의 위선적인 숭배사상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을 해방시킨다. 해방된 마음에 하나님 한분만을 연계시켜 자신과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를 확립시킨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 한분만을 기쁘게 하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를 기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를 불쾌하게 할 것이다.

이슬람의 이러한 견해가 분명해지면서 새로운 무슬림은 그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이 추구하고 믿었던 거짓 신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모든 삶이 이러한 거짓 신들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으며 윤리와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인지는 아랑곳없이 그 목적을 추구하여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목적들이 그의 인격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인생은 그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사실

44) [Ahmad in Taimiyah,] *Ibn Taymiyah's Essay on Servitude* (Birmingham, United Kingdom: al-Hidayah Publishing and Distribution, 1999), p.100-101.

상 이러한 것들의 노예였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위일체의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08-지구촌에서 번창하고 건전한 인생 만들기

이슬람은 정신과 육신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아름다운 종교이다. 인간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도 무시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이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자신의 인격을 위한 안내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과 충돌하게 되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신적 필요성만 강조한 사람들은 현세의 물질적 측면을 무시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간 본능의 일부분인 물질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물질로부터 완전히 해방할 수 없을 때 갈등에 빠지게 된다. 한편 물질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같은 경제 제도가 있다. 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큰 공허함을 남겨놓는다. 왜냐하면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인간을 대리자로 두면서 말씀하시기를,

30.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에 대리인을 둘 것이라 하시니

천사들이 가로되 이 세상을 해치고 살상을 하는 자를 대리자로 두려하십니까? 저희들은 당신만을 신성한 분으로 찬미하고 당신만을 경배하나이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실로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느니라(2:30)

하나님께서서는 목적을 두시고 인간을 지상에 내려 보내셨고 그래서 인간은 지상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건설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그 후 내세의 영원한 삶으로 안내받는다는 것이 이슬람의 견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7.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으로 내세의 안식처를 구하라 그리고 현세에서 너의 몫을 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선을 베풀라 그리고 땅 위에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해악을 퍼뜨리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28:77)

하나님께서서는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중의 하나인 금요일 합동예배 후에도 현세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라고 촉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 예배가 끝나면 이 땅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염원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변성할 것이니라(62:10)

실질적으로 인간들은 이 위대한 지구의 삼라만상을 관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 지구를 활용해야 한다. 물론 인간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마음대로 이 지구를 활용할 자유는 없다. 이 지구의 최종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들의 개인적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복수를 할 목적으로 이 지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언급한 대로 이 지구를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1. 내가 인간에게 지상의 권력을 준다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바른 일을 행하고 악을 멀리할 것이니라(22:41)

본 절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꾸란 28장 77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해악과 부패를 금지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6. 하나님께서 정돈 하셨으니 지상에서 해악을 퍼트리지 말라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갈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선을 행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느니라(7:56)

74. 그리고 그분께서 아드의 백성을 멸한 후 너희가 그 뒤를 계승토록 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기거하도록 하니 너희는 평원에 궁전을 세우고 산에 집을 지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상기하고 땅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7:74)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해악을 퍼트리지 않고 부패를 일삼지 아니하며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보상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3. 이것은 내세에 있는 천국의 집이니라. 나는 거만해 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해악을 퍼트리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느니라. 축복 받은 종말은 사악함을 멀리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위해 있느니라(28:83)

하나님께서서는 부활의 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지상에 해약을 펴트린 자들은 선을 행한 자들과 다르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 내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와 지상에서 해약을 저지른 자를 동등하게 대하겠느냐? 내가 사악함을 멀리하는 자와 사악한 자를 동일하게 다루겠느냐?(38:28)

불행하게도 지상에 부패와 해약이 퍼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잊으면서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따르고 있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안내에 등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정신을 파괴하고 가족과 사회를 타락시키며 온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도덕의 타락과 불법행위로 가는 단계이다. 부패가 번지도록 두어 해약이 지구촌 전체로 퍼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경고로써 회개하고 선행을 향한 길로 지향하라는 촉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1. 인간의 손이 저지른 부패가 육지와 바다에 만연했나니 저들이 행하였던 일부를 맛보게 하리라 그리하면 저들이 회개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30:41)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전 분야에 해약이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과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마지막으로 부패한 자들과 해약을 펴트리는 자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8.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한 자들의 타락한 죄의 대가로 나는 저들에게 징벌에 징벌을 더할 것이니라(16:88)

27. 저들은 하나님께 맺은 계약을 파괴하며 하나님께서 결합하라 명령하셨으나 거역한 자들이며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는 자들이니 저들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니라(2:27)

09-정의와 타인에 대한 피해 금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지상에서의 삶은 진실한 번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슬람은 정의를 추구하고 그것의 실천을 촉구한다. 꾸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정의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실천할 것을 무슬림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비록 그것들이 자신의 욕구와 이익에 역행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58.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사 모든 기탁물을 소유자들에게 환원토록 하셨으며 사람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친 교훈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느니라(4:58)

135.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증인으로써 너희 자신에게 또는 너희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거역이 될지라도 정의를 엄격히

준수하라. 그들이 부유한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그들을 더욱 보호하시나니 저속한 욕망을 물리쳐 의롭게 행하라 진리를 감추거나 회피하지 말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4:135)

8. 믿는 자들이여, 정의에 의하여 증거 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공정한 증인이 되라. 타인에 대한 증오로 공정을 잃어서는 아니 되나니 정의롭게 행동하라. 그것은 가장 독실한 신자의 의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느니라(5:8)

이슬람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과 정의 위에 균림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예언자께서 입증하셨다. 예언자 가까이에서 예언자의 사랑을 받았던 우사마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형량을 줄여줄 것을 간청한 일이 있었다. 이에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사마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해둔 법에 개입하려 합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만일 예언자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가 남의 물건을 훔친다면 나는 그녀의 손을 하나님의 법대로 절단할 것이오.”⁴⁵⁾

이렇듯 법과 정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청년과 노인, 동맹군과 적군, 무슬림과 비무슬림 등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건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무슬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친구나 적에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정의로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을 학대하는

45) al-Bukhari.

것은 자유가 아니라 가장 나쁜 부정의 일종이다. 오히려 무슬림은 정의로운 것 이상이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자비로워야 하고 관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0.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선을 실천하라 하셨고 친척에게 자선을 베풀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추한 언행과 사악함과 배반함을 금지하여 너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셨느니라(16:90)

정의를 확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무슬림 공동체에 주어진 가장 큰 책임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한 실천을 통하여 이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종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3.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중용의 한 공동체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그 공동체의 증인이 될 것이며 예언자도 너희들을 위한 한 증인이 될 것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전에 향했던 기도의 방향을 지정하셨나니 이는 사도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자 함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안내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커다란 시험이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좌절시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은 실로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니라(2:143)

중용(wasat)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 중의 하나는 정의와 균형으로 착취와 부정을 수반하는 극단주의를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⁴⁶⁾

정의와 하나님의 계시 사이에는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만이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 특히 강자들이 약자들을 지

46) al-Qurtubi, vol. 2, p. 153.

배하게 하는 불공정한 법을 제정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을 제정한 유일한 분이시다. 또한 그분만이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진실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제정되는 법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지식 그리고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상식부족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순수하고 편견이 없는 정의로운 법을 원한다면 선택의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와 그분께서 제정한 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까이임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책들을 보내어 인간들로 하여금 정의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지구와 하늘도 그 정의에 의해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정의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곳마다에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종교가 함께 할 것입니다.”⁴⁷⁾ 다행히 우주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1. 아마도 그 진리가 저들의 욕망에 부합되었다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락하였을 것이니라. 그런데 내가 저들에게 꾸란을 보냈는데도 저들은 그것에 등을 돌리었느니라(23:71)

이슬람이 강조하고 있는 정의는 현세의 삶을 넘어 내세에까지 이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가장 정의로

47) Muhammad ibn al-Qayim, *Al-Turuq al-Hukumiyah fi al-Siyasah al-Shariah* (Beirut: Dar al-Kutub al-Ilmiyah), p. 14.

운 방법으로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그리고 티끌만한 것까지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이 정의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아니하며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4. 말하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간구한단 말이냐? 그분은 만물의 주님이시니라. 각자가 행한 결과는 행한 각자에게로 돌아가거늘 누구든 타인의 짐을 대신하여 질수 없느니라. 너희는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께서는 너희가 달리했던 모든 사실을 알려주실 것이니라(6:164)

15. 정도로 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가는 것이며 방황하는 자는 스스로를 방황하게 할 뿐이라. 짐을 진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아니하며 내가 사도를 보낼 때까지는 결코 별하지 않느니라(17:15)

286.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지우지 아니 하시니라 인간은 그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으며 그가 저지른 것으로 대가를 받을 것이니라(2:286)

186. 나의 종들이 그대에게 나에 관해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까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에 따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느니라(2:186)

7.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베푸신 것 이상의 무거운 짐을 어느 누구에게도 부과하지 아니 하시느니라 ...(65:7)

정의는 긍정적인 측면과 금지하는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

권리의 이행과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이슬람은 우선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 “나의 종들이여, 나에게 대한 부정을 금지하며, 여러분에 대한 부정도 금지하느니라.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⁴⁸⁾

이븐 타이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성명은 모든 종교를 망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은 어떤 종류 혹은 어떤 방법에 의한 부정(dhulm)이든 모두가 금지입니다. 한편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은 모두가 정의(adl)입니다.”⁴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 실로 나는 분명한 증표들과 더불어 예언자들을 보냈으며 또 사람들이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서와 균형(정의)을 함께 보냈느니라. 그리고 나는 강한 힘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 쇠를 보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언자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자들을 돕는 자들을 시험코자 함이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시고 강대하신 분이시니라(57:25)

이렇듯 예언자들을 보내고 성서들을 보내고 정의를 보낸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를 확립하고 정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하여 강한 쇠를 둔 것은 그것으로 진리와 정의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책은 정의와 칼 그리고 이

48) Muslim.

49) Ibn Taimiya, *Majmu*, vol. 18, p.166.

두 가지 강인한 철로 안내할 것이다.

이슬람과 정의 사이에 또 다른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인간이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위로 유도하는 내적 심리과정이 필요하다. 재산 또는 가족, 혹은 지위나 명예가 위기에 노출될 때 인간은 동요하고 흔들릴 수 있다. 즉 정의에서 벗어나기 쉽다.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비롯된 부정은 쉽게 알 수 있으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부정은 알지 못한다.

그러한 경우 그들의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정의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행위 하나하나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모든 종류의 부정을 금지하고 계신다. 그래서 진실한 신자는 그의 욕망이나 재물이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한 정의를 먼저 생각한다. 그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일하고 정의가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들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욕심으로 정의를 저버린 자들이 많다. 이것은 이슬람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 자신의 이익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슬림은 진리와 정의를 위해 항상 용감하고 확고부동해야 한다.

10-진정한 평화

하나님으로부터의 빛과 안내만이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에게 나의 사도가 이르렀나니 너희들이 성서에서 은닉했던 많은 것과 설명되지 아니한 많은 것들을 그가 밝혀 줄 것이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광명과 분명한 성서가 너희에게 이르렀노라(5:15)

16. 그것에 의하여 그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길에서 그분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들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안내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느니라(5:16)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평화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여 주시느니라(10:25)

온전하고 진정한 평화는 각 개인이 내적 평화를 얻을 때만 가능하다. 이 평화는 이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숭배할 때만 성취되는 것이며 인간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사도의 부름에 응하라. 그가 초대할 때는 너희에게 진정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그의 마음 사이를 오가시고 너희 모두가

그분께로 모인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느니라(8:24)

하나님을 알아야만 마음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을 존재케 한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은 삶에서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항상 갈망하게 된다. 영혼과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보물이나 재물도 인간에게 그러한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진정한 부는 많은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 있습니다.”⁵⁰⁾ 또 말씀하길,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자요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⁵¹⁾

자신의 내면에 평화를 심고 내적 갈등으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평화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평화를 시작으로 이웃과 공동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가 확립된다. 이렇게 이슬람은 이러한 관계, 권리와 의무, 그리고 평화적인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⁵²⁾ 자식들은 자신들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부모는 자식들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인정한다. 남편과 아내는 경쟁자가 아니라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깃들도록 상호 협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 al-Bukhari and Muslim.

51) Ibn Hibban, 알바니에 따르면 본 하디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al-Sagir*, No. 7816 참조.

52) 일부 가족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후면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21. 하나님의 또 다른 증표 가운데 하나는 너희 자신에게서 배필을 지으신 후 그 배필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고 서로 간에 사랑과 자비를 두셨느니라.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느니라(30:21)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간통이나 간음, 여성에 대한 중상 모략 등 가족과 관련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엄중한 법을 제정 하셨다. 그 이유는 가정이 사회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만일 가정의 평화가 없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 교육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법뿐만 아니라 품성과 도덕을 망라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은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교류를 위한 지침서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크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상호존중이다. 그러므로 사회 각 구성원 각자는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큰 공동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상호정신이 평화로운 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복지와 다른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추구한다.

이슬람의 가르침이 적용될 때 각 개인은 자신의 내부에서 평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평화를 발견하며 사회 모든 곳에서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진정한 세계평화는 정의가 살아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최근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없는 곳에 평화는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정의란 문구가 종종 전쟁터에 나갈 때 슬로건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와 평화는 민족적·인종적·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초월하면서 자기 자신을 순화할 때 얻어진다. 다시

말하여 진정한 정의는 자신의 자만과 욕심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안내서에 따라 그분께 헌신할 때만 성취되는 것이다.

물론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그분의 안내를 따를 때 실현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평화의 집으로 초대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여 주시느니라(10:25)

*이슬람이 추구하고 있는 몇 가지 목적들에 관한 마지막 한마디

이슬람의 모든 목적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점은 극히 논리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모든 것이 일위일체의 신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슬람이 강조하는 일위일체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간이나 그 밖의 무생물에 대한 숭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이런 사람은 현세생활에서 사회와 문명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는 또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가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고 그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일위일체의 신관에 근거한 내적 믿음의 바탕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 한분만을 숭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종교가 일상생활에 실천되어야 하고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일위일체의 신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주요 목표 외에 다른 것까지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일위일체의 신관이 없으면 하찮은 다른 목표들도 성취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꾸란은 일위일체의 신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저자는 『al-Aqidah al-Tahawiya』 라는 저서에서 이슬람 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꾸란의 거의 모든 장들이 두 종류의 일위일체 신관(tawhid)⁵³⁾을 다루고 있다. 사실상 꾸란의 각 장이 일위일체의 신관과 연계되어 있다. 꾸란은 하나님의 속성과 명칭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일위일체의 신관이다. 꾸란은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며 그분에게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의도와 의지와 관련된 일위일체 신관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금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수는 일위일체 신관의 중요한 부분이요 신관을 완성하는 부분이다. 꾸란은 일위일체 신관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내세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일위일체 신관을 준수하는 자들을 위한 보상이다. 꾸란은 다신론자(shirk)와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내세에 가서 어떤 징벌을 내리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일위일체의 신관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가해지는 징벌의 일종이다.

53) 두 종류의 일위일체 신관이 갖는 의미는, 그것을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제2장 | 이슬람의 장점

01-일위일체의 신관(tawhid)

앞서 이슬람의 주요 목표들을 언급했다. 이것은 이슬람 종교의 장점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피조물에 대한 숭배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켜 깨끗하고 쉽게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분의 주님만을 섬기고 그분께서 제시하여 준 한 길만을 걸어가면서 그분께 그 어떤 것도 비유하지 않으면 된다.

꾸란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효과와 결과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그릇된 믿음이 초래하는 결과도 언급되고 있다. 꾸란의 여러 절에서 올바른 믿음이 가져다주는 결과와 잘못된 믿음이 초래하는 결과도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의 훌륭한 말은 알찬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고 했거늘 그 뿌리는 단단하고 그 가지는 하늘로 향하니라 하셨느니라 (14:24)

25. 그 나무는 주님의 허락을 받아 매 계절마다 열매를 맺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느니라(14:25)

26. 한마디의 나쁜 말을 비유하사 좋지 못한 나무와 같으니 뿌리가 땅위에 나와 있어 안정이 되지 않느니라(14:26)

27.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에서 굳게 정립된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며 죄인들은 방황케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느니라(14:27)

이븐 압바스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한마디의 말은 ‘라 일라하 일랄라입니다.’”⁵⁴⁾

본 절은 일위일체 신관과 올바른 믿음에 근거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믿음의 문구를 선서하는 것이 우선으로 이것은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게 하는 기본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과 함께하는 길로서 현세와 영원한 내세에서 유익함을 가져다준다. 한편 하나님께 어떤 것을 비유하는 잘못된 믿음은 내세에서 아무런 발판을 구축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은 그것의 추종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했거나 믿었던 것을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언자의 첫 번째 임무가 메카에서 내려진 계시에서 밝혀졌듯이 믿음의 정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온갖 형태의 무지, 미신,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이런저런 갖가지 목표를 추구하다보면 안정을 찾을 수 없기

54) Ibn Kathir, *Tafsir* (Dar Taibah), vol. 4, p. 491. (라 일라하 일랄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숭배의 진정한 목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절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 하나님께서 비유하사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는 여러 주인을 섬기는 사람과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같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느니라(37:29)

이슬람의 견해에서 보면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에 모셔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목적만 둘 때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결과가 깊다는 것을 인간은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하게 실현 불가능한 많은 목표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의 목적들은 사실상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 모든 목적들을 결코 실현시킬 수 없다. 헤아릴 수도 없는 무수한 목적들을 위해 자신의 정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그와는 반대로 한 가지 목표만 세우면 그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의 최종 목표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모든 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서고 그가 갈 길은 분명해진다. 의심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그 최종 목표를 향해 조금씩 근접해 가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는 믿음의 체계인 일위 일체의 신관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미와 풍요의 한 부분이다.

02-하나님의 종교

이슬람은 인간에 의해 고안된 철학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 창시된 종교도 아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은 창조주로부터 직접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창조주께서 끝없는 자비로 모든 인간을 위해 내리신 복음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숭배 받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삶의 방법을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학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삶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방법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영역 밖에 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고안한 인간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가장 옳은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명령한 예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올바른 방식은 하나님께서 수락하게 될 삶의 방식이다. 앞에서 인용된 꾸란의 중요한 두 절이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 진실로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이니라...(3:19)

85.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요 내세에서 손해를 본 자가운데 있게 될 것이니라(3:85)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장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해도 그것은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03-포괄성

이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괄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종교이다. 즉 예외 없이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나님에게의 완전한 복종(islam)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 시대부터 지구촌 마지막 인간시대에 이르기까지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슬람은 계층과 민족, 그리고 가장 지식이 풍부한 학자에서부터 사막생활에서 공부를 하지 못한 무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포괄하고 있다.⁵⁵⁾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55) 이슬람의 포용성, 또는 하나님 한분만을 숭배하는 삶의 방식은 인간을 초월하여 동물과 무생물까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9.** 하늘에 있는 것과 땅위의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만하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복종하느니라.”(16:49) “**18.**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태양과 달과 별들과 산들과 나무와 동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벌을 받을 자도 많이 있노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는 어느 누구도 그를 명예롭게 하지 못하노라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니라.”(22:18) “**44.** 일곱 개의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으며 그분을 찬미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노라 다만 너희가 그들의 찬미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실로 그분께서는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관대하시니라.”(17:44)

158. 말하라 실로 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모두를 위해 온 사도이니라... (7:158)

28.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의 전달자서 그리고 경고자로 그대 무함마드를 보냈느니라.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을 뿐이니라(34:28)

예언자를 따랐던 추종자들 중에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귀족들과 서민들, 배운 사람들과 무학자들이 있었다. 이들 모두는 이슬람을 생활에 적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이슬람은 현세와 내세의 삶을 망라하고 있다. 이슬람은 내세만을 다루는 종교가 아니라 현세의 일상적인 업무를 안내하는 총괄적인 지침서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슬람의 목표 중에 하나는 현세의 삶을 위한 건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내세의 축복은 온전히 이슬람에 달려있다. 내세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부 사람에게까지도 재물과 행운을 주지만 내세에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즉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에게만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 현세의 부귀영화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업적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 거기에는 조금도 제한이 없느니라(11:15)

16. 내세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옥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이 고안한 모든 것이 헛되고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니라(11:-16)

18. 스쳐가는 현세를 서둘러 원하는 자 있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서둘러 벌을 내릴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 지옥을 마련하여 두었나니 그는 그 안에 들어가 불타고 저주받으며 배척을 당할 것이니라(17:18)

19. 그러나 믿고 노력을 다하며 내세를 원하는 자들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17:19)

20. 나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저들에게도 선물을 주느니라. 주님의 선물에는 끝이 없느니라(17:20)

이슬람은 인간의 여러 영역에도 관심을 갖는다. 인간의 영혼, 이성, 신체, 믿음, 행위, 품행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 이유는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과 사회의 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슬람은 오만과 거만으로 생기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안내에서부터 과식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균형이 잡힌 식생활을 위한 안내, 부패와 간통과 같은 사회악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안내를 하고 있다.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신체의 어떤 부분도 무시하지 않고 균형이 잡힌 삶을 갖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 신체 각 부분이 필요한 보호를 받도록 한다.

이슬람은 신앙생활에서부터 윤리와 도덕, 사업, 정치와 행정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 모든 부분을 총괄한다. 무시되거나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 잃어버린 느낌을 갖게 할 이유가 없다. 어떤 문제이든 자신을 도와줄 안내를 이슬람에서 찾게 될 것이다.

새로운 무슬림은 이슬람의 특징이요 장점인 포괄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이슬람의 일부분만을

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5. 그러나 아직도 너희는 서로 살생하고 너희 중에 일행을 너희의 주거지에서 추방하며 죄악과 앙심을 조성하고 포로가 될 때는 보석금을 갈취하노라. 실로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며 성서의 일부만 믿고 일부를 불신하는 자 그들을 위한 현세의 보상은 무엇이겠느냐? 실로 현세에서는 치욕을 맛볼 것이요 심판의 날에는 엄한 징벌이 있을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시니라(2:85)

86. 그들은 내세를 팔아 현세를 사는 자들이니 그들의 죄는 절대 경감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니라 (2:86)

예를 들어, 단순히 믿음과 예배의 의식만으로 제한하고 결혼이나 상거래, 알코올, 마약 등 다른 분야에서는 이슬람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론 낮과 밤 내내 완전한 무슬림이 되는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는 일이다. 그렇지만 삶의 주요 문제에 있어 이슬람의 포괄성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미덕과 포괄성으로 보아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종교가 틀림없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인간이 피조물의 각 부분을 모두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즉 삶의 각 분야를 포괄적으로 안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싸이드 꾸툼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나 생활의 제

도를 세우려 할 때 그 개념이나 제도는 포괄성이 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효과만 가질 수밖에 없다. 한 시대 한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떤 환경에서는 유효하나 다른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떠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하나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어떤 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모든 각도와 다방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제한된 측면 혹은 한쪽 각도에서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생활의 모든 문제는 관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시대와 지역, 앞의 세대와 뒤의 세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철학도 그리고 인간의 생각에 의해 나온 어떤 생활방식도 포괄성의 특징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삶 일부분만을 다룰 수밖에 없고 일정 기간에만 유효할 수밖에 없다. 부분적인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것은 인간에 의해 시작된 철학과 생활방식의 수정과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간 철학에 바탕을 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제도를 따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은 언젠가는 끊임없는 모순과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⁵⁶⁾

56) Sayyid Qutb, *The Islamic Concept and its Characteristics* (America Trust Publications, 1991), pp. 85-86.

04-현세와 내세의 복지를 고려한 이슬람

앞서 언급했듯이 이슬람은 단지 내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삶의 정신적 측면에만⁵⁷⁾ 관심을 두는 종교가 아니다. 현세의 행복과 내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7.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부여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실천한 선행에 대하여 최상의 것으로 보상할 것이니라(16:97)

많은 학자들이 이슬람법의 전체성을 연구하고 나서 그 법은 내세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세의 목적들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진술하였다. 우리는 '원하는 것'과 이 세상이 '필요로 한 것'을 세 영역, 즉 필요불가결한 것(al-daruriyah), 필요한 것(al-hajat), 보조하는 것(al-kamaliya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요불가결한 것은 참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허용이 요구되는 생활필수품들이다. 다른 표현을 빌리면, 그것이 없이는 비참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한 것이다. 필요불가결한 것 다음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 지금은 그것 없이 살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게 되면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이다. 그리고 보조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삶을 보다 편하고 보다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다.

창조주로부터 온 이슬람법은 실질적으로 삶에 없어서는 안

57)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확고한 관계구축을 자세히 다루겠지만, 삶의 정신적 측면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잠시 정신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 사이를 분리할 것이다.

될 필요불가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였다. 이슬람법을 공부하고 그 안에 담겨진 지혜들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슬람법은 우선적으로 필요불가결한 것들을 확립하고 보호하며, 강화하고 영속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들이 보호되고 확립된 후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진 후에는 인간의 삶을 보다 편하고 보다 즐겁게 해주는 보조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 분야를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슬람법을 통해서 본 다섯 가지의 필요불가결한 것만 요약해서 다룰 것이다. 이슬람법이 정의하고 있는 필요불가결한 다섯 가지는,

- (1)종교
- (2)생명
- (3)가족 간의 결속과 관계
- (4)정신적 능력
- (5)부와 자산이다.

다음의 꾸란 절이 이슬람법의 목표들을 다루고 있다.

151. 말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님께서 금하신 것을 일러 주리라. 그분께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난을 구실삼아 너희 자손을 살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그들에

게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또한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불결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며 정의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신성시한 생명을 살해하지 말라 이것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지키도록 한 것이니 너희가 알리라(6:151)

152. 고아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고아의 재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나 그의 복지를 위한 것은 제외라 치수와 무게를 공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무거운 짐을 주지 아니하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주시느니라. 너희가 말을 할 때는 정직하게 말하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기억하도록 한 것이니라(6:152)

153. 실로 이것이 바른 길로 가는 나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그 길을 따르되 다른 길로 가지 말라 그것은 너희를 그분의 길로부터 탈선케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니 너희는 사악한 것을 경계할 것이니라(6:153)

이들 목적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이다. 이슬람의 견해에서 본다면 종교를 갖지 않고 창조주와 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은 건전한 삶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종교를 위해 기꺼이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2. 내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니 그는 그것으로 사람들 사이를 걷느니라. 그가 암흑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와 같을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가 그럴 듯하게 보이니라(6:122)

이슬람법의 상당부분이 합동예배와 같은 목적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목적은 동등한 처벌(qisas)이나 사형 같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 법은 형벌을 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9. 이 동등한 처벌법은 생명을 보호함에 있나니 현명한 자들이여 의로운 자들이 될 것이니라(2:179)

가족 간의 유대강화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간통, 간음, 성희롱과 중상모략 등에 대한 처벌이다. 그리고 재산의 보호를 위해 절도범의 손을 절단한다. 재산의 탕진과 과소비에 대한 경고는 건전한 방법으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정신적 능력에 관한 것은 술과 마약 중독을 예방하는 데 있다. 위에서 언급된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형벌이 가해진다.

05-어려움이 없는 쉬운 규범

이슬람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법의 투명성과 용이성이다. 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므로 용이하고 쉬워야 한다.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은 다른 목적들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 정의, 공평, 균형 등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목적들이 있다. 이러한 목적들의 실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로 인간을 위해 어려움이 없는 쉬운 법⁵⁸⁾을 제정하셨다.

58) 어떤 의무적인 행위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의무적

꾸란 여러 절에서 이슬람이 중요시 하고 있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6.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아니 하시니라. 인간은 그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으며 그가 저지른 것으로 대가를 받을 것이니라... (2:286)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일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나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편안함이 있기를 원하지 어려움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니라...(2:185)

6.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곤경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 하시며 너희 자신들을 청결케 하고자 하심이니라. 그분의 은혜를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하시때 너희는 감사해야 되느니라(5:6)

78. 하나님의 길에서 노력하라. 그 노력은 그분의 권리이니라. 그분께서 너희를 선택하사 종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느니라...(22:78)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온 인류를 위해 보내셨다. 그의 임무 중의 하나는 지난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집 때문에 가해졌던 법의 일부를 완화시키거나 혹은 그들

으로 다섯 번 드려야 하는 예배는 많은 부담이 되고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이나 인생의 최종 목표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 노력 혹은 이 어려움은 정당한 것이고 자신을 위해 유익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런 종류의 노력과 어려움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상 인생은 그 정도의 어려움 없이는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다. 위에서는 이익이나 정당성을 뛰어넘어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의미가 없는 노력과 고생이 있다.

의 종교지도들과 학자들이 그들에게 지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묘사하셨다.

157. 저들은 예언자이며 무학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니라. 저들은 저들의 기록서인 토라와 복음서에서 그를 발견하리라. 그는 저들에게 옳은 것을 촉구하였고 그릇된 것을 금기하였으며 또 저들에게 청결한 것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무거운 짐과 그들의 멍에들을 벗겨 줄 것이니 그를 믿고 그를 존경하며 그를 도와 그에게 제시된 빛을 따르는 자들은 번성할 것이니라(7:157)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말하길, “나는 유대교 혹은 기독교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일위일체의 쉬운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⁵⁹⁾

어려움을 완화하여 편하고 쉽게 하는 이 배려는 이슬람법 여러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다. 하물며 무슬림이 되는 것까지도 특별한 교리의 학습이나 의식이 필요하지 않도록 했다. 어떤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어느 누구의 지도도 필요하지 않도록 했다. 예배의식과 관련해서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규범들이 있다.⁶⁰⁾

예를 들어 무슬림이 메카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능력이 없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여비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

59) Ahmad.

60) 예배의식은 학자들이 정의한 하나님의 권리들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권리는 인간 혹은 개인의 권리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예배의식에 관한 규범들은 타인들의 권리와 관련된 규범들보다 더 쉽고 편하다.

도 마찬가지다. 여행자는 하루 다섯 번의 예배를 줄이거나 모아서 볼 수도 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예배는 의무다. 예배는 예배하는 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행자나 환자는 라마단 달의 금식을 미루었다가 그 달이 지난 후 금식을 지키지 못한 날만큼 다시 행하면 된다. 꾸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돼지고기 섭취도 기아상태에서는 먹어도 된다. 대단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회개의 문제다. 이슬람에서 회개는 어떤 사제를 찾아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슬람에서의 회개는 단순하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면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무슬림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법의 완화가 어떤 환경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지, 이슬람 종교가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모든 분야에 있어 법의 완화가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범은 반드시 꾸란과 순나에 근거해야 한다. 앞의 주석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어려움이요 노력이다. 하루에 다섯 번 예배하고 라마단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그에 대한 노력과 그것을 실천하는데 따르는 어려움 다음에는 큰 보상이 뒤따른다.

01)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확고한 유대관계

이슬람의 목적과 가르침은 현세의 법적 문제를 초월한다. 이슬람은 하나님과 확고하고 건전한 관계, 즉 개인과의 관계를 중

요시 한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첫째, 무슬림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는 행운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6. 나의 종들이 그대에게 나에 관해 물을 때 나는 너희들 가까이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직접 응답하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부름에 따르라 나를 믿는 자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느니라(2:186)

60. 그대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에게 구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답하여 주리라. 그러나 교만하여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경멸을 당하며 지옥에 들어갈 것이니라(40:60)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사제같은 직급이나 계급이 없다. 각 개인이 어떠한 매개체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간구한다.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이다. 무슬림은 직접 어떤 권능을 지닌 중재자를 두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면 된다.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싶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싶으면 직접 꾸란을 읽고 순나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⁶¹⁾

이슬람에서는 신격화 된 인물도 없고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제도 없다. 모든 것은 각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슬람의 힘이자 장점이다.

61) 기독교 세계에서는 오랜 세기동안 대중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 특권은 사제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는 숭배하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무슬림 사이에 개입되는 것도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을 불문하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각 개인의 모든 행위에 연장된다.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의도와 감정까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과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 때문에 무슬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모든 행위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마음의 의도였다면 가장 세속적인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무슬림은 주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조심한다. 이것이 바로 무슬림의 목적이요 의도이다. 무슬림이 이러한 의도로 조심스럽게 그 목적을 수행할 때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은 더해간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라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의 입에 넣어 준 한 스푼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⁶²⁾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갖는 의미를 깨닫고 가장 세속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자신의 사고방식과 자세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변화

62) al-Bukhari.

된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각 행위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완전히 소홀히 한다. 마다라즈 알-살리킨(madaraj al-salikin)이란 책에서 이븐 알카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란 허용되는 행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들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세속적인 하찮은 일들도 하나의 신앙이며, 숭배의 그 행위들은 대중을 위한 것입니다.”(63)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많은 무슬림들이 자신들을 위해 예배하고 금식하는 등 신앙생활을 일상적인 생활문화로써 그리고 생활방식으로써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마음의 강한 의지와 느낌이다. 실천의 질이 빈약해도 단지 마치기만 하면 되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에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의식들이 의미가 없고 효력이 없는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와는 크게 다르다. 하찮은 세속적인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것을 행하는 의도와 분명한 목적을 갖고 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사는 길이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가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의도와 목적을 두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

63) Salih al-Alayuwi, Mabthh fi al-Niyah, (n.d.), p. 15.에서 인용됨.

씀하시기를,

29.…그분께서는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스스로를 보여주시
느니라(55:29)

다른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창조를 하시
고, 나누어 주시고, 제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생
명을 앗아가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
람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결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오늘날의 사람들은 감
수성이 둔감해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어떤 독립된 자
연법칙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행
하시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꾸란 여러 곳에서 인간에
게 우주에 대한 관찰을 요구하고 계신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벌 한 마리 혹은 그림자의 움직임⁶⁴까지도 주의 깊게 관찰해보
라고 하셨다.

이 꾸란 절에서 하나님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려고 한 것
이 아니라 인간 주위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경각시켜
인간의 마음과 일상생활의 사건들을 창조주와 연계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무함마드 꾸툼은 그의 소견을 피력하고 있
다.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시각적인 현상들이 뒤에 있는
위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두

6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5. 주님께서 어떻게 그림자를 길게 하시
는지 그대는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원하셨다면 멈추어 고정시켰으리
라 그러나 나는 태양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증표가 되게 하였느니
라.”(25:45).

고자 하실 때, '있으라. 그러면 있게 된다.'는 진리를 외면하고 그것을 자연법칙이라 부르면서 그것은 필연이요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러한 제한된 지식으로 바보가 되었고 결국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둔하고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있다.”⁶⁵⁾

역시 꾸툼의 이야기다. “과학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적인 현상들에 근거해서 태양의 존재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의 자전, 이 두 가지는 그림자들의 움직임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꾸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먼저 그 그림자를 움직이게 한 후 태양으로 하여금 그 그림자의 안내자가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지 시각적인 현상들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상들은 후에 온다. 실로 늦게 온다. ‘그런 후 (thumma)’란 단어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두려고 하실 때, ‘있어라.’ 그 후 ‘그것은 있게 된다.’ 즉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란 뜻이다.⁶⁶⁾

무함마드 꾸툼은 본 꾸란 구절의 최종 결론은 매우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별 혹은 그림자에 관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이 꾸란의 절을 읽어보았지만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 인간의 지식은 변하지 않는

65) Muhammad Qutb, *Dirasat Quranniyah* (Beirut: Dar al-Shuruq), p. 42.

66) Muhammad Qutb, pp. 42-43.

다. 변하는 것은 인간이다. 무함마드 꾸툼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림자 또는 별에 관하여 이 꾸란 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의 지식은 변했습니까? 물론 아닐 것입니다. 지식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란은 이 지식을 살려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마치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의 견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⁶⁷⁾

새로운 무슬림에게는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비무슬림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느끼지 못한다. 새로운 무슬림으로써 이 꾸란을 꼼꼼이 숙고해보면 차츰차츰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상기시켜 줄 것이요 그런 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02) 선행에 대한 촉구와 사악한 행위 근절

이슬람은 자신의 정신만 순화하는 종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

67) Muhammad Qutb, p. 45.

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의 정신이 순화되도록 도움을 주는 종교이다. 이 주제는 다시 다루겠지만 이슬람은 사회 각 구성원들과의 적당한 관계를 강조한다. 개인 간의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 중의 하나는 좋은 일은 촉구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쁜 일은 금지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애의 한 부분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 형제애다. 어떤 무슬림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이슬람의 형제자매에게 충고를 하는 것도 이슬람의 진정한 형제애의 일부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통해서 진정하고 진실한 형제애의 의미로 좋은 일은 촉구하고 권장하되 나쁜 일은 금지하고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71. 남자나 여자나 믿는 자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들이니라. 그들은 선을 권유하고 악을 금하며...(9:71)

2... 좋은 일과 정의를 위해 서로 협력하라. 그러나 죄악과 증오에는 협력하지 말라...(5:2)

좋은 일은 촉구하고 나쁜 일은 차단하는 것이 무슬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0. 너희가 가장 훌륭한 공동체의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권장하고 악을 멀리할 것이며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느니라...(3:110)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믿는 자가 따라야 할 필수사항이다. 또한 한 공동체가 해야 할 임무 중의 일부이다. 각 개인은 다

른 사람에 대한 권리가 있는 반면에 타인에 대한 의무도 있다.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거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무슬림들에게 말씀하길, “나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분을 두고 맹세하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일은 촉구하고 권장하되 나쁜 일은 금지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분에게 빌고 간구해본들 그분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⁶⁸⁾

알부키리가 수집한 하디스에 의하면 예언자께서 사회 전체를 위해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언자께서 비유하시기를, “악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금기한 것에 빠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선박 위에서 피신할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추첨을 하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일부는 선박 위층에 있었고 일부는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여 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야만 했습니다. 올라가서 위층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배에 구멍을 낸다면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 위층에 있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층 사람들의 요구대로 방치한다면 모두가 익사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층의 사람들이 아래층의 손들

68) Ahmad and al-Tirmizi. 알-알바니에 따르면 이 하디스는 정확한 것 (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vol. 2. p. 1189.

을 붙잡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층의 사람들도 구제되고 아래층 사람들도 모두 구제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쁜 일로부터 멀리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려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진실한 친구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데 잘못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 특히 주변 동료들이 부추길 때 뿌리치지 못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옳은 일을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용기있게, ‘안돼, 그것은 나쁜 일이야. 해서는 안돼’라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도 태만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 있다. 그러나 주변의 진실한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거나 용기를 북돋아주면 그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만일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사회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나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이웃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좋은 일을 촉구하고 나쁜 일을 제거하지 않으면 폭력배들에 의해 이웃들이 큰 불상사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는자들이 힘을 모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일을 촉구하고 나쁜 일을 차단해야 한다.

누구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차단하는 이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완벽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원칙, 즉 선을 추구하고 악을 제거하는 일은 자기 자신부터 실천해 옮겨야 한다. 자기 자신부터 모범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비록 자신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촉구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해야 한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하는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예를 들어 꾸란과 순나에 근거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아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그 조건이 순나와 일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새로운 무슬림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을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듣는다. 주로 흥분한 무슬림들이나 상황과 때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무슬림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 언어적인 장애로 그런 경우도 있다. 새로운 무슬림에게 피해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그 친구는 지금 그에게 옳은 것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이슬람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만일 새로운 무슬림이 그러한 것에 실망을 느낄 때가 있다면 새로운 무슬림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형제 무슬림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03) 사람 존중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인간을 위해 특별한 지혜를 두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재능과 기술을 주어 그것들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 나는 아담의 자손들을 영광되게 하고 육지와 바다에서 그들을 운반하여 주고 그들에게 좋은 양식을 베풀어 내가 창조한 어떤 것들보다 인간을 높이 두었느니라(17:49)

주목할 만한 이 축복은 인간 발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의도한 결과이다.

인간은 신성한 안내서에 의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명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자연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또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 그러한 원숭이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가고 있다. 인간은 원천적으로 원죄가 없고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유전으로 상속받고 탄생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구원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도 배워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가치는 사실상 제로의 상태가 되고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과 자원착취를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용

되고, 도살되고, 피살되는 동물들과는 다르게 더 좋은 방법으로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계시를 통해서 인간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큰 책임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가장 위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서들을 인간의 안내서로 보내 인간의 명예를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에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두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맡기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할 때 그것들로 하여금 인간에게 순종토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순종토록 하였나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증표들이 있느니라(45:13)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되고, 순교자가 되고, 학자가 되는 기회를 주셨고 특별한 명예와 고귀함을 주셨다. 이러한 모든 축복들은 성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게 베푸셨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5.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녀를 불문하고 너희가 행한 어떠한 일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서로 동등하니라. 나를 위하여 집을 떠났거나 추방당했거나 수고했거나 성전하였거나 살해당한 자 모두를 용서하여 강

이 흐르는 천국으로 그들을 안내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니라. 그리고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느니라(3:195)

97.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부여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실천한 선행에 대하여 최상의 것으로 보상할 것이니라(16:97)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점을 남녀의 성, 인종, 민족, 재물, 국적, 지위, 직급관계로 보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잘못이다. 이 기준들은 인간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실질적인 관계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 인간들이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를 두고 종족과 부족을 두되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니라(49:13)

오늘날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존경스러운 대우를 받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인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역할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인간은 숭배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어 인간의 권리는 다른 것들을 지배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권리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사실상 인간의 권리추구에 대한 많은 주장들은 숭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권리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것

밖에는 없다.⁶⁹⁾

이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적절한 길이 아니다. 사실상 이것은 극단주의의 한 형태다. 어떤 것이든 감당하기에 힘든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권리와 책임을 주게 되면 그 결과는 오히려 힘들고 피해를 보게 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해야 할 권리를 포함해 자신을 위해 결정할 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인간의 내면을 상세하게 알고 있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창조주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권리와 당연한 권리를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분의 지식과 정의에 근거하여 인간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행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시면서 동시에 책임을 부과하셨다. 이 권리와 책임은 인간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인간 권리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큰 결점은 단지 현세와 관련된 권리만을 다루면서 인간의 경험 밖에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이 권리는 다음의 하디스에 묘사되어 있다. “예언자께서 무아즈(Mu'ath bin Jabal)를 불러 질문하셨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69) 만일 사회가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로 하나님을 숭배하기로 결정하고 동성애같은 행위를 금지한다면 그 사회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만일 개인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동성애같은 것을 피한다면 그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은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숭배의 권리와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권리는 그렇지가 못하다.

고 있나요?’ 그러자 무아즈가 대답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인간은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분께 어떠한 것도 비유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하셨다. ‘인간이 그렇게 할 경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러자 무아즈가 대답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권리지요.’”⁷⁰⁾

70) al-Bukhari and Muslim.

제3장 | 이슬람교 입교

하나님께서서는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종교에 입교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셨다. 무슬림이 되는 데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 이슬람교에 입교하기 위해 사제도 필요 없고 세례식 같은 특별한 의식도 없다. 무슬림이 되는 한 가지 조건은 자신의 믿음을 선서하는 것밖에 없다. 선서하는 문구도 간단하다. “아쉬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 나 무함마단 라술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선서합니다.” 다시 말하면 숭배의 대상이 되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 것도 없고 무함마드는 그분께서 보내신 마지막 사도라는 뜻이다. 이 문구를 선서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무슬림으로써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슬람의 형제자매가 된다. 그리고 이 형제애는 종말까지 계속된다.

본장에서는 선서문(shahadah)의 내용을 다소 깊게 다룰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슬람교 입교와 관련한 일부 규범들도 다룰 것이며 무슬림이 되기 전에 그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도 일부 언급할 것이다.

01-믿음의 선서 문구(shahadah):

라 일라하 일랄라(la ilah illa Allah)

이 문구를 선서함으로써 무슬림이 된다. 이 문구는 인간으로부터 숭배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뜻이다. 이것은 어떤 진리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므로 공개적인 선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미이다.⁷¹⁾ 이븐 아비 알잇즈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예언자께서는 예언자를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가 자신의 입으로 그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면 그는 확실히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⁷²⁾

입으로 선서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이 선서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정에서 선서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가 진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사실이며 그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그 사실들을 준수한다는 뜻이다. 그가 진술한 것을 따르고 선서문의 요구사항과 지

71) 이슬람교인으로 밝혀질 경우 죽음을 피하기 어려울 때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난관에 처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선서를 해야 한다. 예언자와 그분의 추종자들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72) Ibn Abu al-Izz, vol. 2, pp. 471. The translation used here is a pre-publication copy of Muhammad Abdul Haq Ansari, trans., Commentary on the Creed of al-Tahawi by ibn Abi al-Izz (Riyadh: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2000), For the sake of the page numbering, the published version from Muassat al-Risalah will be the work referred to.

침서를 지키겠다는 의미다. 세 번째는 무슬림으로써의 의무와 권리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무슬림이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다.

무슬림은 ‘라 일라하 일랄라’ 문구를 공표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무슬림들이 단순히 이 문구 선서에만 의존하면서 이것이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문구 선서 하나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이 문구 선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상 위선자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짓말쟁이들로 묘사하고 그들은 지옥불 최하층에서 기거할 것이라고 하셨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종류의 선서이든 간에 그 안에는 일부 조건이 있다. 하나님께 하는 선서⁷³⁾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선서를 한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서를 받아주시도록 모든 정성을 다 해야 한다.

하나님께 하는 선서에도 일부 조건이 있다. 와흐(Wahb ibn Munnabih)의 추종자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라 일라하 일랄라’ 문구는 천국의 열쇠가 아닌가요? 그가 대답했다.

73) 믿음에 대한 선서의 조건은 잘 알려진 것으로 여러 책에서 다루어졌다. Hafiz ibn Ahmad Hakimi, *Marj al-Qubul bi-Sharh Sullim al-Wusul fi al-Tawhid* (Beirut: Dar al-Kutub al-Ilmiyah, 1983), vol. 1, pp.307-315; Abdullah ibn Jibrin, *al-Shahatan*(____, ____, 1990), pp.77-86; this author also presented most of this material on the two parts of the *shahadah* in his *The Friday Prayer: Part II: Khutbah (I)* (Aurah, Co: IANA, 1994), pp, 4-19; *The Friday Prayer: Part III: Khutbahs (II)* (Ann Arbor, MI, 1995), pp. 35-42)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각 열쇠는 각각의 톱니가 있습니다. 만일 자물쇠 톱니에 맞는 열쇠를 사용한다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물쇠 톱니에 맞지 않는 열쇠를 사용한다면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톱니들이 무슬림들을 식별하는 조건들이다. 이처럼 톱니가 맞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하루에 수차례 선서 문구를 말했다 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천국의 문에 있는 자물쇠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들을 공부하게 되면 선서 문구가 유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알게 되고 왜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확신하게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지만, 새로운 무슬림은 선서 전이나 후에 그 조건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⁷⁴⁾

첫 번째 조건은 지식이다. 기본적으로 믿음의 선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선서의 내용 중에 무엇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분명히 거절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모든 선서의 의미가 다 그렇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떤 것을 선서할 때 선서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고 하는 선서의 내용은 수락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7. 그들을 창조한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이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

74) 꾸란이나 순나에서 확인된 것이지만 알지 못하여 오는 의심이나 불확실은 예외다. 꾸란 혹은 순나에서 확인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관하여 의심하고 불확실한 행위를 할 때는 의심할 여지없이 불신에 해당한다.

노라(43:87)

그러므로 자신이 선서한 기본적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숭배를 받을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 외에는 어느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가 선서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확신이다. 이 단어는 의심과 불확실의 반대 개념이다. 이슬람에서는 꾸란 혹은 순나에서 확인된 것에 관하여 의심을 하는 것은 불신(kufr)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라 일라하 일랄라'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를 마음으로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 신앙인들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되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자들로 이들이 바로 진실한 신자들이니라(49:15)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선서한 후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⁷⁵⁾ 한편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묘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5. 그러나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성전 참여를 면제받고자 그대에게 허락을 구하니 그들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노라. 그래서 그들은 의심 속에서 방황하고 있느니

75) 무슬림이 전함.

라(9:45)

세 번째 조건은 수락이다. 앞의 두 가지 조건이 실현되었다면 그 다음은 선서의 문구가 담고 있는 내용을 모두 혀와 마음으로 수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kafir)이다. 지식과 확신을 가졌다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수락하지 않으면 오만과 질투와 시기심같은 것을 초래한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인 수락이 없는 믿음의 선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조건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꾸란의 내용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이다.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5. 그러나 아직도 너희는 서로 살생하고 너희 중에 있는 일행을 너희의 주거지에서 추방하며 죄악과 앙심을 조성하고 포로가 될 때는 보석금을 갈취하노라. 실로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며 성서의 일부만 믿고 일부를 불신하는 자 그들을 위한 현세의 보상은 무엇이겠느냐? 실로 현세에서는 치욕을 맛볼 것이요 심판의 날에는 엄한 징벌이 있을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시니라 (2:85)

36. 믿는 남자이건 믿는 여자이건 하나님과 사도께서 결정하신 일을 선택하려 함은 온당치 아니 하니라 만일 하나님과 사도에게 거역하는 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방황하는 것이니라 (33:36)

네 번째 조건은 복종과 순종이다. 이것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슬람이란 어휘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의지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4. 그러므로 너희 주님께 귀의하여 너희에게 징벌이 이르기 전에 그분께 복종하라 그 후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39:54)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도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의 조건으로 두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5. 그들이 그대로 하여금 분쟁을 조정케 하고 그대가 조정한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고 그것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결코 믿는 자들이라 할 수 없느니라(4:65)

진실한 신자들은 실수나 오류를 절대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이 옳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그는 그가 선서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진실이다. 진실은 위선과 기만의 반대개념이다. 믿음의 선서를 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선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말로 선서를 해도 안 되고 어느 누구를 기만해도 안 된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선서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⁷⁶⁾

76) al-Bukhari.

여섯 번째 조건은 순수성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믿음의 선서가 되어야 한다. 다른 이유나 다른 사람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 어떤 것도 비유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 어떤 것을 비유한다면 그것은 순수성이 아니다. 무슬림이 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분의 노여움과 징벌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자비와 보상을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 내가 이 성서를 진리로 그대에게 계시하나니 하나님만을 위한 성실한 종교생활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39:2)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믿음의 선서를 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옥을 금지할 것입니다.”(77)

일곱 번째 조건은 사랑이다. 무슬림은 믿음의 선서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믿음의 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사랑하고, 믿음의 선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믿음의 선서를 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믿음의 선서조건에 꼭 필요한 것이다. 믿음의 선서를 한 사람이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이 믿음의 선서를 사랑하지 않거나 싫은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 이상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7) Muslim.

165.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노라 그들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하나 믿음이 있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상 숭배자보다 더욱 강하니라 우매한 자들은 징벌을 맞볼 것이라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벌은 엄격하시니라 (2:165)

24. 말하라 '너희 선조들과 너희 후손들과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친척과 너희가 획득한 재산과 그리고 거래가 없을까 두려워하는 상품과 너희가 바라는 주거지들이 하나님과 사도와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욱 귀중하다고 한다면 기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9:24)

여덟 번째 조건은 숭배대상으로써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거절하면서 믿음의 선서를 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서 문구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선서를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지가 않는 것 같아 설명을 보완하고자 한다. 꾸란 바까라 장에서 하나님은 이와 관련한 믿음의 선서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신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믿음의 선서는 확신과 부정을 함께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6. 종교가 강요받아서서 아니 되니라. 진리는 암흑으로부터 구별되나니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을 잡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2:256)

아홉 번째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서가 갖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서는 내세에까지 유효하므로 부활의 그날까지 지켜져야 한다. 과거에 행한 업적으로부터 얻은 명예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2. 믿는 자들이여, 바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라(3:102)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서는 아랍어 또는 어떤 특정 전문용어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믿음의 선서가 담고 있는 정확한 의미와 목적은 알고 있어야 한다.⁷⁸⁾

02-믿음의 선서 문구(shahadah):

무함마드 라술라라(Muhammad Rasullah)

이것은 믿음의 선서 두 번째 요소로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뜻이다. 역시 이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종종 바른 길, 즉 이슬람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서 두 번째 요소를 바르게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선서할 때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진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함마드를 사도로 선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124. 그들에게 증표가 이를 때면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더라. 하나

78) 한 하디스에 의하면 일부 사람들이 '사바나'(sabana)라고 말하면서 이슬람에 들어온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사비아 종교에 들어온 사람들의 선서로 무지로 인하여 무슬림들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님께서서는 당신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두실 것인가를 가장 잘 아시느니라. 사악한 자들은 곧 하나님 앞에서 굴욕과 음모에 대한 대가로 엄한 징벌을 받으리라(6:124)

본 절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품성을 말하는 대목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자를 사도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중요한 임무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짓말쟁이나 기만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를 선택하여 임무를 맡긴다는 뜻이다. 만일 누가 예언자께서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예언자께서 메시지를 왜곡시켰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믿음의 선서를 한 무슬림은 예언자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8. 말하라 실로 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모두를 위해 온 사도이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으며 생명을 주시며 앗아가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무학자인 사도를 믿으라. 무함마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니 그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 내받을 것이니라(7:158)

모든 무슬림은 심판의 날까지 예언자를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야 한다. 당연히 예언자를 따라야 하는데도 이에 저항하려는 무슬림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서한 것을 거역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들은 꾸란을 포함한 예언자의 순나는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지라고 이미 선서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의 선서를 한 무슬림은 예언자께서 메시지를 모두 전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4. ...사도에게는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무밖에 없느니라(24:54)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나는 여러분을 낮과 밤 할 것 없이 밝은 길에 두었습니다. 나를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자는 어느 누구도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⁷⁹⁾

사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모든 지침서를 전했다. 확실하게 전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슬림 여러분이 예언자께서 종교의 원리와 부차적인 것을 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인류를 위한 지침서로써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완벽하고 분명한 안내서가 있으니 이제 무슬림은 지침서로써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들도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 예언자는 토라를 읽고 있던 우마르에게, ‘만약 모세가 살아있다면 그도 예언자 무함마를 따랐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 교리, 즉 신학적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눈을 돌릴 필요도 없다. 안내를 받기 위해

79) 아흐마드와 알-바이하끼가 전함. 알-알바니에 의하면 이 하디스는 정확한 것이다. Muhammad Nasir al-Din al-Albani, *Sahih al-Jami al-Saghir* (Beirut: al-Maktab al-Islami, 1986), vol. 2, p. 805.

어떤 비무슬림들의 종교적 혹은 정신적 가르침을 눈여겨 볼 필요도 없다. 필요한 모든 것이 꾸란과 순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믿음의 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일부이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 믿음의 선서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 무함마드는 너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도이자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니라(33:40)

예언자 무함마드 이후로는 예언자가 오지 아니함으로 그분의 메시지 외에는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는다.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할 새로운 예언자도 오지 않고 새로운 경전들도 오지 않는다. 그분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칭 예언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다.⁸⁰⁾ 예언자 무함마드 이후 어느 누구는 그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믿음의 선서를 거짓으로 한 것이다.

또 믿음의 선서를 할 때 어떤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떤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숭배의 대상이 없다고 선서한 무슬림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는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라고 선서한 무

80) 예수가 재림한다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재림해서는 사도나 예언자의 신분으로 오지 않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길을 따르는 추종자로써 올 것이다.

슬림이 있다면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의 일부분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언자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언자에 대한 의무들 중에 첫째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가장 사랑받는 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 말하라. 너희 선조들과 너희 후손들과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친척들과 너희가 획득한 재산과 거래가 없을까 두려워하는 상품과 너희가 바라는 주거지들이 하나님과 사도와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욱 귀중하다고 한다면 기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느니라(9:24)

둘째, 믿음의 선서를 한 무슬림은 행위에 있어서나 도덕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언자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 진실로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과 내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따라야 할 가장 훌륭한 모범자이니라(33:21)

31. 말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따르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3:31)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선서를 한 후에도 일상생활

에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 무슬림들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들을 위한 모범자로 모시기는커녕 그분을 모범자로 삼는 무슬림들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믿음의 선서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명한 증거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나 역시 금식도 하고 금식을 깨뜨리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밤이 되면 잠도 자고, 결혼도 합니다. 이러한 나의 전통에서 벗어난 사람은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⁸¹⁾ 본 하디스는 예언자께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유를 막론하고 예언자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그분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 자는 무슬림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도 본 하디스의 교훈이다. 그런 사람은 사도를 믿고 그분을 예언자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자신의 일상적인 삶속에 예언자의 모범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03-이슬람 입교 관련 기타 절차

이슬람 입교와 관련한 부차적인 절차가 몇 가지 있다. 목욕, 털 제거, 할레가 바로 그것이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겠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이것이 믿음의 선서를 함에 지연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선서할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81) 알-부카리가 전함.

이슬람을 받아들이기도 했다면 믿음의 선서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시간이나 또는 많은 숫자의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선서가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슬람 입교를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한 그 때에 선서를 해야 한다.

01) 목욕(gasl)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에 입교하는 사람들의 목욕에 관하여 네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구체적 해석보다는 요약해서 설명하겠다.⁸²⁾ 목욕을 이슬람에 입교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wajib)로 보는 말리크 학파와 한발리 학파의 견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의무로 보지 않는 일부 한발리 학파의 견해, 권장사항(mustahaab)으로 보는 하나피 학파, 말리키 학파, 한발리 학파의 견해,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거나, 생리를 한 경우, 생리에 의한 출혈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보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이다.

이처럼 목욕에 대한 법학파들의 견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예

82) 이 주제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Dubyan al-Dubyan, *Ahkam al-Taharah: al-Gusl* (Riyadh: Maktabah al-겨녕, 2004), pp. 113-128. 참조. Yahya al-Nawawi, *Al-Majmu' Sharh al-Muhadhib* (Beirut: Dar al-Fikr, 1997), vol. 2, p. 153-154; Ibn Qudamah, *al-Mughni*, vol. 1, pp. 350/1.

언자께서 이슬람에 입교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목욕을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하디스가 이슬람 법에서 입증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들 하디스들은 결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하디스 학자들은 증거가 약한 것(daif)으로 간주하고 있다.⁸³⁾ 이에 덧붙여 예언자 시절 예언자께서 이슬람에 입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욕을 지시했다는 근거가 없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기술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목욕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무슬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⁸⁴⁾ 예배는 육신의 청결을 요구한다. 그리고 목욕은 청결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씻는 것과는 다르다. 개인의 이전 상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쟁은 대단하다. 한발리 학파의 경우 생리 혹은 생리적 현상에 의해 출혈이 끝나는 여성은 예배를 위해 목욕을 해야 한다.

이 모든 증거에 근거하면 믿음의 선서를 할 때 목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는 단순한 의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슬람에 입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재탄생하여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무슬림에게 있어서 이슬람 입교는 사

83) 한편 하디스 학자인 저명한 알-알바니는 이 하디스를 정확한 것(sahih)으로 간주한다. Muhammad Nasir al-Din al-Albani, footnotes to *Mishkat al-Masabih*, vol. 1, p. 118. 참조

84) 생리중이거나 생리적 현상에 의해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실상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점이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목욕은 은유적으로 자신의 몸에 있는 이런저런 불결함을 제거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한다는 뜻이다.

02) 털 제거

털 제거는 출처가 약하여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하디스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이슬람에 입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언자께서 그에게 이슬람 이전의 털을 제거하라는 말씀에서 근거한 하디스로 보고 있다. “불신 시대의 털을 여러분 몸에서 제거하십시오.”⁸⁵⁾

이 하디스가 옳은 것으로 수락된다 해도 예언자 시대 혹은 그 후에도 널리 퍼진 관행은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하디스를 종교적 목적으로 간주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들은 무슬림이 되기 위해 털을 제거해야만 했다.⁸⁶⁾ 예를 들어, 지금 시대에서는 인도의

85) 아흐마드, 압둘라자끄, 아부 다우드, 타바라니, 하킴, 바이하끼 등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학자들, 즉 나와위, 이븐 하자르, 다하비, 무나위, 문지리, 샤우카니, 다마바디, 무바라크부티, 두브얀은 이 하디스가 옳은 것이라고 했다가 약한 것이라는 쪽으로 판단하였다. Muhammad Nasir al-Din al-Albani, *Silsilat al-Ahadith al-Sahihah* (Riyadh: Maktabat al-Ma'arif), 패. 6, p. 476.

86) Muhammad Shams al-Haqq al-Adhimaba di, *Awn al-Ma'bud Sharh Sunan Abi Dawud* (Beirut: Dar al-Kutub al-Ilmiyah, 1995), vol. 2, p. 15; Muhammad al-Mubarakfuri, *Tuhfah al-Ahwazi*

일부 시크 교인들은 종교적 형제애의 상징으로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설명은 원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하디스가 약한 것이든 혹은 정확한 것이든 간에 털을 제거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목욕은 무슬림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슬람 이전의 삶속에 남아 있는 것을 제거하는 하나의 관행이다.

03) 할례

이슬람에 입교한 사람에게 예언자께서 할례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하디스가 전해지고 있다.⁸⁷⁾ 또 다른 하디스에서는 이슬람에 입교한 사람은 비록 나이가 들었다하더라도 할례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하디스 내용도 사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두고 허약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할례는 이슬람의 관행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무사항이 아니면 권장사항이다.⁸⁸⁾ 하지만 무슬림이 되면서 즉시 이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빈약하다.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있다. 옛날에 이슬람에 입교하기는 했지만 할례

(Beirut: Dar al-Kutub al-Ilmiyah, n.d.), vol. 3, p. 183.

87) Ahmad, Abdul-Razzaq, Abu Dawood, al-Baihaqi and al-Tabarani. 절대 다수의 학자들은 이 하디스를 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88) 자세한 설명과 토론은 Dubyan al-Dubyan, *Ahkam al-Taharah: Sunan al-Fitra*, 2000), pp. 91-110. 참조

를 두려워 한 성인들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언급하고 있다.⁸⁹⁾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의학의 발달로 할례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줄었다. 지구촌 일부 국가에서는 할례수술 비용이 꽤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입교한 즉시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비용이 마련될 때까지 할례를 지연시킬 수 있다.

04-새로운 무슬림과 관련한 보상과 특별한 상황

새로운 무슬림과 관련한 보상과 특별한 상황에 관한 예언자의 말씀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사를 안고 이슬람에 입교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나쁜 일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언자께서는 과거사의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카리가 그가 수집한 총서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킴(Hakim ibn Hizam)이 말하길, “하나님의 사도님, 이슬람에 입교하기 전에 저는 노예들을 풀어주고 형제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곤 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이 질문에 사도께서 대답하길, “당신은 과거에 당신이 베풀었던 선행의 업적을 갖고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이요.”⁹⁰⁾

무슬림이 되기 전 과거의 선행이 보상되나 그것은 이슬람을

89) Al-Dubyan, Ahkam al-Taharah: Sunan al-Fitra, p. 137.

90) 본 하디스에 대한 해석은 야흐마드 이븐 하자르에 근거한 것이다. *Fath al-Bari bi-Sharh Sahih al-Bukhari* (Beirut: Dar al-Maridah), vol. 3, pp. 302-303; Badr al-Din Al-Aini, *Umdah al-Qari* (Beirut: Dar Ihya al-Turath), vol. 8., p. 303.

받아들이는 덕분이라는 것이 본 하디스가 주는 교훈이다. 무슬림이 되기 전 과거의 선행이 보상된다고 예언자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 선행이 하나님께 수락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의도와 이슬람법과 일치하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무슬림이 되기 전의 모든 선행은 이 두 가지 조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하디스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과거의 선행이 선을 행하는 인격으로 발전시켰으며 그것이 그를 이슬람으로 안내하였다는 해석이다. 두 번째 해석은 현세에서 행한 선행은 보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슬람의 자비와 정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록 업적이 수락되는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행한 자에게는 보상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께서 말씀하길, “불신자도 현세에서 그가 실천한 선행이 있다면 그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⁹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무슬림이 되어 믿음에 충실할 때 무슬림이 되기 이전에 실천했던 선행이 보상될 뿐만 아니라 잘못했던 것까지도 지워진다는 또 하나의 하디스가 있다. 이 하디스에 의하면 그가 실천한 하나의 선행은 10배에서 7백까지의 보상이 따르고 그가 저지른 하나의 죄는 하나의 죄로만 기록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보아준다.⁹²⁾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베푸는 은총이다.

91) Muslim.

92) Malik and al-Nasai. 알바니에 의하면 이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vol. 1, p. 122.

이 하디스에 근거하면 무슬림이 되기 전에 실천했던 선행은 보상이 뒤따른다. 마찬가지로 무슬림이 되기 전에 저질렀던 죄도 제거된다. 그러나 이것은 무슬림이 된 후 믿음에 충실해야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수반된다. 이것은 부카리와 무슬림의 총서에 있는 하디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븐 마스우드가 예언자에게 무슬림이 되기 전에 행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예언자께서 대답하길, “이슬람에 입교하여 선을 실천한 자에게는 책임이 면죄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무슬림이 되기 전에 저질렀던 죄와 무슬림이 된 후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⁹³⁾

무스나드 아흐마드에 있는 하디스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예언자께서 아므르(Amr ibn al-As)에게 말씀하길, “아므르, 이슬람은 무슬림이 되기 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준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었소?”⁹⁴⁾ 이 하디스는 앞서 언급되었던 하디스, 즉 이슬람에 충실할 때 무슬림이 되기 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가 지워진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슬림이 되어서도 그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 전에 저질렀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 연계된 잘못과 죄만을 일컫는다. 부채상환 또는 실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명백한 꾸란 절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8. 하나님 외에 사신을 두지 아니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하

93) 이 전언은 무스나드 아흐마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 하디스는 무슬림 총서에도 있는데 약간의 어휘 차이를 보이고 있다.

94) Ibn Rajab, *Jami*, vol.1, p. 296.

나님이 금하신 생명을 살해하지 아니하며 간음하지 아니하며
벌 받을 짓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니라(25:68)

69. 심판의 날 벌 받을 짓을 한 자에게는 징벌이 두 곱이 되며
그 안에서 욕되게 살 것이니라(25:69)

70. 그러나 회개하여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
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선행으로 교체하여 주시거든
하나님은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니라(25:70)

일부 학자들은 이 꾸란 절에 근거하여 이슬람 이전 시대
(jahiliyah)에 지은 죄는 선행으로 대체된다고 보았고, 또 일부
학자들은 그 사람은 현세에서 선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보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과거에 저지른 죄는 부활의 날 선행으로 대체
되며, 이슬람 이전에 저지른 죄는 그것에 대하여 회개할 때 그
선행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요약하면 새로운 무슬림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 무슬림이
되는 순간 그는 그 전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과 죄를 즉시 용서받
고 그 전에 실천했던 선행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 기회를 갖
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 은총 중의 하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슬람에 충실하고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과 죄에 빠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그러나 무슬림이 된
후에도 이슬람생활에 소홀이 하면서 과거의 나쁜 행위로 돌아
간다면 하나님께서 베푼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끝으로 이슬람에 입교한 유대교인 및 기독교인과 관련된 꾸
란 절과 하디스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
자들과 성서들을 믿는 신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성서들과 예언

자들이 예시했던 마지막 예언자와 마지막 성서만 믿으면 된다. 이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1. 나는 그들에게 꾸란의 말씀을 전했나니 이로 인하여 그들이 교훈을 얻도록 함이니라(28:51)

52. 이 말씀 이전에 나로부터 성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느니라(28:52)

53. 꾸란이 그들에게 낭송되자 그들이⁹⁵⁾ 말하길, 저희는 그것을 믿나이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입니다. 실로 그 이전에 저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였습니다(28:53)

54. 그들은 두 배의 보상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인내하였고 악을 선으로 이겨냈으며 내가 그들에게 준 양식을 자선으로 베풀었기 때문이니라(28:54)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보상을 두 번이나 받을 부류가 있나니 그 부류는 마지막 예언자를 믿고 그가 예언자 무함마드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으로 그들은 두 가지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⁹⁶⁾

95) 이슬람교로 개종한 일부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가리킨다.

96) 알-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일부 학자들은 이 하디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아들이자 예언자인 예수의 메시지가 선임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폐기하여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표현을 빌리면 예수를 거역하고 믿지 않은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온 예수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다. 예수를 거역한 것은 그들을 위한 예언자의 메시지를 거역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위의 하디스는 유대교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예언자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이므로 전체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위에 인용된 꾸란은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에 동등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Ibn Hajar, Fath, vol. 1, pp. 190-191 참조.

05-이슬람 이전에 취득한 새로운 무슬림의 재산

비무슬림이 이슬람을 받아들일 때 이슬람이 금기하고 있는 출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자소득이나 알코올 거래 및 술 접대를 통해서 취득한 것 등 이슬람이 금지하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슬람에 입교한 새로운 무슬림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⁹⁷⁾

이에 대한 일반적 규범은 그가 취득한 재산이 그가 살고 있던 당시의 법에 근거한 합법적 취득이었다면 무슬림이 되기 전에 소유했던 모든 재산은 그의 재산으로 남는다. 그 재산은 그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슬람법을 적용해야 할 책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5. ...하나님께서 는 허락하였으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리대금업을 단념한 자는 그의 지난 모든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니라. 그러나 고리대금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있다면 그들은 지옥의 동반자로서 그곳에서 영주할 것이니라(2:275)

본 꾸란 절은 이슬람에 입교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예언자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예언자께서는 무슬림이 되기 전에 갖고 있던 재산과 취득 절차에 대해서 어느

97) Abbas al-Baz, Ahkam al-Mal al-Haram (Amman, Jordan: Dar al-Nafa'is, 1999), pp. 121-134 참조.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고 이슬람 이전에 이루어진 결혼에 관해서도 묻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있는 것들이 옳은 것이라고까지 믿을 정도였다.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 재산이 합법적이어서 이슬람에서 허용된 것으로 알았다. 그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 알면서도 알코올을 거래한 무슬림들과는 다르다. 이러한 무슬림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회개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으로 개종할 당시 이슬람이 불법으로 간주한 방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면 상황은 다르다. 예를 들어 술을 팔고 그것을 7월 1일 구매자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지불계약은 12월 1일까지다. 그런데 판매자가 9월에 이슬람에 입교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그것은 허용된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계약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 비준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5....하나님께서 는 허락하였으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리대금업을 단념한 자는 그의 지난 모든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니라. 그러나 고리대금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있다면 그들은 지옥의 동반자로서 그곳에서 영주할 것이니라(2:275)

279.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도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면 원금은 갚되 부정을 저지르지도 말고 부정을 당해서도 아니 되느니라(2:279)

한편 대다수 학자들은 술 판매 대금을 취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수락한 후에 메카 고별순례 때 예언자께서 이자가 들어간 모든 계약을 파기 하셨고, 또 비록 이 계약이 무슬림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예언자께서 금지된 조약으로 보고 무효로 하셨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무슬림이 되는 순간부터 금지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계약이 무슬림이 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재산은 금기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돈을 받을 생각이나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도 안 된다. 특히 오늘날의 계약서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계약 취소가 어려워 돈을 받아야만 된다면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많은 이슬람 성원들이 위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되는 돈, 예를 들어 위탁한 돈에 대한 이자 소득 같은 돈을 관리하는 계정을 갖고 있다. 그 돈에 사용처와 사용방법은 여러 학자들이 권장한 특별한 방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06-이슬람 이전의 결혼

이슬람은 이슬람 이전 시대(al-jahiliyah) 혹은 무슬림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결혼을 인정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한 증거는 분명하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꾸란을 통하여 예언자의 삼촌 아부 라합의 아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녀가 예언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박해하였는가

에 대하여 언급하셨고 파라오의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예언자의 여러 교우들은 이슬람 이전에 결혼한 부모들로부터 태어났고 그들도 이슬람 이전에 결혼했으며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합법적인 자식들로 간주되었다. 예언자께서 그들에게 다시 결혼하라는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고 그에 관하여 어떤 질문도 없었다. 예를 들어 증인 등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증인이 없는 결혼서약은 이슬람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슬림이 되기 이전 종교 혹은 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었던 관계는 이슬람에서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무슬림이 되기 전에 사생아로 태어난 자식은 이슬람에서도 사생아로 간주된다.⁹⁸⁾ 한편 무슬림이 되기 이전에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탄생한 자녀는 부모가 무슬림이 된 후에도 모두 합법적인 자식으로 간주된다.

무슬림이 되기 전의 결혼에 관한 일반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있다.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다. 예를 들어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형제자매간에 결혼이 허용되었다. 그러한 결혼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무슬림이 되는 순간 무효가 된다. 이에 더하여 이슬람 시대 이전에는 이슬람에서 허용하고 있는 4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무슬림이 되는 순간 4명 이상의 아내와는 이혼을 해야 한다.

이슬람으로의 개종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

98) Muhammad ibn Abu Bakr ibn Qayim al-Jawiyah, *Ahkam Ahl al-Dhimmah* (Damam, Saudi Arabia: Zamadi li-l-Nashr, 1997), vol. 2, pp. 764/2.

만드시 그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부부가 함께 이슬람에 입교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대로 부부관계를 계속하면 된다. 기독교나 유대교를 믿는 여성과 결혼한 남자가 무슬림이 되는 경우에도 다른 절차 없이 부부관계는 지속된다.⁹⁹⁾ 이런 경우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경우다.

첫째는 기독교나 유대교를 믿는 여성도 아니며 아직 이슬람에 입교하지 않는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다.

둘째는 이슬람에 입교한 여성이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다.¹⁰⁰⁾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 믿는 자들이여, 믿음을 가진 여성들이 너희에게 이주하여 올 때 그녀들을 시험하라. 하나님은 그녀들의 믿음을 온전히 알고 계시니라. 만일 그녀들이 진실한 신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녀들을 불신자들에게로 보내지 말라. 그녀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허락된 자들이 아니며 또 불신자들 역시 그녀들에게 허락된 자가 아니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녀들에게 지불한 것은 돌려주되 너희가 혼인금을 지불하고 그녀들과 결혼

99) 이 해석은 다음의 꾸란에 근거한 것이다. “5. 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것들이 허락되었으니 성서를 받은 자들의 음식이 너희에게 허용되었고 그리고 너희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용 되느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허용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순결한 여성들이며 그대 이전에 성서를 받은 자들의 여성들도 너희가 그녀들에게 혼인금을 지불하고 그녀들과 화목하게 살 때는 허용되거늘 그러나 간음을 해서도 아니 되며 내연의 처를 두어서도 아니 되나니 믿음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든 그의 일이 공허하게 되며 내세에서 손실 자가 되느니라.”(5:5)

100) 이 주제에 대한 해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저자는 이븐 알-카이임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Ahkam Ahl al-Dhimmah*, vol. 2, pp. 640-695). 이븐 알-카이임은 이 주제들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할 경우는 최악이 아니라. 믿지 않는 여성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지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받고 그들도 자신들이 지불한 것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규범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현명한 분이시니라(60:10)

221. 믿음이 없는 여성과 결혼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여성 노예가 믿음이 없는 매혹적인 여자보다 더 나으니라 또한 믿음이 없는 남성들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딸들을 결혼시키지 말라 믿음을 가진 노예가 믿음이 없는 매혹적인 남성보다 더 나으니라 이들 모두는 너희를 지옥으로 유혹하나 하나님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사 관용을 베푸시며 사람들에게 징표들을 분명하게 하시니 그들도 상기하게 될 것이니라(2:221)

이븐 알-카이임에 따르면 이슬람에 입교한 여성이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경우 그 결혼은 중지되고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그의 아내로 남지 않고 남편에 대한 의무도 제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남자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공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¹⁰¹⁾ 이 무슬림 여성은 결혼을 종료하거나 또는 기다려야 할 법정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든지 아니면 비무슬림 남편이 이슬람에 입교할 때까지 결혼을 중지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남자가 이슬람에 입교했을 때, 비록 몇 년이 지난 후에 무슬림이 되었다할 지라도, 무슬림 여성은 결혼식을 치를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그 남자의 아내로 돌

101) 남편은 부인에게 재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할 의무를 갖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로써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아간다. 예언자의 딸 자아납의 경우가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다. 자아납은 이슬람에 입교했으나 남편 아부 알-아스(Abu al-As ibn al-Rabi')는 몇 년 동안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6년이 지난 후 이슬람에 입교하고서 메디나에 왔을 때 예언자는 결혼 서약이나 혼인금 없이 재결합을 시켰다.¹⁰²⁾

남자는 이슬람에 입교했는데 아내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닌 비무슬림인 경우 그녀를 아내로 유지할 경우 아내에게도 피해가 되고 남자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원만하지 않고 또한 온전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그리고 아내가 이슬람 입교를 거부할 경우 결혼관계는 종료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 ... 믿지 않는 여성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지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받고 그들도 자신들이 지불한 것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규범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현명한 분이시니라(60:10)

07-이슬람의 입교와 개명

지역에 따라 이슬람에 입교하면서 개명을 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다.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공동체의

102) Ibn al-Qayim (vol. 2, p. 650) 남편이 메디나로 오고 있을 때 자아납이 예언자에게 남편이 자신의 집에 체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예언자께서 대답하길, “그는 너의 남편이다. 그런데 그는 너와 육체적 관계를 위해서라면 함께 체류할 수 없다.” 이 하디스는 그 결혼이 중지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 사람은 완전한 헤어진 관계다. 본 저자가 이 이야기에 관한 다른 문헌을 찾을 수 없어 유감스럽다.

일원이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개명은 필수사항인가 권장사안인가? 아니면 선택사안인가?” 이 질문에 대한 회신에서 이슬람법 해석의 최고 권위자였던 사우디아라비아 (고)압둘아지즈 빈 바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 이슬람에 입교한 사람이 이슬람 이름으로 개명해야 된다는 이슬람법 조항은 없습니다. 개명을 요구하는 어떤 이슬람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의미가 담긴 이름, 즉 압둘마시흐(Abd al-Masih: 예수의 종)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개명을 해야 하고 의미가 좋지 않은 이름, 즉 알하즌(al-hazn: 슬픔)이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은 알라티프(al-latif: 부드러움)이란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못한 이름은 적절한 이름으로 개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의미가 담긴 이름은 반드시 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이름들의 개명은 권장사안 또는 허용된 사안입니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안으로는 기독교인들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사람이 그는 기독교인임에 틀림이 없어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름의 개명은 권장사안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 개명을 하는 것은 좋은 것(hasan)입니다.”¹⁰³⁾

빌랄 필립스는 이 질문에 좀 깊숙이 통찰하였다. 새로운 무슬림들은 이슬람식 작명제도¹⁰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혼돈시

103) Ali Abu Lawz, *Answers to Common Questions from New Muslims* (Ann Arbor, MI: IANA, 1995), pp. 22-23.

104) 그가 언급하고 있는 이슬람식 작명제도란, ‘...가문의 ...의 자손’ 또는

대의 유럽식에 따라 아랍 이름들로 개명하는 사례가 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문명이 지워지고 노예시대의 잔재에서 비롯된 이름들이 있다. 선조들이 노예였던 자들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주인의 가문 이름을 채택하기도 했다.

클리브 바론 윌리엄스(Clive Baron Williams)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조지 하버트 윌리엄스(George Herbert Williams)였다. 그런데 이슬람에 입교하면서 그는 파이잘 우마르 느쿠르마 마흐디(Faisal Umar Nkurma Madhi)로 개명을 하였다. 그런데 이슬람적인 작명제도에서 보면 그의 이름은 조지 윌리엄의 아들 파이잘이라는 의미를 가진 ‘파이잘 조지 윌리엄스’(Faisal George Williams)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윌리엄스(Williams)는 그의 선조들의 농장주인이었거나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였으므로 이슬람식 작명제도에 따라 그의 이름은 조지 윌리엄스의 아들 ... 라고 해야 옳다. 새로운 무슬림들 중에서 가문의 이름을 바꾸거나 없애는 이런 관행은 쉽게 피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비무슬림 가족 측의 비애와 분노를 유발시켰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무슬림은 비록 자신의 이름이 기독교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슬람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명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절벽에 거주하는 자’란 의미를 담고 있는 클리브(Clive)란 이름은 반드시 변경할 필요가 없다. 디오니

‘...부족의 ...의 가문의 ...의 자손’ 등으로 불리는 것을 말한다.

시우스(Dionysius: 술과 풍요의 그리스 신)의 변형인 데니스(Dennis)란 이름은 반드시 개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인들이 숭배했던 그리스 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입교한 무슬림이건 혹은 오래된 무슬림이건 첫 번째 이름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언자께서도 초기에 이슬람에 입교한 사람들의 이름이 부정적 혹은 비이슬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경우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바르라(Barrah: 경건함)라는 이름을 가진 예언자의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예언자는 그 이름을 자이납으로 개명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순결함이 너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경외하는 자를 잘 알고 계시느니라(53:32)

예언자께서는 누가 되었던 간에, 비록 비이슬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결코 바꾸지 않으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문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이슬람의 정신에 위배된다. 아버지의 이름과 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성은 반드시 무슬림의 이름에 들어가야 한다.¹⁰⁵⁾

08-이슬람에 입교했을 때 얻은 열매

앞서 이슬람의 중요한 특성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 장을

105) Bilal Philips, *Tafsir of Surah al-Hujraht* (Riyadh: International Islamic Publishing House, 1988), pp.120-122.

종료하기 전에 이슬람에 입교하여 이슬람의 가르침을 준수할 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열매들을 강조하고 싶다.

이슬람 종교가 모든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내리신 진리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은 인간의 숭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수락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와 거래의 규범을 인간에게 제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 정도로 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가는 것이며 방황하는 자는 스스로를 방황하게 할 뿐이라 짐을 진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아니하며 내가 사도를 보낼 때까지는 결코 별하지 않느니라(17:15)

그리고 하나님의 종교를 거역한 자는 이슬람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다. 그 피해는 모두 거역한 자에게로 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4. 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릇되게 하지 아니하시나 인간 자신들이 스스로를 우매한 자로 만드느니라(10:44)

09-주심이사자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는 것

무슬림이 되어 얻게 되는 가장 큰 소득은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애매모호하고 무미건조한 철학적인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과 하나님께서 꾸란과 순나를 통해서 내려

주신 지식으로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각 명칭은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하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더하여주며, 그러한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근접하게 하여 주고, 좋은 일들을 하도록 유도하여 준다.¹⁰⁶⁾

이븐 타이미아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명칭들과 그것들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는 자는 단지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완벽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¹⁰⁷⁾ 이븐 사아디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명칭들과 속성들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더 진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확신해집니다.¹⁰⁸⁾ 하나님의 명칭과 속성들에 대한 지식은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열쇠다. 이에 관하여 이븐 까이임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 외에 모든 것을 알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분 외에 모든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¹⁰⁹⁾

이 지식의 영향은 커서 하나님의 명칭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106) 이븐 알-까이임은 하나님의 명칭 하나하나가 그 명칭과 속성에 따라 인간에게 특별한 예배의 종류를 요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Muhammad ibn al-Qayim, *Miftah Dar al-Sa'adah* (Beirut: Dar al-Fikr, n.d.), vol. 2. 90.

107) Ahmad ibn Taimiyah, *Majmu' Fatawa Shaikh al-Islam ibn Taimiya*(Collected by Abdul Rahman Qasim and his son Muhammad, __), vol. 7, p. 234. Fawz bint Abdul Latif al-Kurdi, *Tahqiq al-Ubudiyah bi-Marifah al-Asma wa al-Sifat* (Riyadh: Dar Taibah, 1421 A.H.), p. 163.

108) al-Kurdi, p. 164에서 인용됨.

109) Ibn Qayim, *Mudarij al-Salikin bain Manail Iyaka Nabudu wa Iyaka Nastain* (Beirut: Dar al-Kitab al-Arabi, n.d.), vol. 3, p. 351.

인식하고 그것들의 의미에 따른 삶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천국으로 안내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100에서 1개가 빠진 99개의 명칭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시면서 그것들을 헤아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¹¹⁰⁾

인간이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의 종류를 예언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다. “마음에 그것들을 두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달콤한 믿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는 어느 것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지옥에 가는 것을 싫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를 싫어하게 됩니다.”¹¹¹⁾

또 다른 대단히 중요하고 매력적인 것이 있다. 꾸란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간과해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슬람은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준다. 하나님께서 묘사하신 것처럼 그 관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110) al-Bukhari and Muslim. 본 하디스는 무함마드 무흐신 칸이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하나님의 명칭을 헤아리는 것은 이 명칭들에서 추출된 속성들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칭들을 암송하면서 선행이 뒤따라야 한다. 단지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담고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본 하디스에서 ‘아흐사’란 단어는 하나님의 명칭들이 담고 있는 의미에 따라 처신한다는 뜻이다. Muhammad Muhsin Khan, *The Translation of the Meanings of Sahih al-Bukhari* (Riyadh: Darussalam Publishers and Distributors, 1997), vol. 9, p. 296.

111) al-Bukhari and Muslim.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발전시켜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美)와 완벽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종과 명령을 받을 자격을 가지신 분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인간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간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슬람은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게 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 메카 이주민과 메디나 후원자들과 선행으로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또한 그분을 기쁘게 하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을 준비하시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하도록 하셨느니라. 그것이 위대한 승리이니라(9:100)

119.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오늘은 진실한 자만이 그들의 진실을 증거하는 날이니라. 그들을 위하여 강물이 흐르는 천국이 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이것이 커다란 승리이니라(5:119) (58:22, 98:8절 참조)

10-진정한 행복

38.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두 세상으로 내려가 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보낼 것이니 이를 따르는 자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니라(2:38)

123.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여기서 땅으로 내려가라 너희 중에 일부는 서로 적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보낼 것이라 나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불행하지 않을 것이니라(20:123)

124. 그러나 나의 경고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는 누구나 궁핍할 것이며 부활의 날 나는 그를 장님으로 만들어 부활하게 할 것이니라(20:124)

125. 그때 불신자가 말하길, '주여! 왜 저를 장님으로 부르셨나이까? 저는 시력이 있었나이다.'라고 하니(20:125)

126.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증표들을 보냈으나 너희는 그것을 무시했으니 오늘은 너희가 무시당할 것이니라(20:126)

127. 나는 방탕한 자들과 주님의 계시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내세의 징벌은 한층 심하고 지속되느니라(20:127)

인간은 창조주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를 아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 이 관계가 없으면 슬픔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확립되면 진정한 행복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

어온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학자들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통해 마음의 행복과 만족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한 저명한 이슬람학자 이븐 타이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통해 느끼는 행복을 표현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현세의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나의 적들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천국은 분명히 나의 마음에 있지 않는가!”¹¹²⁾ 이븐 타이미아의 가까운 제자였던 이븐 까이임이 있었다. 그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븐 타이미아를 자주 방문한 제자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븐 타이미아보다 행복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것처럼 궁핍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치와 풍요로움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투옥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도 받았지만 그는 마음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행복은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두렵고, 나쁜 예감이 들고, 지구가 우리를 조이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다시 힘이 생기고 기뻐지고 확신이 서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에게 천국을 입증하여 주신 하나님

112) Muhammad ibn al-Qayim, *al-Wabil al-Sayib min al-Kalim al-Tayyib* (Beirut: Dar al-Bihar, 1986), p. 73.

이시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¹¹³⁾

물론 믿음에서 온 그러한 아름다운 느낌은 이븐 타이미아에 만 국한된 건 아니다. 이븐 까이임은 다른 독실한 무슬림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왕들과 왕자들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칼을 들고 우리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무슬림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고 그 무슬림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만일 천국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면 그들은 멋진 인생을 즐길 것입니다.”¹¹⁴⁾

다른 한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의 청결(tazkiya)이 가져다주는 열매들은 시공을 뛰어넘는 영원한 과일들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의 맛을 보고 그것의 달콤함을 만끽한 후 그 기쁨 속에서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청결의 단계를 더해갈 것이

113) *al-Wabil al-Sayib min al-Kalim al-Tayyib*, p. 73.

114) Muhammad ibn al-Qayim, *al-Wabil al-Sayib min al-Kalim al-Tayyib*, p. 73. 이븐 까이임은 이븐 타이미아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어떤 선행을 하고서도 마음에서 어떤 달콤함이나 편안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해 하는 분이십니다. 즉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달콤함과 편안함과 눈의 기쁨으로 보상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의 선행에 하나님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Muhammad ibn al-Qayim, *Manhaj al-Islam fi Tazkiyah al-Nafs* (Jeddah: Dar Nur al-Maktabat, 1997), vol. 2, p. 753.

며 따라서 그와 같은 열매들도 늘어날 것입니다.”¹¹⁵⁾ 이븐 까이 임은 이에 덧붙여 꾸란을 인용하고 있다.

13. 실로 의로운 자들은 기쁨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82:13)

14. 사악한 자들은 불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82:14)

이 말씀이 단지 내세의 기쁨과 지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삶의 세 단계에 들어맞는 것으로, 현세의 인생,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오는 바르자크(barzak)에서의 인생, 그리고 부활 이후의 영원한 거처에서의 삶이다. “마음이 청결했던 영혼들은 달콤한 기쁨 속에 있게 되고 그렇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에 있게 된다. 그 기쁨은 단지 마음의 기쁨일 뿐이요 그 지옥은 단지 마음속에 있는 지옥일 뿐인가?

영혼이 청결하지 하지 않는 자들이 직면할 징벌보다 더 두렵고 더 걱정되고 더 불안한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과 내세를 외면한 자들에게 가해질 징벌보다 더 가혹한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단절하는 자들에게 가해질 징벌보다 더 가혹한 것이 있겠는가?”¹¹⁶⁾

11-자신에 대한 정의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비유하는 것은 큰 죄다. 특히 숭배 받을 자격이 없는 피조물을 숭배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자신

115) Anas Karzum, *Mahaj al-Islam fi Tazkiyah al-Nafs* (Jeddah: Dar Nur al-Maktabat, 1997), vol. 2, p. 753.

116) Muhammad ibn al-Qayim, *Al-Jwwab al-Kafi liman Sa'ala an al-Dawa al-Shafi* (Beirut: Dar al-Kutub al-Ilmiyah, 1983), p. 88-89.

의 영혼과 명예를 조롱하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 루끄만이 그의 아들에게 훈계한 것을 상기하라. 아들이, 하나님께 비유하여 사신을 섬기지 말라 실로 사신을 섬기는 것은 큰 죄이니라(31:13)

28. 믿는 자들이여 실로 불신자들은 불결하나니 그들로 하여금 그해 이후 하람 성원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거래의 손실로 가난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풍요롭게 하여 주실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현명한 분이시니라(9:28)

이것은 정신적으로 청결하지 못함을 말한다. 즉 자신의 영혼을 훼손하고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일위일체의 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귀함을 발견하고 영혼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게 된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며 용서를 빌고 회개 할 때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게 된다.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도 눈을 돌리지 않고 죽은 조상에게도 소원을 빌지 않는다. 무엇이 두렵거나 무엇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마귀를 쫓아내거나 귀신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만이 숭배의 대상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일위일체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고귀한 존재

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인간의 명예와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러한 행위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는다. 어떻게 자기 자신처럼 먹고, 화장실에 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을 숭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러한 인간이 신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러한 인간을 숭배할 수 있겠는가?

12-하나님의 징벌로부터의 구원받는 길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5.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며 심판의 날 보상을 받게 되느니라. 지옥으로부터 구제된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은 단지 환상적인 향락에 불과할 뿐이라(3:185)

실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의 현실을 맞이해야 한다. 죽은 후에는 주님 앞에서 업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믿음과 몸가짐과 업적들이 하나님의 보상과 징벌 그리고 분노로 연계되는데 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다.

부활의 날 믿는 자들과 믿음을 거부한 자들 사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진다. 부활의 날에 일어날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 사람들이여, 주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심판의 날의 지진은 무서우니라.

2. 그날 너희는 지켜보리니 모든 유모가 젖먹이는 것을 잊을 것이며 임신한 모든 여성이 유산을 할 것이니라. 그대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볼 것이나 그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워서 나타난 현상 때문이니라(22:1-2)

8. 나팔이 울려 퍼질 때(74:8)

9. 그 날이 곧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니라(74:9)

10. 불신자들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니라(74:10)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불신과 불신의 행위로 살아온 것 때문에 그 날에 있을 모든 축복을 잃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업적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눈여겨 보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꾸란 여러 곳에서 불신자들을 묘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7.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믿음을 팔아 하찮은 것들을 얻은 자들은 내세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니라.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속죄하여 주지도 아니하시니 그들에게는 참혹한 징벌만이 있을 뿐이니라(3:77)

13-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내세의 천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내세에서의 행복은 진실한 무슬림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내세의 삶이야말로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진정한 삶이다. 이

진정한 삶은 하찮은 속세의 삶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믿는 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¹¹⁷⁾

다시 말하면 이러한 축복과 삶의 행복은 믿음을 갖고 이슬람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위해 자신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들이 바로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이런 축복은 현세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못된 짓과 사악한 행위를 하여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만든 자들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든 인간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3. 이것은 내세의 집이나라. 나는 거만해 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느니라. 축복 받은 종말은 사악함을 멀리하는 자들을 위해 있느니라(28:83)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씻어 그들의 영혼을 청결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주신다. 이것은 현세에서 믿음과 선행으로 자신을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이다.

진실한 무슬림, 진실한 신앙인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행복을 체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세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상적이거나 환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의 영혼은 아름다운 향수를 풍기는 자신의 몸에서 자유스럽게 나와 내세의 첫 번째 행복을 맛보

117) al-Bukhari.

기 시작한다. 천사들이 그에게 와서 곧 맞이하게 될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꾸란에서 전개될 상황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옳은 길에 있는 자들을 위해 천사들이 내려와 말하길, 두려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시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시오 (41:30)

31.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과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41:31)

32. 이것이 바로 가장 관대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선물입니다(41:32) (꾸란 10:62-64 참조)

이러한 무슬림은 무덤에서도 행복을 맛본다. 그가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그가 앉을 천국의 의자를 본다. 그러나 믿음을 거역한 자들이 있는 무덤의 공간은 협소해지고 그가 앉을 지옥의 의자를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날 믿는 자들에게 전개될 상황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1. 나로부터 훌륭한 보상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지옥으로부터 먼 곳에 있게 될 것이니라(21:101)

102. 그들은 그곳에서 들리는 가장 작은 소리조차도 듣지 아니하며 그들의 영혼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니라. (21:102)

103. 가장 큰 공포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천사들이 그들을 영접하며 오늘은 당신들이 약속받은 날입니다 라

고 말할 것이니라(21:103)

61.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구제하여 승리의 장소로 인도하실 것이니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불운도 그리고 슬픔도 없느니라(39:61)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는 공포로부터 믿는 자들을 구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 의로운 영혼들에게, 영혼들아 너희는 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기뻐하라(89:27)

28. 주님께로 돌아가 너희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쁘게 하라(89:28)

29.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자들 가운데로 들어와(89:29)

30. 나의 천국으로 들어가라(89:30)

73. 주님을 두려워 한 자들은 집단을 이루어 천국으로 인도되니라. 보라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면 문들이 열리고 문지기들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평안하소서 당신들은 좋은 일을 하였으니 이곳으로 들어와 거주하소서(39:73)

74. 이때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당신께서 약속을 이행하셨고 저희에게 이 땅을 상속하여 주셨으며 저희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위대한 보상입니다(39:74)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함에 성공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2.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을 약속하셨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생할 것이라 에덴의 천국에는

아름다운 주거지가 있노라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으로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니라(9:72)

마지막에는 믿음과 선행과 모범을 통해서 자신을 청결하게 모든 무슬림들에게 가장 큰 보상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 선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더하여 지느니라. 그들의 얼굴에는 먼지만큼의 추함도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천국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사느니라(10:26)

무슬림 학자가 전하고 있는 하디스에 기록된 예언자의 말씀은 본 절에 언급된 그 이상의 축복이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는 축복이다.

제4장 | 신앙인(mu'min)이 되는 방법¹¹⁸⁾

믿음의 장 서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이슬람 시각에서 본 믿음이란 무엇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본은 무엇인가를 먼저 다루고자 한다.

01-믿음(iman; belief)의 정의

꾸란에 언급된 믿음이란 어떤 것에 대한 사실 인정을 의미한다.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그래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동일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일상생활과 당신의 언행과 당신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 “아니요.” 평범한 이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이

118) 본 장 서술에 있어 저자는 이전에 발행되었던 세 권의 책, *Whati is Islam* (Riyadh: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2006); *He came to Teach You Your Religion* (Denver, CO: Al-Bashir Company for Publications and Translations, 1997); *Purification of the Soul: Concept, Process and Means* (Denver, CO: Al-Basher Company for Publications and Translations, 2001)을 많이 활용하였다.

러한 믿음은 이슬람이 정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일치하는가?”

이슬람의 근본은 마음의 의도와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슬람은 본 장에서 다루겠지만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슬람의 시각에서 본 믿음이란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것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과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진실한 믿음은 이론적 혹은 추상적으로 남아 있지 않고 일상생활로 나타난다. 간단한 예를 들어, 사기나 절도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연계되어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책임을 묻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행위들을 자제한다. 그러나 부활의 날 그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행위에 휘말리고 결국 그런 행위들에 대한 엄한 징벌을 유발시킨다.

올바른 믿음은 어떤 행위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게 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믿음 안에서 발전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길을 만들어준다. 어떤 것에 대한 사랑과 어떤 것에 대한 혐오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어떤 것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랑하신다고 인정할 때 그것은 당연히 아름답고 그의 사랑도 받을 자격이 있

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한다고 인정할 때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므로 반드시 그것을 싫어해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흡연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흡연은 해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흡연이 해롭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흡연을 하거나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연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순응하지 않고 이 진리가 갖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흡연이 유발하는 피해에 대한 그의 지식이 마음에 스며들지 않아 흡연을 혐오하지 않는다. 꾸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에 대한 인식은 믿음과 같지 않다. 믿음(iman)이란 사실을 인정하면 그것에 순증하고 그것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믿음의 경우, 만일 그 믿음이 건전하고 돈독하다면 흡연을 혐오하는 마음이 생겨 피해가 되는 행위를 단념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선행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하나님께서서는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하사 너희로 하여금 불신과 죄악과 거역함을 혐오하도록 하셨느니라. 이들이야말로 바른 길을 걷는 자들이니라(49:7)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삶을 다스린다. 그리고 자신이 실천해야 할 일로 안내한다. 만일 믿음이 약하다면 그의 마음은 다른 힘의 지배를 받아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은 믿음과 일치한 행위와 실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천사들을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 현재 자신과 함께 하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인식이 그에게 영향을 미쳐 나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한다.

꾸란과 순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은 특정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초기 이슬람학자들은 이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믿음(iman)은 말과 행위, 즉 언행(言行)이다. 여기서 말(言)이란 마음의 의도와 혀의 움직임(움직임)을 의미한다. 행위(行)는 마음의 행위(순종과 사랑 등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육체의 행위(기도 등)를 뜻한다.¹¹⁹⁾

학자들은 이 믿음의 요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1)마음으로의 믿음
- (2)혀로서의 선서
- (3)육체로의 실천.

요약하면, 믿음이란 무엇에 대한 완벽하고 확고한 확신이므로 따라서 그러한 믿음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이슬람 시각에서 본 믿음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사이민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믿음은 수용과 복종을 요구하는 확신입니다. 어떤 것을 믿기만 할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아랍의 다

119) CF., Ahmad ibn Taimiyah, *Majmu' Fatawa Shaikh al-Islam ibn Taimiyah* (collected by Abdul Rahman Qasim and his son Muhammad, ___), vol. 7, p. 672.

신교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켜주시는 분으로, 생명을 주시고 앗아가시는 분으로, 우주의 관리자로 믿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믿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신앙인(mu'min)은 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바로 예언자의 삼촌 아부 딸립이었다. 예언자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¹²⁰⁾

02-맹목적인 믿음

두 번째 주제는 믿음의 기반이다. 영어에서 믿음(faith)의 일반적 개념은 입증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이 접근은 이슬람의 가치관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슬람의 시각에서 본 믿음은 반드시 지식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마음과 이성이 함께 믿음의 평안을 찾아 확고한 신념으로 그것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인간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에 모순되거나 위배되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사색하고 세심히 관찰하

120) Muhammad ibn Uthaimin, *Sharh Hadith Jibril Alaihi al-Salam* (Dar al-Thuraya 1415 A.H.), pp. 4-5.

라고 촉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다양성을 가리키면서 그것들을 사색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시하신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사물들을 사색하고 관찰할 때 다음과 같은 분명한 결론이 도출된다.

1.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한 실체, 즉 창조주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2. 어떤 것을 존재케 한 창조주는 아무런 목적 없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0. 하늘과 땅의 창조를 보고 또 낮과 밤의 변화를 보라. 이것은 이해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징표이니(3:190)

191. 서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하나님을 염원하고 하늘과 땅의 창조를 숙고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말하길, 주여! 당신은 아무 뜻 없이 창조하지 아니 하셨나니 당신께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저희를 유향불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3:191)

8. 저들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진리로 창조하셨으며 정하여진 기한을 두셨노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와의 만남을 믿지 않느니라(30:8)

115.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목적 없이 너희를 창조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느냐?(23:115)

꾸란이 제시하고 있는 이 증거는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피조물을 창조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창조주의 존재를 믿는 자가 모든 것이 아무런 목적 없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는 창조주를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애로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와 같은 창조주가 오늘날 누구나 지켜보는 것들을 존재케 한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각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리키고 있다. 어떤 중요하고 위대한 목적을 두고 각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주와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창조할 수 없다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창조능력을 가진 분은 완벽한 절대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곧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관리가 없이는 모든 것이 균형을 잡을 수 없고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 만일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모두 폐허가 되었을 것이라. 권좌에 계시는 주님이시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이 묘사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시는 분이십니다(21:22)

매우 중요한 두 번째 결론은 이 피조물들을 관찰하기만 해도 무(無)에서 이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면 그것들을 쉽게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것들이 소멸한 후에도 그것들을 되살릴 수 있다

는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해 그런 분은 죽은 자를 되살려 부활시킨 후 자신 앞에 세울 수 있다는 의미다. 분명한 것은 이 생각은 분명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꾸란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겨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9. 저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들과 같은 것을 다시 창조할 능력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저들에게 한정된 기한을 준 것은 의심할 바 없노라 그러나 죄인들은 거역하고 불신할 뿐이니라(17:99)

78. 인간은 나와 유사한 것을 지어내며 그가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서 말하길, 썩어버린 이 뼈에 누가 생명을 부여하느냐? (36:78)

79. 말하라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소생시킬 것이니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종류의 것을 창조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36:79)

80. 그분께서는 너희를 위해 푸른 나무로 불을 만드시며 너희는 그것으로 불을 붙이노라(36:80)

81.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에게 그런 것을 지으실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절대자 창조주이시니라. (36:81)

82. 실로 그분께서 어떤 것에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것이 있느니라(36:82)

83. 그분께서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의 왕국은 그분의 손 안에 있나니 너희 모두는 그분께로 돌아가느니라(36:83)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쁜 짓을 행한 자들과 좋은 일을 실천한 자들을 똑같이 다룰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 나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만물을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창조하지 않았느니라. 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억측일 뿐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지옥의 징벌이 있을 것이니라(38:27)

28. 내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와 지상에서 해악을 저지른 자를 동등하게 대하겠느냐? 내가 사악함을 멀리하는 자와 사악한 자를 동일하게 다루겠느냐?(38:28)

꾸란과 예언자의 진리에 기반을 둔 이슬람의 믿음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분명하고 직접적인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꾸란에 대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꾸란이 언급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믿음도 앞서 온 성서가 그분의 오심을 입증하고 있고, 그분의 고매한 성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베푸신 승리의 축복, 모든 시대에서 일어난 변화와 그 후의 안내와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슬람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들고, 그분이 제시한 삶의 목적과 부활을 믿고,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진실성을 믿는 것으로 이러한

믿음은 모두가 지식과 인간의 본성에 일치하는 이해에 바탕을 둔 믿음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지식에 근거하고 있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믿음과 지식 사이에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에 있어 애매모호한 것이나 불합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것과 불합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할 뿐이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 볼 수 없다.¹²¹⁾

03-믿음의 기둥

믿음의 조항들 또는 무슬림이 믿어야 할 일반적인 범주는 예언자께서 가브리엘 천사와 나눈 대화에서 윤곽이 분명히 들어나 있다. 그 대화에서, 천사가 예언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믿음이란 무엇이지요?” 이에 예언자께서 대답하길, “하나님을 믿고, 천사들을 믿고, 성서들을 믿고, 예언자들을 믿고, 종말을 믿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운명을 믿는 것입니다.”¹²²⁾

121)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믿음은 합리적이며 이해될 수 있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덤 속에 있을 때 징벌이 있다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무덤 속에 있는 시체는 썩어 없어지므로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비록 시체가 썩지 않고 전혀 훼손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하더라도 훼손이나 부패 등 이런 저런 방법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사실상 인간의 마음은 상상적인 육체적 고통이라도 느낄 수 있다. 경우가 어떻든 간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믿음은 불변이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122) Muslim.

새로 입교한 초보자 무슬림을 포함하여 무슬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최소한 이 믿음의 조항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적 설명은 각 사항별로 다를 것이다.

01)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일위일체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일위일체의 하나님을 아랍어로 타우히드(tawhid)라 일컫는다.¹²³⁾ 사안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학자들은 타우히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는 각각 하나님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한 믿음으로 만들어 준다. 꾸란과 순나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타우히드 주제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세 영역으로 분류된다.¹²⁴⁾ 이 세 영역은 각각 타우히드 루부비아(tawhid al-rububiyah), 타우히드 울루히아(tawhid al-uluhiyah)¹²⁵⁾, 타우히드 시파트(tawhid al-sifat)가 있다.

123) 타우히드(tawhid)란 단어는 ‘어떤 것을 하나로 만들다’ 혹은 ‘하나임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꾸란이나 순나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용어다. 이 용어는 이븐 압바스 같은 예언자의 교우(sahabah)가 사하바 시대(asr al-sahabah)에 사용했다.

124) 여러 영어판 저서에서도 타우히드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소개되고 있다. 빌랄 필립스의 저서에 소개된 내용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본다. *The Fundamentals of Tawhid* (Riyadh: Tawhid Publications, 1990), pp. 1-42. 본서는 다른 책들이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세밀하게 다룰 것이다.

125) 이 영역은 타우히드 이바다(tawhid al-ibadah)로 불린다.

(O1) 타우히드 루부비아(tawhid al-rububiyah)

이것은 모든 행위와 관련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이 자 주권과 관련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al-Rabb)이시다.¹²⁶⁾ 주권과 사역에 있어 어느 무엇도 비유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그분 외에는 창조주가 없고, 그분 외에는 주권자가 없고, 그분 외에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분이 없다. 모든 것을 존재케 한 분이시고 그것들을 유지시켜주는 분이시다.¹²⁷⁾ 그래서 모든 것은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븐 우사이민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오만한 자들과 폭군들을 제외한 인간들은 타우히드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한분의 창조주 외에는 어떠한 창조주도 없고 한분의 주님 외에는 어떠한 주님도 존재하지 않는다.¹²⁸⁾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한 실체가 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그 실체는 한분이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 진리는 꾸란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아랍의 일부 다신론자들조차도 그 유일한 창조주는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과

126) 랍브(Rabb)를 영어로 lord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영어로는 이 용어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서는 lord가 사용되고 있다.

127) 이 세상에 발명가나 제조업자, 소유자와 유지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한계가 있다. 절대적이지 못하다. 절대적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CF., ibn Uthaimin, *Sharh Hadith*, pp. 11-14.

128) Muhammad ibn Uthaimin, *Sharh Usul al-Iman* (Fairfax, VA: Institute of Islamic and Arabic Sciences in America, 1410 A.H.), p. 19.

미신들 위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인정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4. 말하라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너희가 만일 알고 있다면 말해보라(23:84)

85. 저들이 말하길 하나님께 속하나이다. 말하라 그래도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느냐?(23:85)

86. 말하라 칠천의 주인은 누구이며 권자의 주인은 누구시느냐?(23:86)

87. 저들은 말하노라 하나님께 속하나이다. 말하라 그래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느냐?(23:87)

88. 말하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뇨 또 모든 것을 보호하시면서 보호받지 아니한 분은 누구시뇨? 만일 너희들이 아는 자들이라면 말하라 하니(23:88)

89. 저들이 말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나이다.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는 현혹되고 있느냐?(23:89)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삶과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바른 길로 가는 것도 그리고 방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허락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법을 제정하고 생활의 지침서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을 믿고 불가시계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만의 권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으며 스스로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02) 타우히드 울루히아(tawhid al-uluhiyah)

숭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 한분밖에 없다. 신성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 한분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라 일라하 일랄라'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다. 타우히드를 위해서 예언자들이 왔고 성서들이 내려졌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험이요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6. 내가 진(jinns)들과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만을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51:56)

23.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노라 그분 외에는 아무 것도 경배하지 말 것이며...(17:23)

이 타우히드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진정한 목표요 본질이다. 앞서 언급한 첫 번째 형태의 타우히드 루부비아(tawhid al-rububiyah)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첫 번째 형태의 타우히드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도 한분이고 모든 피조물의 주님도 한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두 번째 형태의 타우히드와 일치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 어떤 것도 비유해서는 안 된다. 즉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와 처신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비유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꾸란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했던 말들이 인용되고 있는 이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7:59, 65, 83, 85; 11:50, 61, 84; 23:23, 32)

여러 저자들이 이 형태의 타우히드에 대하여 여러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알-까이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형태를 타우히드 울루히야(tawhid al-uluhiyah) 혹은 타우히드 알-이바다(tawhid al-ibadah)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으로나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하나님 한분만을 숭배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 한분 외에 숭배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비유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부정하고 하나님 외의 다른 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일체 삼가 해야 한다.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숭배해야 하고, 마음으로나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하나님 한분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희망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로만 지향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에게만 가까이 해야 한다.”¹²⁹⁾

그는 계속해서 숭배에 관한 여러 가지 행위를 언급하였다. 예배, 엎드림, 금식, 가축 희생, 성지순례 등과 같이 행위가 밖으

129) Marwan al-Qaisi, *Malim al-Tawhid* (Beirut: al-Maktab al-Islami, 1990), pp. 61-62.

로 드러나야 한다. 밖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식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타우히드를 부정하고 타우히드의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한편 싸아드는 그가 서술한 타우히드 울루히야(tawhid al-uluhiyah)에서 이 믿음을 분명히 하였다. “숭배를 받을 자격을 가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들과 그것들의 명칭들은 그 어떤 피조물에도 없고,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가 안팎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슬람이 요구하고 있는 외적 행위들, 즉 예배, 지하드, 선행에 대한 권장과 악행에 대한 저지, 부모에 대한 효도, 친척간의 유대강화, 하나님의 권리와 피조물의 권리 이행 등을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그것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예언자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꾸란과 순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행위와 품행은 하나님과 예언자께서 제시한 것을 준수하고 성품, 예절, 처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예언자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¹³⁰⁾

130) Abdul Rahman Al-Sa'adi, *Al-Fatawa al-Sadiyah* (Riyadh: Manshurat al-Muassat al-Saidiyah, n.d.), pp. 10-11. 싸아드가 정의하고 있는 타우히드 울루히야(tawhid al-uluhiyah)는 타우히드 이클라스(tawhid al-ikhlas: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순수한 타우히드), 타우히드 시드ṭ(tawhid al-sidq: 진실의 타우히드), 타우히드 따리ṭ(tawhid al-tatiq: 예언자의 모범을 따르는 길)로 구성되어 있다. 더

이 타우히드는 몸과 마음의 실천을 요구한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숭배해야 한다. 싸아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숭배의 정신과 실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종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빈틈없는 사랑과 최대한의 복종이 숭배의 정신이다. 숭배의 행위에 있어 이 두 요소 중 하나만 상실해도 그것은 진정한 숭배의 정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숭배의 정신은 하나님에의 완전한 복종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든 표현들을 초월한 빈틈없는 사랑과 최대한의 복종이 있을 때 나타난다.”¹³¹⁾

자으파르 쉐이크 이드리스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타우히드의 필수적 요소인 마음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타우히드의 정신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다시 진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어떤 행위를 유발시킨다. 이 정신적 상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바다(ibadah: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이 감사는 너무도 중요해서 믿지 않는 자를 카피르(kafir: 불신자)라고 부른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 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란 뜻이다. 꾸란을 읽는 사람은 왜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요 동기는 근거 없는 오만불손에서 온다. 이 오만불손한 자는 자신이 어떤 실체의 의해 존재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이 그 실체보다 위대하

구체적인 설명은 Muhammad al-Hammad, Tawhid al-uluhiyah (Dar ibn Khuzaima, 1414 A.H.), pp. 22-24
 131) al-Hamad, p. 26에서 인용된 것임.

다는 자만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6. 아무런 권위도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논쟁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오만불손함뿐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느니라...(40:56)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사랑이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5.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사랑은 그들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욱 강하니라(2:165)

믿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그의 선행은 감사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권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어나 그러한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제약을 받고 내세에 가서 벌을 받지 않을까 항상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게 되며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¹³²⁾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진정한 숭배가 아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¹³³⁾ 이 모든 요소들

132) Ja'far Sheikh Idris, *The Pillars of Faith* (Riyadh: Presidency of Islamic Research, Ifta and Propagation, 1984), pp. 9-10.

133) 때로는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고 사물이 두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사랑과 더불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은

은 함께 있어야 하고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 만일 이 요소들이 함께 있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숭배는 왜곡되고 옳지 않게 된다.¹³⁴⁾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이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인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0. ...이들은 선행에 서로 경쟁하였으며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나 앞에서 겸손해야하느니라(21:90)

선택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 중에 예수와 우자이르와 천사들이 언급되고 있다.

57. 저들이 주장하는 사신들도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길을 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그분의 징벌을 두려워하고 있노라...(17:57)¹³⁵⁾

이 타우히드의 영역은 참 삶의 열쇠다. 올바르고 완전한 삶의 길이다. 이븐 타이미아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¹³⁶⁾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숭배하되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비유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 두지 않으며, 그런 생각을 추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안에 있

숭배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134) 초기 학자들 사이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마음의 믿음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요소들의 균형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두려움과 소망에 관한 것이라는 설이었다. “그것들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신앙인은 소망과 두려움이라는 두 날개로 하나님을 향해 날아간다.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그는 잘 날아간다.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며 되면 균형을 잃게 되고 둘 다 없으면 그 새는 죽음에 난간에 있게 된다.” (al-Hammad, p. 41에서 인용)

135) CF., al-Hammad, pp. 34-41.

136) 이븐 타이미아가 사용한 어휘 압두(abd) 봉사자 또는 종이란 뜻이지만 모든 인간을 가리킨다.

어 인간의 몸은 음식과 음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둘 사이, 즉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과 음식에 대한 필요성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인간의 본질은 마음과 영혼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건전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유될 수 없는 홀로 계시는 절대적 존재다.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는 지상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은 주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¹³⁷⁾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체험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항상 옮겨 다니기 때문이다. 한 순간 또는 한 때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그때 또는 그 당시뿐이다. 때로는 한 때 그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것이 다음에는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더 많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¹³⁸⁾

인간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락되기 위해서는 이 부류의 타우히드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일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부류의 타우히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다른 형태의 타우히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수락하신다.¹³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7)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창조주와의 만남을 동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138) Ibn Taimiyah, *Majmu'*, vol. 1, pp.-24-29.

110.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는 어느 무엇과도 비유하지 말라 하셨느니라(18:110)

하나님만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예배(salah)와 기도(du'a)가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¹⁴⁰⁾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는 자신을 그것에 위탁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것에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사람에게 자신을 위탁하고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예언자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두뇌요 핵심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불신의 죄(shirk)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믿음(iman)과 타우히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타우히드 형태는 타우히드 루부비아(tawhid al-rububiyah)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서 오는 중요한 결과다. 하나님 외에는 주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외에 숭배의 대상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숭배의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인간이나 어떤 사물을 숭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 형태의 타우히드에 관하여 아불잇자 하 나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꾸란은 이 형태의 타우히드와 그에 관한 비유와 설명으로

139) CF., al-Hammad, *Tawhid al-Uluhiyah*, p. 18.

140) Abu Dawud, al-Nasai, al-Tirmizi. al-Albani. al-Albani, Al-Albani, *Sahih al-Jami al-Sagir*, vol. 1, p. 641.

가득 차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다는 타우히드 루부비아(tawhid al-rububiyah)에 관한 설명이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 어느 것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증거로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 아랍인들은 첫 번째를 믿으면서 두 번째는 문제를 삼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셨다. 하나님 외에 창조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인간에게 피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멀리하여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며, 그분에게 비유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그분에게 다른 것을 비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9. 말하라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라 그분께서 선택한 종들에게 화평함이 있을 것이니라(27:59)

하나님께서서는 저들이 숭배한 우상보다 더 훌륭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0.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이 비로서 정원을 아름답고 무성하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 나무를 자라게 하느뇨? 너희는 나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뇨 그러나 저들은 의로운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니라 (27:60)

꾸란 다른 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뇨?…(21:61, 63-64)

이 질문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를 묻은 질문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은 꾸란의 문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신들을 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증거하느냐? 말하라 내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라 그분께서는 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라...(6:19)

61. 땅을 안식처로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강들을 두셨으며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산을 세우시고 강과 바다 사이에 장벽을 두신 분이 누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단 말이뇨?(16:21)

그런 것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 인간들이여 주님을 경배하라 그분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고 또 너희 선조들을 창조하셨나니 경배하라 그리하면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니라(2:21)

46.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청각과 시각을 앗아가고 너희들의 마음을 밀폐하실 때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증표들을 설명하는지 보라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돌아서노라(6:46)

그와 유사한 다른 절들은 많다.¹⁴¹⁾

(03) 타우히드 아스마 와 시파트(tawhid al-Asma wa al-sifat)

세 번째 타우히드 형태는 명칭들과 속성들과 관련한 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완전하고 완벽한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이 속성들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도 없는 것이다. 이 속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이 속성들의 하나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이슬람 역사를 통해서 여러 종파가 나오게 한 또 다른 형태의 타우히드다. 슈아이브 아르나우트는 서로 다른 견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이슬람주의자들은 견해를 달리하였다. 그들 중에 일부는 그 속성들을 철저히 부정하는 노선을 따랐고, 일부는 하나님의 명칭들을 받아들이면서 속성들은 부정하였다. 일부는 명칭들과 속성들을 수락하면서 그것들 중에 일부를 부정하거나 꾸란과 순나에 있는 원문 해석을 멀리하였다. 일부는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모든 명칭과 모든 속성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명백한 의미에 따라 그것들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방식(kaifiyah)과 유사성(tashbih)을 부정하였다. 즉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이 속성들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마지막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살라프(salaf: 경건한 선임자들) 그리고 아흘루 순나(ahl al-sunnah: 예

141) Ibn Abu al-Izz, vol. 1, pp. 37-38.

언자 무함마드의 전통을 따르는 구성원들)라 불렀다.¹⁴²⁾

예언자 시대와 교우들시대부터 내려온 이 주제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싸아디가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꾸란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신 모든 속성과 예언자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한 모든 속성들을 믿는 것이다. 이들 속성들에 대한 믿음은 왜곡됨이 없고 손상됨이 없고 방법 혹은 방식에 대한 기술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을 닮은 것 아무 것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묘사하신 것을 부정하지 않고,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칭들을 부정하지 않고, 방법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을 피조물로 비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것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비유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142) Shuaib al-Arnaut, introduction to Zain al-Din al-Maqdisi, *Aqawil al-Thiqat fi Tawil al-Asma wa al-Sifat wa al-Ayat al-Muhkamat wa al-Mushtabihat* (Beirut: Muassassat al-Risalah, 1985), p. 6. 이 속성들에 관해 질문을 하고 그것들의 해석을 요구한 최초 인물은 말리크 시대 사람이다. 한 남자가 말리크를 찾와서 질문을 했다. “아부 압둘라(말리크), 아야톨 쿠르씨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권자에 오르셨다고요? 어떻게 오르셨나요?’” 말리크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자에 오른 것은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믿음은 의무입니다. 그것에 관해 질문을 하는 것은 이설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교도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것은 말리크의 해석으로 여러 전언과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 하디스의 계보와 의미에 대한 토론은 Jamal Badi, *Al-Athar al-Warada an Aimmat al-Sunnah fi Abwab al-Itiqad* (Riyadh: Dar al-Watn, 1416 A.H.), vol. 1, pp. 226-231.

하나님과 관련되어 묘사된 모든 명칭들과 속성들에 대한 믿음에는 반듯이 확신(isbat)과 부정(nafi)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흘루 순나를 따르는 구성원들은 예언자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가르침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원리에는 꾸란과 순나가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칭들, 속성들, 행위들 그리고 반드시 부정해야 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권자에 오르신 것¹⁴³⁾ 그리고 가장 낮은 하늘로 내려오시면 내세에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믿음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도 이 원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하신다고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것은 가장 높이 가장 위에 계신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특성들 중 어느 것 하나에도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¹⁴⁴⁾

다음의 꾸란 절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비유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는 속성들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느니

143) 알-바이하끼가 지적한 것처럼,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신다는 자하미야(jahamiyah)의 견해를 부정한다. Abu Bakr al-Baihaqi, *al-Itiqad ala Madhhab al-Salaf al-Sunnah wa al-Jama'ah* (Beirut: Dar al-Kutub al-Arabi, 1984), p. 55.

144) Abdullah al-Jarullah, *Bahjah al-Nadhirin fima Yuslih al-Dunya wa al-Din* (1984), pp. 7-8.

라(42:11)

본 절은 하나님에의 비유를 부정(nafi)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비유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확신(isbat)하고 있다.¹⁴⁵⁾

이 형태의 타우히드는 매우 중요하다.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흐마드 쌀람이 지적한 것처럼, 예언자가 오기 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며 그분께서 우주를 운영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께 서로 다른 형태의 사신들을 두었다. 이런 형태의 하나님, 저런 형태의 주님을 본래의 참 하나님으로 받들도록 하기 위해 이슬람이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본래의 참 하나님을 받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길 혹은 그것을 실현하는 시발점은 하나님의 명칭들과 속성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다. 만일 하나님의 명칭들과 속성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를 돌리지 않을 것이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들과 속성들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다

145) 이븐 타이미야와 그의 제자 이븐 알-까이임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설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고유권한이지 인간의 속성에 비유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븐 타이미야를 비난하고 있다. 이 비난은 이븐 타이미야에 대한 허위 보고와 무지, 그리고 미신과 신화에 반대해온 이븐 타이미야를 싫어하는 편견에서 온 것이다. 이 비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토론은 Salah Ahmad, *Dawah Shaikh al-Islam ibn Taimiya wa Atharuha ala al-Harakat al-Islamiyah al-Muasirah* (Kuwait: Dar ibn al-Athir, 1996), vol. 2, pp. 375-388 참조.

른 형태의 타우히드들을 완성하는 올바른 초석이다.¹⁴⁶⁾ 타우히드 루부비아(tawhid al-rububiyah)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고 덧붙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의 뿌리는 타우히드 아스마와 시파트(tawhid al-Asma wa al-sifat)다. 다시 말하면, '타우히드 루부비아'는 '타우히드 아스마와 시파트'의 반석 위에 있다. 그 뿌리 혹은 그 반석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의 나무는 병들거나 시들어버릴 것이다.¹⁴⁷⁾

예문에서 보면 '타우히드 아스마와 시파트'의 진정한 열매는 '타우히드 루부비아'다. 하나님의 명칭들과 속성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더 많이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들과 속성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이 주제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크게 해치게 되고 큰 행운을 잃게 된다.

02) 천사들에 대한 믿음

예언자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두 번째 부분은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일종이다.

146) Ahmad Salam, *Muqaddimah of Fiqh Usul al-Dawah* (Beirut: Dar ibn Hazm, 1990), p. 97.

147) Salam, p. 100.

그러나 인간은 천사들을 볼 수 없다. 천사들은 빛으로 창조되어 다양한 형상을 갖고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위한 종들로 어떠한 형태의 신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할 뿐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

만일 천사들을 믿지 않는다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전달된 계시도 믿을 수 없다고 쌀람은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하나님의 계시 꾸란을 전해준 것은 가브리엘 천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 특히 가브리엘 천사를 믿지 않을 경우 꾸란에 대한 믿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브리엘 천사가 꾸란을 전달했기 때문이다.¹⁴⁸⁾

이븐 우사이민에 따르면 천사들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다음 4가지 사항을 필요로 한다.¹⁴⁹⁾

첫째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천사들의 존재와 더불어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천사들의 명칭들도 믿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천사들 중의 하나인 가브리엘이란 이름을 가진 천사다. 가브리엘은 예언자에게 꾸란을 전달한 천사다.

세 번째는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천사들의 속성들을 믿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언자께서 본 가브리엘 천사의 날개들은 6백 개로 지평선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148) Salam, p. 104.

149) CF., Ibn Uthaimin, *Sharh Usul al-Iman*, pp. 27-28. 'CF'는 단지 이 견해가 이븐 우사이민의 견해란 뜻으로 토론이나 설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정말로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가리킨다. 역시 같은 하디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천사는 인간의 형상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번째는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대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믿는 것이다. 꾸란에 의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어떤 특정한 천사들에게는 특정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wahi)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스라펠 천사는 심판의 날 나팔을 불어 피조물들의 부활을 알린다. 이것은 부활의 날 생명의 소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미카엘 천사는 비와 식물을 관장한다. 즉 그는 지상에 생명을 담당한다. 이 세 천사들과의 관계를 생명의 부활로 이븐 우사이민은 묘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언자로 하여금 기도와 함께 늦은 밤 예배로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늦은 밤 예배를 할 때 다음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셨다. “하나님 이시여, 가브리엘과 미카엘과 이스라펠 천사들의 주님이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여, 불가시계와 가시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여, 진리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인간들을 심판하실 분이시여, 저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¹⁵⁰⁾

다섯 번째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사랑해야 한다. 더욱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150) Muhammad ibn Uthaimin, *Majmuat Fatawa wa Rasail Fadhilat al-Shaikh Muhammad ibn Salih al-Uthaimin* (Riyadh: Dar al-Watn, 1413 A.H.), vol. 3, pp. 160-161.

타우히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충실할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신앙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간구한다. 천사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신앙인들을 돕는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각 개인마다 두 명의 천사들이 항상 함께하면서 각 개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꾸란 절은 그 천사들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 두 명이 임명되어 우측과 좌측에 앉아 인간의 모든 행위를 관찰하고 있느니라(50:17)

18.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은 함께하고 있는 천사에 의하여 감시되고 기록되느니라(50:18)

천사들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많은 유익함을 안겨준다. 예를 들어, 천사들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인식하도록 하여 준다. 천사들 같은 피조물은 창조주의 위대함을 부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보호와 관심에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여 신앙인들을 보호하고, 모든 인간의 업적을 기록하고, 신앙인들에게 유익함을 안겨주도록 하셨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은 앞서 언급한 것 이상이다. 천사들은 진리와 정의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후원하고 도와주는 고상한 피조물이다. 인간이 선행을 하려는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순간부터, 옳은 것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순간부터 천사들은 그 인간을 후원하고 돕는다. 예언자 시절에도 천사들은 신앙인들을 후원하고 도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3. 하나님은 바드르 전투에서 너희가 소수인데도 승리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3:123)

124. 그리고 너희 동료들에게 말한 것을 상기하라 너의 주님께서 삼천 명의 천사들을 보내 너희가 승리하게 하였던 것이 너희에게 흡족치 않더뇨?(3:124)

125. 이렇듯 너희가 인내하고 정의에 산다면 적이 갑자기 너희를 공격하더라도 너의 주님께서 오천 명의 천사들을 보내 그들을 제압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라(3:125)

천사들은 신앙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3.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천사들도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고 너희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자비로운 분이시니라(33:43)

03) 성서들에 대한 믿음

성서들에 대한 믿음은 앞서 하디스에 언급된 세 번째 믿음의 영역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자비로서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을 행복으로 인도할 안내서로 내려주신 성

서들이다. 특히 꾸란은 마지막 계시다. 그리고 꾸란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전달 된 것이다. 이븐 우싸이민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서들에 대한 믿음은 다음 4가지 사항을 필요로 한다.¹⁵¹⁾

첫째는 이들 성서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임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별히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성서들을 믿는 것이다. 이 성서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quran)이 있고, 예언자 모세에게 계시된 타우라(taurah)가 있고, 예언자 예수에게 계시된 인질(injil)이 있고, 예언자 다윗에게 계시된 자부르(zabur)가 있다. 꾸란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도 수흐프(suhf: 책 또는 문서)를 내려 보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토라(torah), 복음서(gospel), 시편(psalms)이라 부르고 있는 성서들은, 일부 원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왜곡되어 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모세의 타우라를 믿는 것은 무슬림이 구약 오경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토라(torah)가 타우라(taurah)의 일부 원내용을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두 권은 다르다.

세 번째는 꾸란이나 그 전 성서들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모든 말씀이 담겨진 책들을 믿는 것이다. 예를 들어, 꾸란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만일 일점일획이라도 부정하면 하나님의 성서들 안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5...실로 그들을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며 성서의 일부만 믿

151) CF., Ibn Uthaimin, *Sharh Usul al-Iman*, pp. 32-33.

고 일부를 불신하는 자 그들을 위한 현세의 대가는 무엇이겠느냐? 실로 현세에서는 치욕을 맛볼 것이요 심판의 날에는 엄한 징벌을 받을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시니라(2:85)

네 번째는 폐기되지 않는 꾸란 내용과 일치된 행위를 해야 한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비록 꾸란의 명령이 담고 있는 지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전의 계시들은 마지막 계시인 꾸란에 의해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앞서 온 성서들의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 안내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꾸란과 순나에 다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8. 내가 그대에게 그 이전에 계시된 것을 추인하고 증거하는 성서를 계시했느니라(5:48)

본 절에 대한 평론에서 이븐 우싸이민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앞서 온 성서들에 대한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꾸란에서 승인하지 않는 것이라면 앞서 온 성서들의 통치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¹⁵²⁾

하나님께서 베푸는 가장 큰 축복들 중의 하나는 인간을 위해 계시들을 내린 것이다. 이 계시들은 인간을 창조된 목적으로 안내해 준다. 이것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형태로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이 부분에 대한 평론에서 이드리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

152) Ibn Uthaimin, *Sharh Usul al-Iman*, pp. 32-33.

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진정한 인간애를 성취할 수 없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정의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돕는다. 하나님께서는 선천적인 선(善)을 인간의 본성으로 하셨다. 그 본성으로 하여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셨다. 도덕적 감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위한 지혜도 주셨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증표들로 가득 찬 우주만물에 관한 자연의 책을 주셨다. 주님을 알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자세한 것을 주셨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예언자로 선택을 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다. 이 메시지들은 꾸란에 안내자로, 빛으로, 증표들로, 상기시켜 주는 것(zikr)으로 묘사되었다.¹⁵³⁾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계시들을 내려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천과 서로 다른 민족들이 처한 환경과 필요에 따른 그리고 서로 다른 계시를 내리셨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다. 이런 과정은 예언자 무함마드 시대부터 심판의 날까지 인류가 필요한 안내를 모두 담은 꾸란이 계시될 때까지 계속되어 왔다.

이전에 온 성서들과는 달리 꾸란은 부활의 날까지 모든 인류를 위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꾸란의 수정

153) Idris, pp. 18-19.

이나 왜곡이나 대체를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 내가 그 메시지를 계시했으니 내가 그것을 보호할 것이니라(15:9)

04)예언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믿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예언자(nabi)들과 사도(rasul)들을 믿는 것이다. 사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메시지를 전달 받고 그것을 인류에게 전파할 임무를 받은 인간이다. 첫 번째 사도는 노아였다.¹⁵⁴⁾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에게 사도를 보냈고 각 사도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동일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6.나는 각 공동체에서 사도를 택하여 각 민족에 보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피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저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들도 있었고 방황하게 한 자들도 있었느니라. 그러니 대지를 여행하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보라(16:36)

그리고 마지막 사도이자 마지막 예언자는 무함마드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무함마드는 너희 공동체의 어느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도이자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이니라. 실로 하나

154) 아담은 예언자였지 사도는 아니었다. 모든 사도는 예언자이나 예언자는 모두가 사도가 아니다. 예언자와 사도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자의 "Questions and Answers," Al-Bashir (Vol. 2, No, 1, May-June 1988), pp. 5-7.

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니라(33:40)

중요한 것은 모든 사도들과 예언자들도 모두 순수한 인간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들 모두 신성이나 신성과 연관된 속성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¹⁵⁵⁾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외에는 불가시계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가진 가장 높은 지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밖엔 없다. 이것이 바로 꾸란에 언급된 그들의 위상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가장 큰 삼대사건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중의 하나로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지적하셨다.¹⁵⁶⁾

예언자들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다음의 네 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¹⁵⁷⁾

첫째는 그들을 통해서 소개된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것이다. 만일 꾸란과 하디스에 등장한 예언자들과 사도들 중에 어떤 한 예언자라도 부정한다면 그것은 예언자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105. 노아의 백성들도 사도들을 부정했으니(26:105)

노아는 최초의 사도였다. 본 절은 한 명의 예언자를 부정하는 것은 사도 모두를 부정하는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155)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방황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예언자 예수의 지위를 신격화하였기 때문이다. 성경도 예수는 여러 행사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156) 꾸란(25:1, 72:19) 참조.

157) CF., Ibn Uthaimin, *Sharh Usul al-Iman*, pp. 36-38.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소개된 메시지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말씀하길,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을 불문하고 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거주자가 될 것입니다.”¹⁵⁸⁾

이 점이 바로 무슬림들과 그 이전 공동체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다. 무슬림들은 모든 예언자들을 믿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일부 예언자들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무함마드를 부정한다. 사실상 그들은 뒤이어 온 예언자들을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각 예언자는 분명한 증거와 증표들을 갖고 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단지 오만과 무지 또는 진리에 대한 적대감에서이다.

두 번째는 꾸란과 순나에 실명으로 언급된 예언자 모두를 믿는 것이다. 물론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예언자들로 믿어야 한다.¹⁵⁹⁾ 꾸란과 순나에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8. 나는 그대 이전에도 사도들을 보냈느니라. 그중에는 그대에게 언급한 자들이 있었고 언급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으며...(40:78)

세 번째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전달했다. 하나님의 메

158) 무슬림이 전함.

159) 어느 누구도 부처가 예언자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꾸란과 순나에 없기 때문이다.

시지들 전파함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상의 모범을 보였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 풍부했고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였다.¹⁶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도 자신들에게 비유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큰 죄에 빠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종교에 어떤 것도 더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빼지 않았다.¹⁶¹⁾

네 번째는 인류를 위한 안내자로 온 예언자들의 모범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4. 사도를 보냄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토록 함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느니라...(4:65)

예언자 무함마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5. 그들이 그대로 하여금 분쟁을 조정케 하고서 그대가 조정한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고 그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결코 믿는 자들이라 할 수 없느니라(4:65)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온 것은 인간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다. 그들이 인간을 위해 전해준 지식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영역이다. 불가시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내를 필요로 한다. 만일 오랫동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면 인간은 죽을 것이다. 단지 현세의 삶만을 잃게 된

160) Abdullah al-Muslih and Salah al-Wawi, *Ma La Yas'u al-Muslim Jahla* (Islamic Foundation of America, 1995), p. 59.

161) Ab역 -Rahman Abdul-Khaliq, *The General Prescripts of Belief in the Quran and Sunnah* (The Majlis of al-Haqq Publication Society, 1986), p. 18.

다. 그러나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안내를 거절한다면 내세의 영원한 삶을 잃게 된다.

05)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마지막 날이란 그 날 이후에는 새로운 날들이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천국의 사람들은 그들의 거처로 들어갈 것이요 지옥의 사람들은 지옥의 거처로 들어갈 것이다. 이 날은 부활의 날, 사건의 날, 현실의 날, 계산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도 부른다. 이 날은 모든 인간이 거쳐야 할 가장 위대한 날이다. 가장 중대하고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날 한 인간의 새로운 삶이 결정될 것이다. 그 날은 각 개인의 새로운 운명이 결정되는 첫 단계다. 새로운 이 첫 단계에서 영원한 축복의 운명 아니면 영원한 징벌의 운명으로 결정된다.¹⁶²⁾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은 꾸란과 예언자께서 그날의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관해 설명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무슬림이 반드시 알고 확실히 믿어야 할 부활, 심판, 보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에 관하여 꾸란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고 예언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이 날과 이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면 알수록 믿음도 더해질 것이다. 무슬림은 그날의 징조들과 부활의 날 벌어질 상황들을 알아야 한다.

하디스 수집가 무슬림은 그의 모음집 사히흐(sahih)에서 그

162) 내세의 존재에 대한 꾸란과 합리적 토론을 위해 Idris, pp. 11-16 참조.

날의 징조들, 부활의 날 벌어질 상황들을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실크보다 더 부드러운 바람을 보내는데 그 바람은 예멘 쪽에서 온다. 그 바람은 각 개인의 생명을 가져간다. 마음에 가장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생명은 다 가져간다. 그리고 나면 믿음이 전혀 없는 가장 나쁜 사람들만 지구의 종말을 맞게 된다.

종말의 징조들 중에는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고 그 때가서야 믿는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인간은 땅으로부터 부활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8.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 그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을 잃고 시들어지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제외이니라. 그 후 또 다른 나팔이 울려 퍼지니 보라 그때 저들은 서서 지켜보느니라(39:68)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4)가 지나면 두 번째 나팔이 울린다. 사(4)는 4시간인지, 혹은 4일인지, 또는 4년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때 사람들은 일어나 쳐다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1.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보라 저들은 무덤으로부터 나와 서둘러 주님께로 나가니라(36:51)

52. 저들은 말할 것이니라 오 슬프도다. 우리의 침상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이뇨? 이때 한 음성이 들려오니, 그것은 자비로운 분이 약속하시고 사도들이 그 진리를 말한 것이라(36:52)

내세에 대한 믿음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

본 우싸이민은 언급하고 있다.¹⁶³⁾ 첫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두 번째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 맨발에 할레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¹⁶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4. 두루마리 종이를 마는 것처럼 내가 하늘을 접어버릴 그날을 상기하라. 내가 첫 번째 창조를 했던 것처럼 나는 그것을 다시 창조할 것이니라.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수행되느니라(21:104)

부활 또는 재생이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현세에 있었던 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다. 이븐 우싸이민은 이것의 의미를 부연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재창조를 뜻한다면 현세에서 나쁜 짓을 했던 몸이 징벌을 피하고 새로이 창조된 몸이 징벌을 받아야 되는 모순을 낳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다는 것이다. 꾸란 원문과 이성의 판단에 근거하면 인간은 새로 창조된 상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육체가 재결합한다.¹⁶⁵⁾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이 분해되었다하더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으로 재창조하신다고 이븐 우싸이민은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라고 인간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없이 많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업적의 계산과 그 결과에 따른 보상과 징벌을 믿

163) Ibn Uthaimin, *Sharh Usul al-iman*, p. 40-41.

164) 예언자께서 말씀하셨고 알-부카리와 무슬림에 의해 기록되었다.

165) Ibn Uthaimin, *Majmu'*, vol. 3, p. 174.

는 것이다. 이 부분은 꾸란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 그들이 돌아갈 곳은 바로 내 곁이니(88:25)

26. 내가 그들을 불러 계산하고 문책할 것이니라(88:26)

47. 나는 심판의 날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이라 비록 겨자씨만한 무게일 지라도 나는 그것을 드러내 계산하리니 계산은 나만으로 충분하니라(21:47)

인간이 현세에서 행한 모든 업적은 부활의 날 저울에 놓여져 무게가 계산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 그날의 저울은 진리이니 선행으로 저울이 무거운 자가 변영하는 자들이니라(7:8)

9. 저울 눈금이 가벼운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 그것은 나의 말씀과 징표들을 거역했기 때문이라(7:9)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행한 것 이상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정의에 의한 것이므로 받아야 할 징벌 이상은 내리지 않으신다.

종말에 대한 믿음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다. 천국은 신앙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보상이요 영원한 안식처이며 지옥은 불신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징벌의 장소다. 천국과 지옥은 현재도 존재하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한다. 천국과 지옥은 일부 비무슬림과 이슬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부 무슬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과 예언자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셨고 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묘사하셨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상황을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천국에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자들은 가장 훌륭한 피조물로(98:7)

8. 그들을 위한 주님의 보상은 믿으로 강물이 흐르는 영원한 에덴의 천국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그분으로 기뻐하리니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보답이니라(98:8)

17. 그들의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의 눈을 기쁘게 할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느니라(32:17)

지옥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 ...실로 나는 그 불신자들을 위하여 연기와 화염이 에워싸는 불지옥을 준비하였노라. 저들이 물을 구하나 납과 같은 황동물이 저들의 얼굴에 부어질 것이니 음료수와 거주지가 얼마나 저주스러운가!(18:29)

64.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신자들을 저주하셨으며 저들을 위해 타오르는 불지옥을 준비하여 두셨노라(33:64)

65. 저들은 그 속에서 영원히 머무르게 되니라 실로 저들은 아무런 보호자나 구원자도 찾지 못하니라(33:65)

종말에 대한 믿음은 죽음 이후 그리고 부활의 날 이전에 일

어날 모든 것도 믿는 것이라고 이븐 타이미아는 말하고 있다.¹⁶⁶⁾ 무덤에서의 시험과 무덤에서의 기쁨 혹은 징벌에 대한 믿음의 한 부분이다. 무덤에서의 시험은 티르미즈가 기록한 정통한 하디스에 언급되어 있다. 이 하디스에 의하면 문카르(munkar)와 나키르(nakir)라는 두 천사가 시체에 가서 질문을 한다. “당신은 예언자 무함마드에 관하여 무엇라고 말했지요?” 다른 하디스 문헌에는 이 두 천사가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당신의 주님은 누구이지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이지요? 당신의 예언자는 누구이지요?”¹⁶⁷⁾

신앙인들이 배우고 믿어야 할 내세와 관련한 또 다른 세부 사항들이 있다. 제한된 지면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¹⁶⁸⁾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예언자의 물통(hawd)¹⁶⁹⁾, 다양한 종류의 중재(shafa'a),¹⁷⁰⁾ 행위의 기록장들 분배(sahaif al-a'mal), 지옥위의 다리 건너감,¹⁷¹⁾ 그리고 천국입성이다.

종말의 날과 내세에서 있을 가장 큰 사건들에 대한 지식과 믿음, 시간을 갖고 그 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대해 심중이 생각한 사람에게는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이러한 신앙인들은 서

166) Ibn Uthaimin, *Majmu'*, vol. 3, p. 169에서 인용.

167) 이에 관한 하디스 원문은 *al-Albani, Sahih al-Jami al-Saghir*, vol. 1, p. 186 and vol. 1, p. 344 참조.

168) 지면 때문에 참고문헌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쌀만(pp. 120-145)은 내세에 대한 여러 측면을 다루었다.

169) Abu Muhammad al-Hasan al-Barahari, *Explanation of the Creed* (Birmingham, UK: al-Hanif Publication, 1995), p. 36 참조.

170) Abu Muhammad al-Hasan al-Barahari, p. 37 참조.

171) Abu Muhammad al-Hasan al-Barahari, p. 38 참조.

둘러 선행을 행하며 그에 대한 보상이 싸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천국의 축복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다. 살아 있는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축복을 인식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추구하고 찾아다니며 선행을 실천할 것이다.

두 번째는 죄를 저지른 자, 비록 그가 겨자씨만한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징벌의 위협이 따른다. 현세에서 저지른 죄는 내세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에 더하여 죄를 저지른 자는 창조주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다.

세 번째는 심판의 날 있을 업적의 계산과 정의의 실현은 신앙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안겨준다고 이븐 우싸이민은 말하고 있다. 인간이 불의를 증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현세에서는 불의와 부정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앞서 현실적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불의와 부정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왜냐하면 현세는 심판을 하기 위한 마지막 장소가 아니며 계산을 하는 곳도 아니요 보상이나 징벌을 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세에서 그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나쁜 짓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세에서도 지켜볼 수 있는 것처럼 선행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부활의 날에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계산이 정당한 방법으로 종료될 것이다.¹⁷²⁾

172) Ibn Uthaimin, *Sharh Usul al-Iman*, p. 46.

06) 운명(al-qada)과 예정(al-qadar)에 대한 믿음

예언자께서 언급한 믿음의 다음 단계이자 마지막 영역은 운명과 예정을 믿는 것이다. 이드리스는 까다르(al-qadar: 예정)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까다르의 본래 의미는 측정, 양, 수량, 질량이란 뜻이다. 이 기본적인 의미에서 파생되어 여러 다른 뜻으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유깁디르(yuqaddir)는 무엇을 측정하다 혹은 무엇의 수량, 질, 지위 등을 결정하다는 뜻이다. 후자의 의미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¹⁷³⁾

무슬림은 까다르를 믿어야 한다. 정통 하디스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다. 까다르에 대한 믿음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븐 까이임은 말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¹⁷⁴⁾

첫 번째 요소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것이든 혹은 특수한 것이든, 창조 이전의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 예를 들어 비를 내리게 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 등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식으로 피조물들의 행위를 사전에 알고 계신다. 복종과 거역, 생계유지와 생명의 기한 등 모든 인간사에 관

173) Idris, p. 24.

174) Muhammad ibn al-Qayyim, *Shifa al-Alil fi Masa'il al-Qadha wa al-Qadar wa al-Hikma wa al-Talil* (Beirut: Dar al-Ma'rifah, n.d.), pp.29-65.

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9.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들이 그분께 있나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분은 땅위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떨어지는 나뭇잎도 대지의 어둠 속에 있는 곡식 한 알도 싱싱한 것과 마른 것도 그분께서 모르는 것이 없나니 그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느니라(6:59)

두 번째 요소는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정보를 보존된 기록장(al-Lauh al-Mahfoodh)에 기록하여 두셨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것은 모두 성서에 있으며 그런 일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니라(22:70)

22. 지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너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기록하여 두었느니라.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니라(57:72)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무언은 영원히 존재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 해당된다.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것 등 하나님의 사역도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총을 쏘아 죽이려는 의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그런 사건의 운명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원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방금 언급한 사례의 경우 하나님은 그로 하여 두려움을 갖도록 하여 총알이 표적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다.

까다르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3.…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 다음에 온 자들이 분명한 징표가 그들에게 도래한 후에 서로 싸우지 아니했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의견을 달리했으니 그들 가운데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있었노라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은 싸우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니라(2:253)

27. 실로 이것은 만인을 위한 메시지이라(81:27)

28.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그 진리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 그것을 따르도록 하라(81:28)

29. 그러나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아무 것도 바랄 수 없느니라(81:29)

이븐 우싸이민은 까다르 믿음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요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일위일체의 존재이시고 주인이시며 피조물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피

조물은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그것들 스스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킬 수 없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운영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알지 못한 채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이나 억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는 것,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것,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꾸란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 온 백성을 위한 교훈이 되도록 종에게 꾸란을 계시한 분이 시여 홀로 축복 받으소서(25:1)

2. 하늘과 땅의 왕국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자손을 두지도 않고 그분에게 비유될 동반자도 두지 아니 하셨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사 각 사물에 대하여 법도를 두셨느니라(25:2)

62.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39:62)

49. 실로 나는 운명과 예정을 두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니라(54:49)

이븐 우사이민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들도 하

나눔을 위해 창조된 것들이다. 비록 그 행위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들이다. 인간의 행위는 두 가지 요소, 즉 행위를 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행위를 하기 위한 완벽한 능력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당신 앞에 20kg의 돌이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당신에게, ‘이 돌을 들어 올리세요.’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을 들어 올리고 싶지 않아요.’라고 당신이 말을 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당신의 의지 부족으로 그 돌을 들어 올리지 않는다. 다시 내가 당신에게, ‘그 돌을 들어 올리세요.’라고 말하면, ‘예, 당신이 말한 대로 하지요.’라고 당신이 대답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은 그것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힘의 부족으로 들어 올리지 못한다. 결국 당신은 그렇게 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만일 내가 세 번째로, ‘이 돌을 들어 올리세요.’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그것을 당신 머리위로 들어 올렸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자 한 당신의 의지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¹⁷⁵⁾ 행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행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에서 오는 결과다. 그 사람의 의지와 능력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능력이 없는 자로 만들었다면 당신은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다른 일로 관심을 돌렸다면 당신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175) Ibn Uthaimin, Majmuat, vol. 3, p. 195.

께서 창조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 행위들은 확고한 의지와 완벽한 능력에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지와 능력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와 능력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의지와 능력은 무엇을 원하는 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주어 그 사람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다. 특별한 특성을 주어 그 사람을 창조한 그 분은 바로 그러한 특성들을 창조한 그분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¹⁷⁶⁾

‘까다’와 ‘까다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의문들과 오해들이 많다. 지면의 제약을 받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길지 않는 분량으로 이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 자으파르 쉐이크 이드리스의 글을 소개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유스러운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하기로 뜻을 두면서 창조 전에 인간이 어떻게 이 자유의지를 이용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다. 예를 들어, 어떤 예언자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한 까다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와는 반대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써 꾸란은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

176) Ibn Uthaimin, Majmuat, vol. 3, pp. 196-197.

고 있다. 그런 후 그는 꾸란 인간의 장(surat al-insan: 29-30)을 언급하고 있다. 그 까다리는 이어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 주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면 인간 모두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9. 그대의 주님이 원하셨다면 이 땅에 있는 인간 모두가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대는 강요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느뇨(10:9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 즉 믿음과 불신을 택하는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 말하라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렀으니 원하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 자 불신토록 두라... (18:29)

만일 인간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행위들이 아닌가.’ 이 반론은 혼돈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하기를 바란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와 수행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수행할 모든 종류의 도구들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유의지는 직접적인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 마시고, 먹고,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했을 뿐 그것들을 행하시지 않는다. 또 다른 반론

은 또 다른 혼돈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쁜 짓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요 좋아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인간에게 허용하는 것과 그의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과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¹⁷⁷⁾

가브리엘 천사와의 대화에서 예언자는, 행운이든 불행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운명(al-qadar)을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셨다. 나쁜 것(sharr)이란 인간과 관련된 것이지만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이븐 까이임은 언급하고 있다. 나쁜 것은 인간의 무지, 실수, 탈선, 범죄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허용되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나쁜 것이 하나님과 연계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선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역은 선(善)이지 악(惡)이 될 수 없다. 예언자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악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¹⁷⁸⁾ 그것은 바로 발생하고 있는 각 행위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것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지혜와 선이 있을 뿐이다.¹⁷⁹⁾ 이븐 우싸이민은 이 점을 설명해주는 한 예를 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1. 인간의 손이 저지른 부패가 육지와 바다에 만연했으나니

177) Idris, pp. 25-27.

178) Muslim.

179) Abdul Aziz al-Rashid, *al-Tanbihat al-Sanniya ala al-Aqi dah al-Wasitiyah* (Dar al-Rashid li-l-Nashr wa al-Tawzi'), p. 263.

저들이 행하였던 일부를 맛보게 하리라 그리하면 저들이 회개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30:41)

하나님은 본 절에서 이 세상에 나타난 부패(fasad)와 그것이 나타난 이유와 결과를 언급하셨다. 부패와 그것의 원인은 악(sharr)에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목표는 선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저지른 악을 맛보게 한 것은 회개를 통하여 선, 즉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그것(fasad), 즉 부패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목표가 있다. 그 목표와 지혜가 행위의 결과를 어떤 교훈이 되게 하여 좋은 결과로 유도하는 것이지 완전한 악으로만 만들지 않는다.¹⁸⁰⁾ 한편 완전한 악은 유익하지 않다.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피조물의 행위에서 오는 결과를 그 행위자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신다.¹⁸¹⁾

(O) 운명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서 얻는 열매들¹⁸²⁾

1.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운명에 순응할 때 모든 종류의 불신적 행위(shirk)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창조주는 단 한분으로 그분께서 모든 피조

180) Muhammad ibn Uthaimin, *Sharh al-Aqidah al-Wasitiyah* (al-Damam, Saudi Arabia: Dar ibn al-Jawzi, 1415 A.H.) , vol. 1, pp. 70-72, 191-192.

181) 사탄 피조물도 전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Umar al-Ashqar, "The Wisdom behind the Creation of Satan," *al-Bashir* (Vol. 2, No. 3, Sept.-Oct. 1988), pp. 13-22.

182) 알-함마드는 그의 저서 al-Qadar 31-44쪽에서 알-까다르에 믿음에서 오는 25가지의 유익함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서는 서로 문헌에서 인용한 몇 가지 사례만 언급할 것이다.

물을 주관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허락이 없으면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지식이 마음에 확고히 뿌리를 내릴 때 주님 외에는 경배 받을 대상자가 없고, 도움을 간구할 대상자가 없고, 의지할 대상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자 한분만을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운명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타우히드 루부비아(tawhid al-rububiyah)와 타우히드 울루히아(tawhid al-uluhiyah)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수행된다.

2. 하나님께 위탁하고 의존하게 된다. 이 우주에서 보는 원인과 결과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원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낳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절대로 자신의 행위나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완전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 원하는 어떤 목적으로 안내하는 믿음을 수용하고 원하는 그 목적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¹⁸³⁾

3. 운명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거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게 된다고 이븐 우싸이민은 언급하고 있다. 자신이 바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그렇게 되도록 하였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두어 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도 믿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자만을 버리고 운명을 믿는 자는 그러한 축복을 안겨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¹⁸⁴⁾

183) CF., Ibn Uthaimin, *Sharh Usul al-Iman*, p. 58.

4. 운명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마음의 평온과 평안을 안겨준다. 운명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는 지혜와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어떤 재물을 잃어도 정신을 잃거나 실망을 하거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일은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한 일은 어떤 목적이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 지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너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라.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니라(57:22)

23. 이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에 관하여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푼 은혜에 관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자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57:23)

5. 운명에 대한 믿음은 힘과 용기를 준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도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죽음의 시간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용할 양식을

184) CF., Ibn Uthaimin, *Sharh Usul al-Iman*, p. 58.

할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양식과 생활비 때문에 누구를 두려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02) 결론

본 장은 무슬림들이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영역을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무슬림 각 개인은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믿음의 요소들에 대한 지식이 더해 가면 더해갈 수록 믿음은 더욱 돈독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위대하여 질 것이다.

저자는 우마르 아스까르가 쓴 8권으로 된 시리즈를 추천하고자 한다. 이 책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천사들에 대한 믿음 등 여러 부분의 믿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소재 국제 이슬람출판사가 발행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밖에 빌랄 필립스와 무함마드 지발리의 책들도 새로운 무슬림에게 유익한 믿음의 여러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제5장 | 무슬림의 신앙의례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이슬람은 다섯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분만을 숭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내고, 하나님의 집으로 순례를 가고, 라마단 달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¹⁸⁵⁾ 이처럼 예언자는 이슬람을 집을 지탱하는 기둥에 비유하셨다. 그 집을 지탱하는 있는 초석 혹은 기둥은 다섯 개다.

이 다섯 가지 기둥을 이슬람의 오주 또는 오행(arkan al-islam khamsa)이라 부른다. 첫 번째 기둥은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믿음의 선서(shahada)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는 다룰 것이다.

각 기둥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각 행위는 외적 혹은 육체적 의식과 내적 혹은 정신적 의식을 갖고 있다. 숭배의 의식행위가 하나님에게 수락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학자들은 강조한다. 첫째, 의식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침서에 따라야 하고, 둘째, 의식행위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0.…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185) al-Bukhari and Muslim.

주님을 경배할 때에는 어느 무엇과도 비유하지 말라 하셨느니라(18:110)

본 절에 관한 비평에서 이븐 까이임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수락하는 의식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 의식행위는 예언자의 순나에 따라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이 없이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예언자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다. 숭배하는 대상을 알지 못하면 그분만을 위한 의식행위가 쉽지 않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이 행하는 의식은 수락되지 않는다. 바른 지식만이 진실과 순수성으로 안내하고 지식만이 예언자의 길로 안내한다.¹⁸⁶⁾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마음의 순수성을 물으신다. 마음의 순수성은 의식행위에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의 순수성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죽음과 생명을 주셨다. 누가 가장 많은 일을 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 주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홀로 축복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에 힘을 미치는 분이십니다(67:1)

2. 죽음과 생명을 두시어 그것으로 인간이 선을 행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당신께서는 가장 강하시고 가장 관대하신 분이십니다(67:2)

186) Ali al-Salihi, *Al-Dhaw al-Munir ala al-Tafsir* (Riyadh: Muassat al-Nur, (n.d.), vol. 4, p. 173.

본 장에 대한 비평에서 푸다일 이븐 이야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장 훌륭한 일이란 행위가 가장 바르고 마음이 가장 순수한 것을 의미한다. 행위는 바르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않는 일은 수락되지 않고, 행위는 바르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일도 수락되지 않는다.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행위가 하나 된 일이라야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다.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순나와 일치된 행위이어야 순수한 것이다.¹⁸⁷⁾

이 의식행위들이 숭배의 행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행위들이 자신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예를 들어 의식행위가 행위와 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예배를 할 필요가 없다. 앞서 소개된 하디스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슬람은 다섯 개의 기둥으로 세워졌다고 했다. 이 다섯 기둥이 이슬람의 기본이다. 이 기본은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원칙에 근거한 일생의 삶을 돕는 기반을 구축한다.¹⁸⁸⁾

01-예배

01) 예배의 의미

예배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무척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꾸란에서

187) Abdul Rahman ibn Rajab, *Jami al-Ulum wa al-Hikm* (Beirut: Muassasat al-Risalah, 1991), vol. 1, p. 72.

188) 이슬람의 각 기둥이 갖고 있는 정신적 유익함에 관해서는 본서 저자의 책 *purification of the Soul* 참조.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는 단순한 몸동작이 아니고 예배수행(iqmat al-salah)이다. 그래서 이슬람의 두 번째 기둥에는 단순히 예배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과 예언자께서는 예배수행(iqmat al-salah)이라 불렀다.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예배를 하기만 하면 두 번째 기둥을 완성한 것이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적다. 이것은 하지(hajj), 즉 성지순례에 관한 우마르의 전언과 유사하다. “하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으나 하지를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¹⁸⁹⁾

'예배수행'(iqamat al-salah)과 '예배들임'(ada'u al-salah) 사이의 차이점을 다우시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배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르고 진실한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진실한 예배는 마음과 영혼의 예배이며, 겸허의 예배이며,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자의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¹⁹⁰⁾

예배수행은, 다우시리가 예시했던 것처럼, 정신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배수행에 관한 학자들 사이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만이 예배들임과 예배수행 둘 사이의 차이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저명한 꾸란 평론가 이븐 자리르

189) CF., Al-Raghib al-Isfahani, *Mu'jam Mufradat Alfadh al-Quran* (Beirut: Dar al-Fikr, n.d.), p. 433.

190) Abdul Rahman al-Dawsiri, *Safwat al-Athar wa al-Mafahim min Tafsir al-Quran al-Azim* (Kuwait: Dar al-Arqam, 1981), vol. 2, p. 8.

타바리는 ‘예배를 수행하시오.’라는 꾸란 절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예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수행하시오.” 이것을 이븐 압바스가 자세히 설명하였다. “예배수행이란 정확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정확하게 엎드리고, 꾸란을 암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¹⁹¹⁾ 까타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배수행이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고, 예배를 위해 몸을 씻고, 허리 구부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¹⁹²⁾

예배수행이란 일반적으로 꾸란과 순나에 묘사된 것처럼 바른 자세로 예배를 수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예배의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예배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 예배를 위한 청결상태에 있어야 하고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남자의 경우는, 가능하다면, 예배당(masjid)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해야 한다. 원칙과 규범에 따라 예배를 해야 하고, 육체적 행위는 헌신적이고, 복종하고, 겸허하고, 조용한 자세이어야 한다. 예언자께서 보여준 모범대로 예배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들이 예배수행의 요소들이요 이슬람의 전반적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모든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가볍게 보거나 대수롭지 않게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바른 의도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예언자의 순나에 근

191) Muhammad ibn Jarir al-Tabari, *Jami al-Bayan on Tawil Ayi al-Quran* (Beirut: Dar al-Fikr, 1988), vol. 1, 104.

192) Ismail ibn Kathir, *Tafsir al-Quran al-Azim* (Kuwait: Dar al-Arqam, 1985), vol. 104.

거하여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예배를 수행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만 예배를 하는 무슬림이 있을 수 있다. 이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무슬림은 예배를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작을 수가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예배를 마쳤을 때 그 예배가 그를 위해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10분의1, 9분의1, 8분의1, 7분의1, 6분의1, 5분의1, 4분의1, 3분의1, 2분의1이 될 수도 있습니다.”¹⁹³⁾

여기서 예배수행이 갖는 의미가 강조된 것은 예배가 이슬람의 기둥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기둥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아니고 육체적 움직임만도 아니고, 육체적 움직임이 없는 마음속의 예배만도 아니고, 편리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아니다. 이슬람의 예배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하고 가장 바른 자세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나다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배는 육체적 움직임에 대한 이름도 아니고, 죽은 나무로 행하는 의식도 아니고, 징집된 혹은 자진해서 입대한 군인들의 어떤 군사 퍼레이드도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세 요소, 즉 육체적, 이성적, 정신적인 요소가 함께 하여 이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일어서는 움직임(qiyam), 허리 구부리기(ruku'), 몸 엎드리기(sujud), 혀로의 꾸란암기(tilawah), 마음으로의 명상과 회상(zikr), 두려움(khawf), 마음으로의 회개(tawbah)다.¹⁹⁴⁾

193) Abu Dawud and Ahmad.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 (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vol. 1, p. 335.

194) Abul Hasan Ali Nadawi, *The Four Pillars of Islam* (Lucknow, India: Academy of Islamic Research and Publications, 1976), pp. 22-23.

예언자께서는 믿음 선서 후의 첫 번째 기둥이라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슬람에서 예배의 중요성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예배는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의무였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에게 가장 축복받는 행위가 무엇이나고 묻자 가장 축복받은 행위는 예배라고 예언자께서 대답하셨다. 그 사람은 묻고 또 물었다. 예언자께서는 세 번이나 똑 같은 대답을 하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입니다.”¹⁹⁵⁾

예배의 중요성은 예언자의 여러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활의 날 제일 먼저 계산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건전하면 그 밖의 모든 일이 건전하고 예배가 나쁘면 그 밖의 모든 것이 나쁘게 됩니다.”¹⁹⁶⁾

예배의 중요성에 있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에의 진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발전과 향상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언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가 건전했다면 나머지 모든 일이 건전하게 되고 예배가 건전하지 않고 바르지 못했다면 나머지 모든

195) Ahmad and ibn Hibban. 알-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좋은 것 (hasan)이다. Muhammad Nasir al-Din al-Albani, *Sahih al-Targhib wa al-Tarhib* (Beirut: al-Maktab al-Islami, 1982), vol. 1, p. 150.

196) al-Tabarani.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확실한 것(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vol., 1, p. 503.

일이 바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바르게 예배하였다면 그 예배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희망으로 가득 찬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5. ...예배는 수치와 그릇된 행위를 예방하여 주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심할 바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29:45)

나다위는 예배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예배의 목적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정신적 능력을 배양하고, 믿음에로의 빛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주어 모든 종류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준다. 그리고 역경과 어려움에 처할 때 인내하도록 하여 주고, 인간의 허약함을 보완하여 주고, 모든 유혹에서 오는 부패로부터 보호하여 준다.”¹⁹⁷⁾

현세에서 수행하는 예배로 인하여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관용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하나님께서 다섯 번의 예배를 의무화하셨습니다. 몸을 닦고 정해진 시간에 허리를 구부리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¹⁹⁸⁾ 누구

197) Nadawi, p. 24.

198) 예배에 있어 쿠스후(khushu')는 마음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속의 이 느낌은 몸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은 조용해진다. 그의 시선은 아내로 향한다. 목소리는 마음속에 있는 느낌에 영향을 받는다. 보다

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¹⁹⁹⁾

예배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청결하게 하여 주는 한 형태다. 하루 다섯 번 예배를 하는 동안 인간은 주님을 다섯 번 만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시간은 실수와 죄지음을 막아준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후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이다. 잘못했던 일과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비는 시간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배는 잘못했던 것에 대한 속죄로 좋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여 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여러분 집 문 앞에 흐르는 개울에서 매일 다섯 번 씻는다면 몸에 때가 남아 있을까요? 사람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몸에 아무런 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그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다섯 번 수행하는 예배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가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²⁰⁰⁾ 다른 하디스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루 다섯 번의 예배는 금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있었던 큰 죄를 지워줍니다.”²⁰¹⁾

무슬림의 믿음과 관련한 예배의 중요성은 예언자의 말씀에

자세한 것은 Muhammad al-Shayi, *Al-Furuq al-Laughawiyah wa Atharaha fi Tafsir al-Quran al-Karim* (Riyadh: Maktabah al-Ubaikan, 1993), pp. 249-254.

199) Malik, Ahmad, Abu Dawud, al-Nisa'i and others.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vol. 1, p. 616.

200) al-Bukhari and Muslim.

201) Muslim.

잘 나타나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사람과 사신을 두는 것 (shirk) 그리고 불신(kufr) 사이의 차이점은 예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²⁰²⁾ 이 하디스에서 예언자께서는 쉬르크(shirk)와 쿠프르(kufr)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불신(kufr)의 종류로써 이슬람 공동체를 이탈한 무슬림을 가리킨다. 그 밖에도 예배를 하지 않는 무슬림은 이슬람 공동체를 벗어난 것으로 이것은 죄를 짓는 행위임을 가리키고 있다.

시디끼가 요약한 예배의 중요성은 앞서 토론한 것과 부합되고 있다.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예배는 종교의 영혼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는 영혼이 청결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수행하지 않는 무슬림은 영혼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의 정신을 빼앗긴다면 그와 함께 종교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건함을 정신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첫 번째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요, 종교의 가장 신성한 외적 표현이요 증거입니다.”²⁰³⁾ 예언자는 이슬람에서 예배의 위상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일의 머리는 이슬람이요 이슬람의 기둥은 예배이며 그것의 정상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입니다.”²⁰⁴⁾

202) Muslim.

203) Abdul Hamid Siddiqi, trans., *Sahih Muslim* (Beirut: Dar al-Arabia, n.d.), vol. 1, p. 206.

204) Ahmad, al-Tirmizi and others.

02) 예배규범에 관한 주요사항

예배에 관한 규범을 자세히 다룰 지면이 허락되지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언급해야 할 것 같다. 하루 다섯 번의 예배는 철이 들고 나이 든 모든 무슬림들의 의무다. 생리 중이거나 출혈이 있는 여성은 예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생리나 출혈이 끝난 직후에 있는 여성도 마찬가지다.

예배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 믿는 자들이여 예배드리러 일어났을 때 너희 얼굴과 두 손을 팔꿈치까지 씻을 것이며 너희의 젖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발목까지 두 다리를 씻을 것이니라...(5:6)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몸을 청결하게 하지 않고 수행하는 예배는 수락되지 않습니다.”²⁰⁵⁾

예를 들어, 성생활을 하였거나 몽정을 했을 경우, 생리나 출혈이 끝난 직후에는 온 몸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목욕을 하고 예배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를 구슬(gusl)이라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얼굴, 양 손을 씻고, 물 묻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양 발을 닦고 예배를 수행한다. 이 경우를 우두(wudu)라 일컫는다. 소변이나 대변을 보았거나, 방귀가 나왔거나, 깊은 잠에 빠졌거나, 정신을 잃었을 경우에는 매 예배 때마다 우두를 다시 해야 한다. 이것은 예배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하나님에 대

205) Muslim.

한 숭배는 인간의 육신 전체를 요구한다. 그러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두는 필수가 아니다.

위에 언급된 청결 외에도 무슬림의 옷이나 예배하는 자의 옷은 청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옷과 예배하는 자의 몸에는 소변이나 대변이나 피 등이 묻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변의 환경과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예배를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류이기 때문이다.

매일 매일의 예배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3....실로 믿는 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하도록 되어 있느니라(4:103)

예배시간은 가브리엘 천사와 예언자 간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자에게 나타나 말했다. ‘일어서 예배하십시오. 그때의 시간은 천정을 지났다. 그 시각에 예언자는 주 흐르(zuhr) 예배를 수행했다.

그 후 오후에 가브리엘이 나타나 말했다. ‘일어서 예배하십시오.’ 그때의 시간은 물체의 길이와 그 물체의 그림자가 일치하는 시간이었다. 그 시각에 예언자는 아스르(asr) 예배를 수행했다. 그 후 해가 지는 때에 가브리엘이 나타나 말했다. ‘일어서 예배하십시오.’ 그때의 시간은 태양이 완전히 사라진 때다. 그 시각에 예언자는 마그립(magrib) 예배를 수행했다. 그 후 밤이 되자 가브리엘이 나타나 말했다. ‘일어서 예배하십시오.’ 그때의 시간은 땅거미가 완전히 사라진 후였다. 그 시각에 예언자는 이샤(isah) 예배를 수행했다. 그런 후 새벽이 되었다.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 말

했다. ‘일어서 예배하십시오.’ 그때의 시간은 새벽빛이 보일 때였다. 그 시각에 예언자는 파즈르(fazr) 예배를 수행했다. 그 다음날 주흐르 시간에 가브리엘이 나타나 말했다. ‘일어서 예배하십시오.’ 그때의 시간은 물체의 길이와 그 물체의 그림자가 일치하는 시간이었다. 그 시각에 예언자는 주흐르(zuhr) 예배를 수행했다. 그 후 아스르 시간에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그때의 시간은 물체의 길이와 그 물체의 그림자가 일치하는 시간이었다. 그 후 마그립 시간에 가브리엘이 한 번 나타났다. 그 후 이샤 시간에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그때의 시간은 밤 길이의 2분의1, 혹은 3분의1이 지난 시간이었다. 그 시각에 예언자는 이샤 예배를 수행했다. 그 후 파즈르 시간에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그때의 시간은 꽤 밝은 시간이었다. 가브리엘이 말했다. ‘일어서 예배하십시오.’ 그 시각에 예언자는 파즈르(fazr) 예배를 수행했다. 그런 후 가브리엘이 말했다. ‘예배를 위한 시간은 이것 둘 사이에 있습니다.’”²⁰⁶⁾

불행하게도 종종 일부 무슬림들은 낮 동안의 바쁜 일들로 하루 모든 예배를 밤 시간까지 미루었다가 주흐르, 아스르, 마그립, 이샤예배를 모아 집에서 한꺼번에 예배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개종한 새로운 무슬림들은 하루 다섯 번의 예배가 하루 일과를 하면서 어렵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배할 용기가 약하다거나 일하는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예배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예배는 정

206)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Albani, Irwa #250. Ahmad, al-Nasa'i and al-Tirmizi.

해진 시간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근무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예배를 모아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는 허용된다.

주흐르 예배와 아스르 예배를 모아 이 두 예배 어느 시간에 수행할 수 있고, 마그립 예배와 이샤 예배를 모아 이 두 예배 어느 시간에 수행할 수 있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아서 하는 예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태만과 게으름 때문에 모아서 예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수행해야 한다.

올바른 예배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1) 예배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 (2) 청결해야 하고,
- (3) 입고 있는 옷과 예배장소가 청결해야 하고,
- (4) 살결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남자의 경우 배꼽과 무릎 사이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한 쪽 어깨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여성의 경우는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가려져 있어야 한다.
- (5) 얼굴을 카으바 방향으로 하거나 메카에 있는 하람성원쪽으로 지향해야 한다.
- (6) 예배를 위한 마음의 의도를 가져야 한다.

하루 다섯 번의 의무예배는 예배당에서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꾸란 여러 절에서 그리고 순나에서 합동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합동으로 보는 예배에는 집이나 시장에서 보는 예배보다 25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르침대로 몸을 씻고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가는 사람은 한 등급 상승되고 한가지의 죄가 삭제됩니다. 그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천사는 그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를 바라보아 주소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예배를 수행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²⁰⁷⁾

남자 무슬림의 경우 하루 다섯 번의 의무예배는 합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다. 합동예배의 효과는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새로운 무슬림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무슬림은 가능한 다섯 번의 의무예배는 여러 형제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좋다. 합동예배에서 새로운 무슬림은 이슬람에 관심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믿음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행위의 의식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무슬림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때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한다. 그 다음으로 다른 무슬림 형제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모범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새로운 무슬림은 비무슬림들과 어울리면서 이슬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성원에 참석하게 되면 다른 새로운 무슬림들과 쉽게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다.

207) al-Bukhari, Muslim and Abu Dawud.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슬림에게는 이슬람을 배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 성원에서는 이슬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경우 새로운 무슬림은 혼자라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되고 또 그를 안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헌신적인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은 새로운 여성 무슬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기회와 이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성들도 성원에 나가 합동예배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꾸란은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다.²⁰⁸⁾ 꾸란의 첫 장은 수라틀파티하(surat al-fatihah)다. 이 장은 예배수행의 핵심 부분으로 예배수행 시 매 단위(ruk'ah) 때마다 암기된다. 새로운 무슬림이 이 장을 암기하려면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장을 암기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음 하디스에 언급된 원칙을 응용한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꾸란에서 아무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만족시켜줄 몇 마디만 가르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스부하날라, 알함두릴라, 라 일라하 일랄라, 알라후 아크바르, 라 하울라 왈라 꾸와타 일라빌라힐 알리울 아 줍.”²⁰⁹⁾ 그러자 그가 말했다. “예언자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208)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는 꾸란 이외의 번역된 것은 꾸란이라 하지 않는다.

209) 스부하날라(하나님이시여,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알함두릴라(하나님이시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라 일라하 일랄라(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라 하울라 왈라 꾸와타 일라빌라힐 알리울 아 줍(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 힘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것입니다. 저를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언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알라훤마 이르하므니, 와르주끄니, 와아파니, 와흐디니.”²¹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좋은 것으로 그의 손을 가득 채웠습니다.”²¹¹⁾

저자는 아랍어에 능통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꾸란의 아랍어 문구나 꾸란 원문을 배우라고 새로운 무슬림들에게 충고한다. 꾸란의 원본이 외국어 발음으로 표기된 것을 읽다보면 정확하게 배울 수가 없다. 저자가 직접 겪었던 경험에 의하면 새로운 무슬림이 초기단계에서 예배수행에 필요한 꾸란을 정확하게 배워두지 않으면 다음에 수정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아랍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교수법에 따라 직접 아랍어의 발음을 배워야 한다.

03) 예배수행 방법과 절차²¹²⁾

예언자께서는 예배를 수행할 때 마음의 의도와 함께 메카에 있는 카으바를 향해 서서 양손을 양쪽 귀까지 올리는 동안에 ‘타크비르’(알라후 아크바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문구를

210) 알라훤마 이르하므니(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와르주끄니(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주소서), 와아파니(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와흐디니(저를 안내하여 주소서).

211) Abu Dawood and others.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 (sahih)이다.

212) Abdul Azim ibn Badawi, *The concise Presentation of the Fiqh of the Sunnah and the Noble Book* (Riyadh: International Islamic Publishing House, forthcoming)

암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셨다. 그런 다음 오른 손을 왼쪽 손 위에 놓은 상태로 가슴에 댄다. 그 상태에서 시선은 바닥을 향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다양한 문구를 암송한 후 예배 때 저주스러운 사탄이 개입하지 않게 하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런 후 다음 문구를 소리 내지 않고 암송한다. “비스밀라히 아르라흐만 아르라힘(자비를 베푸시고 자비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꾸란 첫 장 수라툴파티하 전체를 암송하고 마지막에 가서 소리 내어 약간 길게 ‘아멘’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꾸란의 다른 절을 암송한다. 때로는 절이 긴 장 때로는 절이 짧은 장을 암송한다.

예언자께서는 아침 파즈르 예배, 석양 마그립 예배, 밤 이샤 예배 첫 두 단위에서 각 단위(라카아) 때마다 소리 내어 수라툴파티하를 암송하셨으나 정오 주흐르 예배와 한낮 아스르 예배와 그리고 석양 마그립 예배와 밤 이샤 예배 첫 두 라카아 다음에는 소리 내어 암송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암기하셨다. 금요일 주므아 예배, 이둘피트르 명절과 이둘아드하 명절 예배, 기후제 예배, 일식이나 월식 예배 때는 소리 내어 암송한다.

예언자께서는 마지막 두 라카아 때의 예배시간의 길이를 첫 두 라카아 때의 절반 정도로 하셨는데, 때로는 꾸란 15절 암송 시간 정도로, 때로는 수라툴파티하를 암송하는 시간정도였다.

꾸란 암송이 끝나고 나면 한 숨을 돌린 후 역시 양손을 양쪽 귀까지 올리면서 타크비르 문구를 암송하고 절(싸즈다)을 한다. 양 손은 양 무릎 위에 손가락을 펼친 채 놓는다. 때로는 양 무릎을 붙잡는 것처럼 양 손은 양 무릎 위에 놓으셨다. 팔을 쪽 뻗쳐

팔과 손가락 사이를 멀리 두고, 마치 물이 등에 쏟아질 때 허리가 반듯이 펴지는 것처럼, 허리를 반듯이 세우셨다.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는 조용히 하면서, “스브하나 랍비알 아짐”(위대하신 주님이시여, 찬양과 찬미를 홀로 받으소서) 문구를 세 번 읊조리셨다. 엎드린 상태(싸즈다)에서는 하나님을 상기하는 문구나 기도문을 암기하셨다.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엎드린 상태에서는 꾸란 암송을 금지하셨다.

엎드려 있다가 허리를 펴면서,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당신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음성을 들어주소서) 문구를 암송한다. 똑바로 일어서는 동작에서 양 손을 올리기도 하셨다. 일어서는 동작에서는, “랍바나 와 라칼 합두”(주님이시여,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문구를 암송하셨으며 때로는 이 문구에 더 추가하기도 하셨다. 그런 후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면서 엎드리셨다. 이때 양 손은 양쪽 무릎 위에 놓으셨다.

그리고 두 손바닥을 펴서 거기에 의존하셨다. 손가락들을 모아 끼블라를 향하도록 하기도 하고, 두 손을 나란히 양쪽 어깨까지 혹은 양쪽 귀밑까지 갖다 대기도 하고, 코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나는 일곱 개의 뼈가 바닥에 닿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마, 코, 두 손, 두 무릎, 두 발의 끝을 가리키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것처럼 코가 바닥에 닿지 않았다면 예배를 수행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스부하나 랍비알아짐’이라는 문구를 세 번 암기하셨다. 이 위치에서 하나님을 상기하는 여러 문구와 다

양한 여러 기도문을 외우셨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촉구하셨다.

그런 후 타크비르 문구를 암송하면서 고개를 들으셨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바닥에 펼치고 그 위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다리의 발꿈치가 끼블라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 바닥에 꼳꼳이 세우셨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의 지위를 격상시켜 주시고, 저를 안내하여 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주소서.’ 그런 후 타크비르를 하고 처음처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타크비르와 함께 고개를 들면서 왼쪽 다리에 기대고 자세를 반듯이 하여 앉았다가 바닥에서 일어나셨다. 두 번째 라카아에서는 첫 번째 라카아에서 했던 것처럼 했는데 첫 번째 라카아에서보다 짧게 하셨다.

두 번째 마지막 라카아에서 ‘타샤후드’를 하기 위해 앉아 계셨다. 만일 예배가 두 라카아 예배일 때는 두 짜즈다 사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왼쪽 발위에 앉아 계셨다. 예배가 두 세 라카아와 네 라카아일 경우의 타샤후드도 그와 같았다. 타샤후드를 하기 위해 앉아 있는 동안 오른 손은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손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리고 왼쪽 손을 펼쳤다가 오른 손과 함께 주먹을 만든 후 오른 손의 집게손가락을 끼블라로 향하고 시선은 집게손가락 끝에 가 있도록 하셨다.

매 두 라카아마다 ‘타히야트’를²¹³⁾ 암기하셨는데 첫 번째 타

213) 타히야트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앗타히야트 릴라히, 왓쌀라와투 릴

샤후드에서는 자신을 위해²¹⁴⁾ 타히야트를 암기했고 두 번째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모든 무슬림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예배를 수행할 때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기도문을 외우셨다.

그런 다음 오른편으로,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 라흐마툴라’로 인사한 다음 왼편으로도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 라흐마툴라’로 인사하셨다. 때로는 ‘와 바라카투후’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하셨다.”

02-이슬람세

언어적 어원으로 본 자카트(zakah), 즉 이슬람은 청결, 축복, 발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 그러나 스스로를 청결케 한 자는 번성할 것이니라(87:14)

라히, 앗쌀라무 알라이카 아이유완 나비유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후. 앗쌀라무 알라이나 와 알라 이바딜라히 살리히나. 아슈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아브두후 와 라수물라.” (모든 감사와 예배와 순수한 인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언자여, 평안하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받으소서. 저희와 하나님의 올바른 종들에게도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숭배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는 선서하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임을 선서합니다.)

214) 본문은 다음과 같다. “알라훔마 살리 알라 무함마딘 와 알라 아알리 무함마드, 카마 살라이타 알라 이브라히마 와 알라 아알리 이브라히마, 인나카 하미둔 마지드. 알라훔마 바라칼 알라 무함마딘 와 알라 아알리 무함마드, 카마 바라크타 알라 이브라히마 와 알라 아알리 이브라히마, 인나카 하미둔 마지드.”(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었던 것처럼 무함마드와 무함마드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소서. 당신은 찬양과 찬미를 받아야 할 분이요 영광으로 가득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었던 것처럼 무함마드와 무함마드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소서. 당신은 찬양과 찬미를 받아야 할 분이요 영광으로 가득 한 분이십니다.)

꾸란과 하디스에 언급된 자카트 의미를 갖는 또 다른 단어는 사다까(sadaqah)가 있다. 이 단어는 진실(sidq)이란 어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두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시디끼 학자는 이 두 용어가 갖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두 용어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재물은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준다. 이렇게 사용되는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겸허한 선물과 같다. 이렇게 사용되는 재물처럼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²¹⁵⁾

이슬람법이 정의하고 있는 자카트는 매년 자신의 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수혜자들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자카트는 이슬람 오행 중에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카트는 예배와 함께 꾸란 82 곳에서 언급되고 있을 정도다. 자카트 납부가 내세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열쇠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꾸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1. 남자나 여자나 믿는 자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들이나라. 그들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금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215) Siddiqi, vol. 2, p. 465.

서는 강하시고 현명한 분이시니라(9:71)

자카트 납부는 인간을 청결하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재물도 청결하게 하여 준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시기를,

103. 무함마드여, 그들 재산 중에서 자선금을 취하라 그것으로 하여 너희는 그들을 정화하고 순결케 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실로 그대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평온의 근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9:103)

이 밖에도 자카트는 인색함에서 오는 정신적 병을 치료하고, 재물을 청결하게 하고, 악을 멀리하게 하여 준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자신의 재산에서 납부된 자카트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여 줍니다.”²¹⁶⁾

자카트는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몇 가지 역할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자카트는 공동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자카트는 무슬림 공동체에서 형제애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카트나 자선사업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자카트는 부유하지 않는 중산층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위한 자카트 내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몇 푼이라고 자카트를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거나

216) Ibn Khuzaima and al-Tabarani,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좋은 것(hasan)이다. Al-Albani, *Sahih al-Targhib wa al-Tarhib*, vol. 1, p. 312.

끓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으로 하여금 그들이 내는 자카트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자신들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자신의 재물에 대한 자카트 지불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자카트를 내지 않는 무슬림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무슬림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준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자신의 재산에서 자카트를 내지 않은 무슬림은 자신의 가축이 마실 수 없도록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²¹⁷⁾

자카트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나님과 예언자께서는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카트 미납자에게는 큰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예를 들어, 다음의 꾸란 절은 자신의 재물에 대한 자카트를 내지 않는 무슬림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0.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그들이 축적한 재물을 사용하는데 인색해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히려 그 인색함이 그들에게 더욱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이니라. 인색했던 것들이 심판의 날 그들의 목을 조아릴 것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유산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라(3:180)

예언자께서는 자신의 재물에 대한 자카트를 내지 않는 자가

217) Ibn Majah.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Muhammad Nasir al-Din al-Albani, *Silsilat al-Ahadith al-Sahihah* (Beirut: al-Maktab al-Islamic, 1979), vol. 1, hadith no. 106.

받게 될 징벌을 언급하셨다. 사히흐 부카리가 수집한 한 하디스에서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부활의 날 낙타들이 가장 건강한 상태로 주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낙타들에 대한 자카트를 내지 않았다면 낙타들은 주인의 발을 짓밟아버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양들이 가장 살찐 상태로 주인을 찾아갈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양들에 대한 자카트를 내지 않았다면 양들은 주인을 짓밟고 뿔로 주인을 받아버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부활의 날 피가 흐르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목에 메고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님, 저를 위해 중재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으니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부활의 날 피가 흐르고 있는 낙타 한 마리를 목에 메고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님, 저를 위해 중재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으니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자카트 미납자에게 경고하셨다. 사히흐 부카리가 수집한 하디스가 그 경고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자가 된 자가 자카트를 내지 않았을 경우 그는 부활의 날 그의 재산은 흰 얼룩을 한 독뱀이 되어 그의 목을 감싸고 그의 두 뺨을 물어뜯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재물이요. 내가 바로 당신의 재물이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언자는 위에 언급된 꾸란을 암송하셨다.

꾸란 다른 절에서도 자카트 미납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 믿는 자들이여, 많은 아흐바르와 루흐반들이 부정으로 사람들의 재물을 축적하며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들을 방해 하느니라. 또한 금과 은을 축적하여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라(9:34)

35. 지옥의 불에서 달구어질 그날 그들의 앞이마와 그들의 옆구리와 그들의 등 위에 그들이 얻은 것으로 낙인이 찍히며 이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만을 위해 간직했던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그 대가를 맛보라 하시니라(9:35)

*이슬람세 세율

자카트는 현금, 곡물, 과일, 가축, 광물자원 등 서로 다른 다양한 재물에 부과되는 하나님과 예언자께서 정한 세금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재산은 현금의 액수가 보편적이다. 일년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금액(nisab)에 달한 자신 소유의 현금에 대한 자카트는 년 2.5%다.

자카트 지불 전 자산 소유 최소한의 금액을 니삽(nisab)이라 부른다. 금과 은에 대한 니삽도 정해져 있다. 현대인들은 금이나 은보다는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고 있다. 그래서 니삽을 결정하는데 있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금에 대한 니삽도 금과

은의 가치에 기준을 둘 것인가? 만일 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유 금의 량이 20 미쓰갈(mithqal)에²¹⁸⁾ 달하거나 혹은 그와 동일한 현금을 소유할 경우 그에 대한 자카트 지불은 의무사항이다. 만일 일 년 동안 이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해에 2.5%의 자카트를 내야 한다.

자카트 수혜자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분배된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꾸란에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0. 실로 자선금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와 거기에 종사하는 자와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을 자와 노예와 채무자와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와 그리고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현명한 분이시니라(9:60)

일반적으로 대다수 이슬람 성원은 위원회와 특별 계좌를 두고 자카트를 수령하고 있다. 만일 무슬림이 자카트를 지불하겠다고 알려오면서 자카트를 내면 그 자카트는 반듯이 위에 언급된 수혜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슬림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03-라마단 달의 금식

라마단의 금식은 라마단 한 달 동안 새벽 파즈르 예배시간부터 석양 마그립 예배 전까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성생활을

218) 일 단위 미쓰갈은 약 85에서 93.6 그램에 해당된다.

하지 않는 것이다. 금식의 목적은 스스로를 자제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무함마드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에게도 금식을 명령하셨다. 라마단 달의 금식에 관한 꾸란 절에서 금식의 목적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3. 너희 선임자들에게 금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금식은 의무이니라. 인내심을 통하여 경건하여질 것이니라(2:183)

예언자께서 금식은 지옥불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금식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방패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을 지옥불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²¹⁹⁾ 그뿐만이 아니다. 금식은 부활의 날 중재가 되어준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금식과 꾸란은 부활의 날 중재가 되어 줄 것입니다. 금식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그가 낮 동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를 위해 중재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면 꾸란이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로 하여금 밤에 꾸란을 읽도록 하기 위해 잠을 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를 위해 중재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금식과 꾸란은 중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²²⁰⁾

금식은 자신의 진실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219) Ahmad, al-Nasai.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좋은 것(hasan)이다. al-Albani, *Sahih al-Jami'*, vol. 2, p. 720.

220) Ahmad.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좋은 것(hasan)이다. al-Albani, *Sahih al-Jami'*, vol. 2, p. 720.

그가 금식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몰래 금식을 깨뜨린다 해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준비하셨다. 이 보상은 다음의 하디스에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를 위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성생활도 하지 않느니라.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니 나는 금식하는 자에게 보상을 줄 것이니라. 그리고 그가 행하는 자선 하나하나마다 10배의 보상이 있게 할 것이니라.”²²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기대감을 갖고 금식을 하는 자가 있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하였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믿음과 희망을 갖고 라마단 달에 금식을 하는 자가 있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²²²⁾

이븐 까이얌은 금식이 주는 몇 가지 유익함과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금식은 욕망의 굴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고, 동물적 본능으로부터 천사들의 속성으로 변화시켜준다. 왜냐하면 금식은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의 속성을 비워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 욕망을 자제할 때 사탄이 잠입하지 못하게 되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근접해 간다. 일상적인 습관과 욕망을 버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사게 되어 하나님 가까이로 다가가게 된다. 금식하는 사람은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먹지 않고, 마

221) al-Bukhari.

222) al-Bukhari and Muslim.

시지 않고,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신앙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동물적 욕구와 욕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것의 진가를 상상하지 못한다.”²²³⁾

의도적으로 금식을 깨뜨리는 사람에게 징벌을 경고하는 예언자의 하디스가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나에게 와 나의 두 팔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가파른 산 밑으로 데려가서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올라갈 수 없다고 대답하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정상에서 소름끼치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이 소름끼치는 소리들은 어떤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옥불에서 거주하는 자들의 한탄소리입니다.’

그들은 또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금이 잘려 절름발이가 되고, 턱뼈들이 망가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금식을 깨뜨릴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고의적으로 금식을 깨뜨린 자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²²⁴⁾

금식은 건전하고, 건강하고, 여행자가 아닌 성인 무슬림들 모두의 의무다. 그러나 생리를 하는 여성과 출혈이 있는 무슬림 여성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 여행자와 환자의 경우는 금식을 할

223) Nadawi, *Four Pillars*, p. 173.

224) Ibn Hibban and ibn Khuzaima.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Albani, *Sahih al-Targhib wa al-Tarhib*, vol. 1, p. 420.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도 금식을 했다면 그것은 금식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그런 경우로 금식을 하지 안했다면 다음에 빠진 날만큼 금식을 보충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성 무슬림의 경우 생리중이거나 출혈이 있을 때는 금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식을 못한 날짜만큼 다음에 보충하면 된다.

금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금식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새벽 파즈르 예배 전에 그 날 금식을 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면 그것은 금식이 아닙니다.”²²⁵⁾

두 번째는 새벽 파즈르 예배 전부터 석양 마그립 예배 시작 전까지는 금식을 깨뜨리지 안해야 한다. 다음 여섯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는 금식이 무효가 된다.

(1) 과 (2)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다. 그러나 깜박 잊고 먹었거나 마셨을 경우는 제외다. 이때는 보충하거나 속죄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금식을 하는 자가 깜박 잊고 먹었거나 마셨다면 금식을 완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음료수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²²⁶⁾

(3) 의도적으로 구토를 한 경우다. 그러나 구역질이나 구토로 인한 경우에는 보충할 필요도 없고 속죄할 필요도 없다.

225) Abu Dawood, al-Tirmizi and al-Nasa'i,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al-Saghir* #6538.

226) Muslim.

(4) 와 (5) 의 경우는 생리중이거나 출혈이 있을 때의 금식이다. 태양이 지기 전 마지막 순간에 생리나 출혈이 있었다하더라도 금식을 깨뜨린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다.

(6) 성생활을 했을 경우다. 성생활을 한 사람은 다음 하디스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속죄를 해야 한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다. “예언자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와 말을 꺼냈다. ‘예언자님, 저는 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물으셨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그가 대답했다. ‘제가 그만 금식 중에 아내와 성생활을 해버렸습니다.’ 예언자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해방시켜줄 노예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가 대답하자 예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달 동안 계속해서 금식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가 대답하자 예언자께서 다시 물으셨다. ‘60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가 대답하자 예언자께서 조용히 계셨다. 그때 종려나무 열매 한 바구니가 예언자에게 배달되었다. 예언자께서 물으셨다. ‘질문했던 형제가 어디에 있지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종려나무 열매들을 가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시오.’ 그 남자가 대답했다. ‘예언자님, 저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나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메디나 산골에는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는 이빨이 보일 정도로 웃으시면서, ‘그러면 그것으로 당신 가족들을 먹이시오.’”

라마단 달에 이슬람에 입교한 새로운 무슬림도 금식을 시작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무함마드 빈 우싸이민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라마단 달에 비무슬림이 이슬람에 입교하였다면 남은 일수만큼 금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금식을 해야만 이슬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슬림 되기 전 라마단 달 지나간 일수에 대해서는 보충하지 않아도 됩니다.”²²⁷⁾

04-메카에 있는 하나님의 집 순례

하디스에 언급된 이슬람의 다음 기둥은 하나님의 집, 즉 카으바(ka'bah)에로의 순례, 즉 하지(hajj)다. 하지는 '...로 가는 것, ...로 향하는 것, 존중, 존경의 대상을 향한'이란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²²⁸⁾ 이슬람법 시각에서의 하지는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로 특정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위로서 하지의 목적수행을 위해 정해진 달에 메카로 떠나는 여행을 가리킨다.

하지 수행은 하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모든 무슬림의 의무사항이다. 이것은 꾸란과 순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하지는 의무사항 이상의 것은 아니다. 이슬람의 기둥들 중의 하나이다.

하지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보상은 대단하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하나님을 위해 순례하면서 호색이나 죄를 짓지 않고 귀가 한 자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날과 같습니다.”²²⁹⁾ 즉

227) Ali Abu Lawz, Answer, p. 24.

228) E. W. Lane, Arabic -English Lexicon (Cambridge, England: The Islamic Texts Society, 1984), vol. 1, p. 513.

죄가 없는 원선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소순례, 즉 우므라(umrah)에서 소순례 때까지의 모든 죄가 면죄되고 하나님께서 수락하는 올바른 하지에 대한 보상은 천국입니다.”²³⁰⁾

예언자께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어떤 일이 가장 축복받는 일이지요?” 예언자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질문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지요?” 예언자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이어졌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지요?” 예언자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수락하는 올바른 하지는지요.”²³¹⁾

여성들과 성전에 참여할 수 없는 남성들이 수행하는 하지는 성전과 다름이 없다. 다음은 여성도 성전에 참여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성들은 전투가 필요 없는 성전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 성전을 바로 하지와 우므라입니다.”²³²⁾

하지를 수행할 때는 여러 가지 유익함을 얻게 된다. 위에서 언급된 하디스가 전하는 내용 외에도 하지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한 장소에서 함께 순례를 수행한다. 그래서 각 국가의 무슬림들이 서로 만나는 기회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서로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기회다. 서로

229) al-Bukhari and Muslim.

230) 우므라는 소순례라고도 부른다. 하지보다 의식이 적으며 일년 중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231) al-Bukhari and Muslim.

232) Ahmad and ibn Majah.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 (sahih)이다. al-Albani, Irwa, vol. 4, p. 151.

다른 각양각색의 옷들을 벗고 동일한 옷차림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한 동일한 의식을 수행한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시디끼는 하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지는 이슬람의 다른 의무사항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완성이다. 하지는 예배의 질을 대변한다. 왜냐하면 순례자는 주님의 집 카으바 주변에서 예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는 주님을 위해 자카트의 상징인 재물을 사용하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정과 가족을 두고 하지를 향해 떠난다. 여행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금식과 이티카프(itikaf)²³³)에서 배우는 교훈이다. 하지는 물질적 문명의 안락함과 현세의 허례허식과 즐거움을 잊는 훈련을 쌓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돌바닥에서도 잠을 자야하고²³⁴), 카으바 주변도 돌아야 하고, 사과와 마르와 동산 사이를 오가야 하고, 바느질이 안 된 두 개의 천으로 몸을 가린 채 밤과 낮 하루를 지새워야 한다. 순례자는 기름이나 향수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다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슬림의 최종 목적을 위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전념한다.

하지를 위한 육체적 여행은 하나님에로의 정신적 여행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별을 하고 가장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

233) 이티카프는 라마단 달 말 성원에서 개인적 신앙생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34)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많은 순례자들이 그렇게 밤을 지새운다.

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 ‘주여, 제가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235)

하지는 일생동안 한 번만 하면 된다. 물론 하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7. …능력이 있는 백성에게는 순례를 의무로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이 만물의 절대자임을 보여 주실 것이니라(3:97)

가브리엘 천사가 묻는 질문에 대한 예언자의 대답에서 하지는 능력이 있는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능력을 충족시키는 조건에 대해 학자들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가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하나의 큰 숭배 행위다. 그렇지만 능력이 충족되어야 한다. 능력이라 함은 건강상태와 재정능력과 하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순례하는 자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동행자가 있어야 한다. 무슬림 여성이 장거리를 여행할 때 마흐람이라 불리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남녀로 구성된 믿을 만한 단체 여행일 경우에는 여성도 마흐람이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하지는 의무가 아니다. 능

235) Siddiqi, vol. 2, p. 577. 그가 언급한 마지막 문구는 하지를 수행하면서 부르는 하지 노래의 일부분이다.

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능력이 되었을 경우 바로 그 해에 순례를 떠나야 하는지 혹은 편리한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주제에서 다룰 것이다.

능력이 있는 자의 하지 지연에 대한 해석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즉 금년에 하지를 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데도 몇 년 후로 늦출 경우 죄가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견해차다. 지연이 가능한 지 아니면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하지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말리크 학파를 비롯하여 아부 하니파, 아흐마드 그리고 일부 샤파 학파들은 능력의 기회가 첫 번째 주어졌을 때 하지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죄가 된다고 하였다. 그에 대한 증거로 다음의 하디스를 제시하고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만일 뼈 하나가 부러지거나 질름발이가 되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다음 해에 하지를 수행해야 합니다.”²³⁶⁾ 본 하디스 내용을 추론하면 하지를 자신이 바라는 해에 하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음 해에 하지를 수행해야 한다고 예언자께서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하디스의 내용은 이렇다. “서둘러 메카로 하지를 가시오. 몸이 아플지 혹은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²³⁷⁾

236) Ahmad, Abu Dawood, al-Nasai and others.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vol. 2, p. 112.

237) Ahmad,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vol. 1, p. 569.

우마르 빈 알카탑이 했던 말이 전해오고 있다. “나는 그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하지를 수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인두세(jzya)를²³⁸⁾ 지불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²³⁹⁾

하지를 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지는 헤지라 6년에 의무화되었고 예언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하지를 앓고 있다가 10년에 하지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샤우카니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가 의무화 된 시기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슬람력 10년에 하지가 의무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므로 예언자께서 하지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는 견해다. 만일 이슬람력 10년 전에 하지가 의무화되었다면 예언자께서 하지를 지연시켰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다신교 신자들과 함께 하지 수행을 싫어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도 순례를 하였는데 나체로 카오바를 순례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카오바 주변에 모셨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청결하게 하자 예언자께서 하지를 수행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하지를 지연시킨 것이다. 이런 경우의 지연은 허용된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하지를 지연시키는 자에 대한 해석이다.”²⁴⁰⁾

238) 이슬람 국가에 사는 비무슬림들이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대신에 국가에 내는 세금.

239) Said ibn Mansur and al-Baihaqi. 알-하이타미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Haitami, al-Zawajir, vol. 1, p. 198.

하지의 의무조항을 거부하는 자는 불신자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하지 수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자는 죄를 짓고 있는 자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부활의 날에 있을 징벌을 자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 수행의 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메카로 모여 든다. 순례자들은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다.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서 특별한 의식을 행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력 열두 번째 하지달 9일에는 모두가 아라파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빌고 자비를 간구한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위한 여러 기구와 단체들이 있다. 특별히 새로운 무슬림이 되어 하지를 수행하려 온 순례자들을 위한 기구나 단체들도 있다. 저자는 모든 새로운 무슬림들이 학식이 풍부한 무슬림들과 하지를 함께 수행하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안내를 받아 축복 받은 하지가 되기를 기도한다.

*결론

본서에 언급된 것 외에도 하지 수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개된 자료들이 많이 있다. 비아랍 순례자들을 위한 영어로 된 자료

240) Muhammad ibn Ali al-Shawkani, *Nail al-Autar* (Riyadh: Dar Zamam, 1993), vol. 4, pp. 337-338. 이븐 우싸이민은 이슬람력 9년에 하지가 의무화 되었는데 여러 사절단들이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를 방문하자 하지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예언께서 하지를 지연시킨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Muhammad ibn Uthaimin, *Al-Sharh al-Mumti ala Zaad al-Mustaqni* (Riyadh: Muassasat Asam, 1996), vol. 7, pp. 17-18.

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자료들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추천하고 싶다.

*압둘아짐 빈 바다위가 저술한 『The Concise Presentation of the Fiqh of Sunnah and the Noble Book: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Islamic Publishing House in Riyadh』 책은 이슬람법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개술서다.

*아부 바크르 알-자자이르가 저술한 『Minhaj al-Muslim; published in two volumes by Darusalam in Riyadh』 책은 이슬람법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개술서다

*싸이이드 사비끄가 저술한 『Fiqh al-Sunnah』 책은 5권으로 분량이 많아 다소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무슬림들을 위한 총서내지는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 의식 수행에 관한 중요한 여러 저서들도 많이 출간되어 나왔다. 알바니가 저술한 『The Prophet's Prayer Described』 책은 영어로 저술된 상세한 예배서다. 마흐무드 무함마드가 저술한 『The Hajj from A to Z and The Salat from A to Z』 책도 역시 잘 알려진 저명한 책이다.

제6장 | 신앙인의 품행과 사회생활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8. 믿는 자들이여 이슬람으로 온전히 귀의하라...(2:208)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슬람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종교다. 삶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모든 영역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삶이란 보편적인 원칙을 벗어난 어떤 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슬람은 믿음과 수행을 넘어선 것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하나님 외에는 숭배의 대상이 없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품행, 예절, 윤리, 수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슬림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세 삼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품행은 믿음을 촉구하는 그의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가장된 것이며 얼마나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것이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새로운 무슬림은 이 포괄성을 이해하고 수행에 근거한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완벽하고 진실한 무슬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있을 지도 모를 무슬림이 되기 이전의 여러 가지 오점들로부터 해방되어 열심히 일하고 올바르게 수행

해야 한다. 변화시켜 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는 지금 이슬람에 대한 믿음의 초석을 놓는 첫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의 믿음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요건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되면 될수록 믿음도 돈독해지고 따라서 품행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삶에 대한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고 현실을 바로 보는 이해력이 생길 것이다. 본서의 저자는 새로운 무슬림들에게서 그러한 변화를 많이 목격했다. 예를 들어, 어떤 비무슬림들은 운동경기에 참여하여 크게 흥분을 한다. 모든 것이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 다른 팀이 부정하게 이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금지 못한다.

이 분노는 그들이 이 스포츠 활동에 얼마나 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무슬림들 중에는 완전히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스포츠는 승부에 관계없이 단지 흥미나 오락이 되어버린다. 그 이상은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무슬림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비해 그 스포츠는 긴 안목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점진적으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무슬림의 품행과 인격을 변화시킨다.

목적은 일상적인 모든 사회생활에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변화는 품행과 처신에 대한 지식이 요구

된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무슬림의 품행과 인격의 중요성에 관한 서론을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은 사회생활을 다룰 것이다.

- *자신과의 관계
- *부모와의 관계
- *남편과의 관계
- *자녀들과의 관계
- *이웃과의 관계
- *다른 무슬림들과의 관계
- *비무슬림들과의 관계
- *사회와의 관계
- *부와 재물과의 관계

01-이슬람은 고매한 인격과 훌륭한 품행을 추구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나는 도덕과 윤리를 완성하기 위해 왔습니다.”²⁴¹⁾ 본 하디스에서 예언자는 자신이 예언자로 오게 된 목적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무엇이 훌륭한 도덕이고, 어떤 것이 훌륭한 윤리이고 어떤 자세가 훌륭한 예절인지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단계적인 이슬람 교육을 통해서 고매한 인격과 훌륭한 품행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무슬림은 이 사실을 회피할 수 없다. 따

241) al-Hakim and others.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 (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al-Saghir* #2349.

라서 무슬림은 예언자의 품성을 따라야 한다.

훌륭한 인격의 중요성에 대한 예언자의 말씀은 무척 많으나 이 주제와 관련한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나는 훌륭한 인격을 수련하는 자에게 천국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집을 보장합니다.”²⁴²⁾ 본 하디스는 인격 수양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보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인격이란 태어난 천성이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다양한 추진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현세와 내세의 삶 등 그 밖의 것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갖게 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심, 즉 타끄와(taqwa)는 고매한 인격과 인품을 만들어줍니다.”²⁴³⁾ 타끄와는 실현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언자께서 위선자들을 묘사하면서, 행위와 품행에서 그들의 믿음이 약한지, 위선적인지, 혹은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말을 했다하면 거짓말하고, 믿으면 배반한다고 하였다.²⁴⁴⁾

무슬림의 모범적인 품행은 바로 예언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중에서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보내 남편으로서 모범을 보이게 하고, 아버지로서 모범을 보이게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범을 보이게 하고, 사회지도자로서 모범을 보

242) Abu Dawood,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좋은 것 것(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al-Saghir*, #1464.

243) Muslim.

244) al-Bukhari.

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게 하셨다.²⁴⁵⁾ 예언자께서는 꾸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아내 아이샤가 예언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분의 인격은 바로 꾸란이었습니다.”²⁴⁶⁾ 예언자께서는 진실했고, 믿음직스러웠고, 정직했다. 겸손했고, 인내심이 있었고, 조용했고, 정이 많으셨다. 거짓말 하지 않고, 남을 헐뜯지 않고, 타인을 조롱하지 않았다. 밝은 성품의 소유자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존경하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이요 품행이다.

이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인격과 품행은 역시 포괄적이다. 다시 말하면, 무슬림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상에 있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품행과 행위를 보여야 한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영역만 자세히 다룰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영역은 창조주에 대한 품행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모든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구현된다. 이 관계는 본 저서 전반에 걸쳐 언

245) 본 저자는 다른 지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보고 있다. 다음의 순나 답습에 대해 말이 많다. 그러나 그 순나는 하루 예배의 횟수나 라마단 달 금식의 날 수나 옷의 길이나 의상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예언자께서 고매한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은 예언자 중요한 임무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고 모두가 따르려고 노력해야 할 극히 중요한 부분일 뿐이다.” *Commentary on the Forty Hadith of al-Nawawi*.

246) Muslim.

급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마지막 두 영역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다. 무슬림은 생물이나 무생물을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모든 사물들에 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위한 각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탁한 것이다. 여러 하디스에서 동물들을 대하는 무슬림의 올바른 자세와 방법이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 허용한 가축을 도살할 때도 자선을 베풀라고 하셨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자선을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축을 도살할 때 칼날을 날카롭게 하여 고통을 줄여줘야 합니다.”²⁴⁷⁾ 이 사실은, 푸다일(Fudail bin Iyadh)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무슬림들의 관심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정당한 목적 없이 개 한 마리 혹은 돼지 한 마리까지도 피해를 주지 마시오. 그러므로 무슬림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²⁴⁸⁾

02-자신과의 관계

예언자께서 자신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갖고 있다고 하셨다.²⁴⁹⁾ 각 개인에게는 자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책임들이 있다.

247) Muslim.

248) Muhammad al-Dhahabi, *Siyar Alam al-Nubala* (Beirut: Muassah al-Rissalah, 1990), vol. 8, p. 427.

각 개인은 권리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자신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인간은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신의 주님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나 육신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요사이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요구할 수 없다. 이슬람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영혼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인간에게 스스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하셨다.

창조주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실현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보내주신 그 복음이 바로 이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복종이 하나님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거짓말도 하나님을 해치지 못한다. 꾸란 여러 절에서 이 복음은 바로 인간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이제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1. 진실로 나는 그대에게 진리로써 그 성서를 계시했나니 이로 하여 인류를 안내하라. 그 복음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이익이 될 것이나 방황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욕되게 할 것이

249) al-Bukhari and Muslim 본 하디스 내용은 살만이 전하고 있다.

니라. 그대는 그들을 위한 보호자가 아니니라(39:41, 6:104, 41:46 참조)

15. 정도로 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가는 것이며 방황하는 자는 스스로를 방황하게 할 뿐이라. 짐을 진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아니하며 내가 사도를 보낼 때까지는 결코 벌하지 않으니라(17:15)

18. ...스스로를 정화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일 뿐 최후의 여정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라(35:18)

본서에 기술된 내용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본서는 이 목적의 한 부분을 위한 것이다.

저자는 본장에서 이슬람이 인간의 생활전반을 안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다룰 것이다.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Abdullah bin 'Amru)가 전하고 있다. “당신의 몸은 당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 눈도 당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²⁵⁰⁾ 예언자께서는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는 개인적인 청결과 수행의 여러 영역에 관하여 설명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을 영혼은 자연스럽게 깨닫는다. 예언자께서는 이것들을 순나툼피트라(sunnat al-fitrah), 즉 인간의 순수한 본성과 일치하는 행위들로 표현하셨다. 이 순나툼피트라라는 다음 하디스에서 언급되고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순나툼피트라에는 다섯 가지가

250) al-Bukhari.

있습니다. 할례하기, 음모제거하기, 겨드랑 밑의 털 제거하기, 콧수염 다듬기 그리고 손톱 깎기다.”²⁵¹⁾

다른 하디스에서 말씀하길, “순나툴피트라에는 열 가지가 있습니다. 콧수염 다듬기, 턱수염 기르기, 칫솔사용, 콧속에 물 어넣어 씻어내기, 손톱 깎기, 손가락관절과 손가락마디 씻기, 겨드랑이 밑의 털 제거하기, 음모제거, 소변 및 용변 후 물로 씻기.” 그때 자카리아가 말했다. “무습압이 열 번째를 잊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물을 입안에 넣어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²⁵²⁾

이러한 행위들은 의무사항인가 아니면 권장사항인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견해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이 위생적인 측면에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청결하기를 바란다면 예언자께서 제시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위생과 청결문제 외에도 이슬람은 먹고 마시는 것까지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술을 금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0.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우상숭배와 점술은 사탄이 행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변성할 것이니라(5:90)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취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술입니다.”²⁵³⁾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밝히

251) al-Bukhari.

252) Muslim.

253) al-Bukhari and Muslim.

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3.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자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계를 넘지 않는 분량을 먹었을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느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니라(2:173)

3.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은 고기가 아닌 것과 목을 졸라 죽인 것과 때려서 잡은 것과 떨어져서 죽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 다른 야생이 일부를 먹어버린 나머지와 우상에 제물로 바쳤던 것과 화살에 점성을 걸고 잡은 것이거늘 이것들은 불결한 것이니라...(5:3)

145. 말하라 내가 말씀으로 계시 받은 것 가운데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하지 아니했노라. 그러나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거늘 진실로 그대의 주님께서 가장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니라(6:145)

일반적으로 무슬림은 특별한 방법으로 무슬림이 도살한 것, 혹은 유대교인들이 도살한 것, 혹은 기독교인들이 도살한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이 주제에 관해서는 토론할 필요 없이 서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충고한다. 무슬림들에 의해 도살된 할랄(halal) 혹은 자비하(zabiha)로 알려진 할랄 고기나 유대교인들에 의해 도살

된 코쉬르 고기나 혹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도살된 고기를 먹어야 한다.

03-부모와의 관계

하나님께서서는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으로 부모를 대하라고 명령하셨다. 무슬림은 모든 것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다음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이 부모님 외에 또 있을까? 꾸란 여러 곳에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숭배와 연계된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와 자세가 강조되고 있다. 다음의 꾸란 절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6. 하나님을 경배하되 다른 것과 비유하지 말라.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척과 고아와 불쌍한 사람들과 친척과 친척이 아닌 이웃과 주변의 동료와 방랑자와 너희의 오른 손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하나님은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사랑하시 아니 하시니라(4:36)

본 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와 사람과 사람간의 권리를 연계하고 계신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이 요구되고 있다.

-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 특히 부모
- *약자들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
- *이웃처럼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
- *여행자처럼 잠시 알게 된 사람들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 이슬람 초기의 일부 학자들은 이 영역에 동물도 포함시켰다.²⁵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1. 말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주님께서 금하신 것을 일러 주리라. 그분께 어떤 것도 비유하지 말며 부모에게 효도하라... (6:151)

23. 주님께서 명을 내리셨노라 그분 외에는 아무 것도 경배하지 말며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 중에 한 분 또는 두 사람 모두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을 멸시하거나 대꾸하지 말고 고운 말을 쓰라(17:23)

24. 그리고 부모에게 공손하고 날개를 낮추며 겸손하고 기도하라. 주여, 이 두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두 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하여 주셨습니다(17:24)

25.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롭고 그분에게 복종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니라(17:25)

83. 상기하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약속을 받았노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며 부모와 친인척과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겸손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라 했거늘 너희 중에 소수를 제외하고는 외면하며 등을 돌렸노라(2:83)

예언자께서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언급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순서에 따라 수행하는 예배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강조하셨다. 예언자께서 질문

254) Ibn Rajab, *Jami*, vol. 1, pp. 346-348.

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일인가요” 예언자께서 대답하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수행하는 것이지요.” 또 물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인가요?” 예언자께서 대답하길,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지요.” 또 물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인가요?” 예언자께서 대답하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지요.”²⁵⁵⁾

하나님께서서는 부모의 은덕, 특히 어머니의 잉태와 출산과 양육 등을 언급하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강조하셨다.

13. 루끄만이 그의 아들에게 훈계한 것을 상기하라 아들이 하나님께 비유하여 사신을 섬기지 말라 실로 사신을 섬기는 것은 큰 죄이니라(31:13)

14. 나는 모든 인간에게 부모를 존경하라 했거늘 어머니는 잉태하고 이 년간 젖을 먹이므로 말미암아 허약하여지니라 내게 감사하고 그리고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돌아올 곳은 바로 하나님뿐이니라(31:14)

15.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하라고 하였느니라. 어머니는 고통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고통으로 아이를 출산하느니라. 임신을 하고 젖을 땔 때까지의 양육 기간은 삼십 개월이니라. 그가 성년이 되고 나이 사십이 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느니라. 주여, 저와 그리고 저의 부모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에 저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가 당신이 기뻐하실 의로운 일을 하고 저의 후손도 의로운 자들이

255) al-Bukhari and Muslim.

되게 하여 주소서. 실로 저는 당신께 회개하며 당신께 순종하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46:15)

특히 어머니는 어린 시절 때 가장 가까워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신분이다. 한 사람이 예언자를 찾아와 질문을 했다. “저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언자께서 대답하길,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가 또 물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인가요?” 예언자께서 대답하길,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가 또 물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인가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가 또 물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인가요?” 예언자께서 대답하길, “당신의 아버지입니다.”²⁵⁶⁾

04-새로운 무슬림과 비무슬림 가족 및 친인척과의 관계

새로운 무슬림은 비무슬림 가족 구성원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비무슬림측에서 심심치 않게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로운 무슬림이 이겨내야 할 하나의 큰 시련이다. 그에게는 아직도 몇 년 동안 정을 나누었던 그들에 대한 우정과 사랑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환경에 있는 새로운 무슬림을 위한 본보기는 메카에서 있었던 초기 무슬림들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들은 더 많은 역경에 시달려야 했고 이슬람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와 학대를 받기까지 하였다. 결국에는 믿음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까지 했어야 했다.

256) Muslim.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인내와 기도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세의 어느 누구와의 관계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현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종교를 거래하려 하였던 사람들의 변명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수락되지 않는다. 만일 그러한 것이 수락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슬람 초기시절 학대를 받고 추방을 당한 무슬림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선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종교를 파괴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오늘날 대다수 새로운 무슬림들의 상황은 위에서 말한 이슬람 초기 무슬림들의 상황하고는 다르다. 새로운 무슬림은 자신들이 받아들인 이슬람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반응들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의 이슬람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무슬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의 제한된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비록 그들이 그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혈육관계의 친척들은 새로운 무슬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에 의하면 아부 바크

르의 딸 아스마가 예언자를 찾아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저의 어머니께서 저를 보기 위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다신교 신자입니다. 그런 어머니와 관계를 계속해야 되나요?” 이에 예언자께서 대답하길,
 “그래도. 어머니와 관계를 계속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 하나님께서 종교를 이유로 너희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친절하고 그들과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셨나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60:8)

하나님께서서는 이슬람을 믿지 않은 부모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²⁵⁷⁾

257) 많은 사람들이 이 절의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다위는 지적하면서 다음의 꾸란 절이 본 절의 내용을 폐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22.** 그대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거역하는 무리들을 설사 그들이 아버지나¹⁾ 자식이나 또는 형제들이나 천척들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좋아하지 않음을 보게 될 것이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새겨주셨고 그분의 영혼으로 보호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밀으로 썬물이 흐르는 천국에 들게 하실 것이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족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에게서 기뻐할 것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당이며 하나님의 당에 있는 자들이 성공할 것이니라.” “**23.** 믿는 자들아 너희의 아버지들과 형제들이 믿음 보다 불신을 택한다면 그들을 보호자로 삼지 말라. 그들을 보호자로 삼는 자는 누구든 우매한 자들이니라.” 비르르(al-birr: 의로운 행위), 썰라(al-sillah: 친족관계 유지), 이흐싼(al-ihsan: 타인을 향한 선행), 타합부브(al-tahabbub: 사랑), 타와두드(al-tawadud: 헌신) 어휘 중에서 앞의 이 세 단어가 갖는 의미는 권장사항이라고 알아다위는 말했다. 타고난 사랑과 타고난 헌신은 종교적 사랑과 종교적 헌신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다위의 견해다. 그래서 무슬림은 기독교인 아내를, 비록 그녀의 종교는 극히 싫어할지라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녀에 대한

15. 그러나 부모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송배케 하여 나를 불신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모를 따르지 말되 현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게로 향해 회개하는 자의 길을 따르라 그 후 너희는 내게로 귀의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행한 일들을 알려 줄 것이니라(31:15)

물론 각 개인은 자신의 믿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부모가 자식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자식은 자신의 믿음을 보호할 권리로써 부모와 결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과 자세가 필요하다.

무슬림은 감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²⁵⁸⁾ 그러므로 무슬림은 부모에게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취하고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상기하면서

사랑으로 남편은, 비록 그녀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아내에게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고 최상의 옷을 사주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녀에 대한 사랑과 그녀에 대한 선행과 그녀의 종교에 대한 미움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예를 들어, 무슬림끼리도 상대방의 행위는 미워도 그의 종교는 사랑하는 것과 같다. 비르르(al-birr)와, 정의와 친절함의 말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람, 즉 금지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 샤피(al-Shafi'i)의 견해가 인용되고 있다. 의로운 행위와 혈육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선행은 금지된 사랑이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븐 하자르는 알파트흐(al-fath)에서 말하고 있다. 꾸란 58장 22절은 참전자나 혹은 참전하지 않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꾸란 9장과 58장 22절 사이에 폐기된 것이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Mustafa ibn al-Adawi, *Fiqh-Ta'amul ma'a al-Walidain* (Riyadh: Dar Balansiyah, 2002), pp. 61-64.

258) Ahmad and al-Tirmizi.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으로 비무슬림 부모를 보살펴야 한다. 하지만 종교가 다른 부모에게 자신의 종교적 사랑을 베풀기란 쉽지 않다.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예언자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부모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좋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과 종교적 사랑이 다를 때는 종교적 사랑이 우선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 믿는 자들아 너희의 아버지들과 형제들이 믿음보다 불신을 택한다면 그들을 보호자로 삼지 말 것이니라. 그들을 보호자로 삼는 자는 누구든 우매한 자들이니라(9:23)

24. 말하라 너희 선조들과 너희 후손들과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친척들과 너희가 획득한 재산과 거래가 없을까 두려워하는 상품과 너희가 바라는 주거지들이 하나님과 사도와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욱 귀중하다고 한다면 기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9:24)²⁵⁹⁾

무슬림은 부모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인정하거나 동의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리로 안내하셨으므로 그도 당연히 부모와 혈육의 친척들을 진리로 안내해야 한다. 부모와 혈육의 친척들과 인간 본능에서 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부모의 잘못된 종교생활을 인정하지도 않고 동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259)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이슬람을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무슬림은 시간을 갖고 그들에게 이슬람에 관한 진실을 설명해야 한다.

한다. 예를 들어, 무슬림은 크리스마스를 경축하거나 이 행사에 동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구세주로 받드는 예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이슬람교의 일위일체 하나님을 뿌리 채 뒤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²⁶⁰⁾ 무슬림은 그러한 축제에 참석할 수가 없다. 또한 이 축제를 기념하는 축하 또는 인사 카드를 보내지 않고 기쁨을 나누기 위한 선물도 보내지 않는다.

그런 숭배와 축제를 벌이는 그들을 떠난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새로운 믿음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믿음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차분하게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새로운 종교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행사를 멀리하려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방법은 친척들을 방문하는 것이다. 특히 그들을 방문하여 자신이 새로운 믿음을 가진 무슬림이라는 것을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이슬람을 이해하고 이슬

260) 많은 비무슬림들은 종교에 관한 명예와 존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타격을 주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구 기독교인들이 휴가를 이용하여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힌두교 사원에 있는 힌두 신에게 공물을 바치기도 하고 경의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 새로운 무슬림들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종교에 대한 진실성과 순수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날 다른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무슬림은 자신의 종교에 순수하고 진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불신행위가 가미되어있는 행사나 이슬람법이 인정하는 않는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람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면 그 방문은 의심할 바 없이 환영이다. 예언자께서는 병중에 있는 삼촌 아부 딸립을 방문하셨다. 삼촌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다신교 신자였다.²⁶¹⁾ 죽음의 문턱에 있던 유대교 청년도 방문하셨다.²⁶²⁾ 예언자께서는 그들의 식사초대도 수락하셨다. 역시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압둘라(Abdullah ibn Ubayy ibn Salul)도 방문하셨다. 그는 위선자들로 뭉친 단체의 수장으로써 예언자의 적이였다.²⁶³⁾

방문 목적과 행사의 종류에 따라 무슬림의 참여 제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인이 된 친척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슬람 초기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무슬림은 가족에게 조의를 드리면서 장례식에 참여하였으나 특별한 장례의식, 특히 종교적 장례의식 때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유는 자신의 새로운 믿음과 모순되었기 때문이었다. 알리(Ali)의 아버지 아부 딸립이 비무슬림으로 사망했을 때 예언자께서는 알리에게 매장을 지시하였고 알리는 그렇게 하였다.²⁶⁴⁾ 예언자의 교우였던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슬람교 신자인 그의 아들이 이븐 압바스에게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이븐 압바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261) al-Bukhari and Muslim.

262) al-Bukhari.

263) Abu Dawood, al-Hamim and others. al-Bakri and al-Aruwi, Ibn al-Qayim의 주석 참조. *Ahkam Ahl al-Dhimmah*, vol. 1, pp. 430-431.

264) Abu Dawood, al-Nasa'i, Ahmad and others. 알-마크리와 알-아라 위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maqbul)이다. Ibn al-Qayim, vol. 1, pp.435-436.

“반드시 장례식에 참석하여 매장을 해야 합니다.”²⁶⁵⁾

비무슬림에게 조의를 드릴 때는 유족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고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비무슬림으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꾸란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3.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옥의 백성들로 밝혀진 후에는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예언자와 믿는 자들이 할 일이 아니니라(9:113)

05-배우자와의 관계 | 266)

결혼은 이슬람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결혼을 통한 가족은 사회구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이 건전하면 사회도 건전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는 인간을 위한 모범자이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8. 그대 이전에도 나는 사도들을 보냈으며 그들에게 배우자를 주어 자손들을 갖게 하였느니라...(13:38)

예언자께서는 결혼을 인생의 길이라고 표현하셨다. 예언자

265) Ibn al-Qayim, vol. 1, p.437. 이븐 아비 샤흐바의 보고에 의하면 움 무 알-하리스가 기독교 신자로 사망했을 때 예언자의 교우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언은 약한 것(daif)이다. Ibn al-Qayim, vol. 1, pp.432-433 참조. 이 주제에 대한 다른 문헌들은 Ibn al-Qayim, vol. 1, pp. 432-437 참조.

266)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이슬람법 내용은 저자의 “*The Fiqh of the Family, Marriage and Divorce*” (American Open University, 1997) 참조.

께서 말씀하길,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나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여러분보다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금식을 하다가 깨트리기도 하고, 한밤중에 예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리고 여자와 결혼도 합니다. 이러한 나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²⁶⁷⁾

꾸란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분명한 결속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은 꾸란 여러 곳에서 모든 인간의 시조가 같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 연계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 사람들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어 그 둘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를 많이 두도록 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권리를 요구하매 하나님을 공경하고 친인척간의 결속을 존중하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켜보시고 계시느니라(4:1)

남자와 여자를 묶는 시발점을 넘어 남녀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증표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성과 절대적 능력과 창조의 완벽함을 상기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를 느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7) al-Bukhari and Muslim.

31.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그분을 두려워 할 것이며 예배를 준수하되 사신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라(39:31)

189.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어 위안을 찾고 함께 살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7:189)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사랑과 자비와 상호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꾸란은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아내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여성들에게 친절 하라. 만일 너희가 그녀들을 싫어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행의 일부를 싫어함과 같은 것이니라(4:19)

이슬람의 결혼 목적에 관해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후 각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과 결혼 이후의 책임을 알게 되면 부부 관계가 더욱 결속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할 일, 즉 책임과 의무사항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슬람에서의 결혼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만도 아니고 동물적 본능만을 충족시키기 목적도 아니다. 그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 이슬람에서의 결혼 목적 몇 가지만 열거한다.²⁶⁸⁾ 대를 이

268) CF., Abdul Rahman Abdul Khaliq, *Al-Zawaj fi Dhil al-Islam*

어갈 자손을 두는 것, 허용된 성생활, 성숙한 인생 단계 진입, 상호협력에 의한 현세의 인생 만들기, 다양한 정신적 유익함과 육체적 유익함 성취, 도덕적 사회기반 구성, 도덕적·윤리적으로 건전한 다음 세대 육성, 사람들과 가족 간의 결속 등이 있다.

06-결혼 대상자

꾸란 여성의 장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남성 무슬림에게 결혼이 허용된 여성의 부류를 언급하셨다. 이 부류는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 무슬림, 특히 비무슬림 국가에서 살고 있는 새로운 무슬림에게 무척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비무슬림 여성과의 결혼문제는 본서 앞장에서 이미 다루었다.)

중요한 문제는 무슬림이 순결하지 하는 여성과의 결혼이다.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간음한 여자와의 결혼이 허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다.²⁶⁹⁾ 말리크 학파, 샤피 학파, 하나피 학파 출신의 학자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견해인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허용되지 않는 금기사항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꾸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 간통한 남자는 간통한 여자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여자 외에는 결혼할 수 없으며 간통한 여자는 간통한 남자 또는 하

(Kuwait: al-Dar al-Salafiyah, 1988), p. 21.

269) 무슬림 여성의 간음한 남자와의 결혼도 동시에 다룰 것이다.

나님을 믿지 아니한 남자 외에는 결혼할 수 없느니라. 이들은 믿는 자들과의 결혼이 금지 되느니라(24:3)

대다수 학자들은 이 꾸란 절에 대한 해석에서 간음한 여성과의 결혼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이지 금기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 하디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에게 질문을 했다. “제가 무척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만지는 자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²⁷⁰⁾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그녀와 이혼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다시 말했다. “저는 그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그렇다면 그녀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그녀와 성생활을 하시오.”

하지만 이슬람 초기시대의 대다수 학자들은 회개한 여성이 아니면 간음한 여자와의 결혼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아흐마드 (Ahmad ibn Hanbal)의 견해로 위에 언급된 꾸란 절에 근거한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한편 아흐마드는 인용된 하디스의 계보가 약한 것(daif)이라고 하였다. 일부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위 하디스의 계보가 정확한 것(sahih)이라고 가정한다해도 그 당시 그 여성이 그러한 성적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다. 남자들과의 관계가 자유스럽고 문란했을 뿐이지 성적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만일 그런 성적 불륜관계를 가진 아내를 둔 남자라면 예언자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여자와 이혼을 해야 한다. 이 하디스

270) 여기서 ‘손을 잡지 않는다.’ 는 직역은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미로 이해된다. 다른 하디스에 언급된 아랍어의 야드(yad: 손)는 성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만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가 주는 교훈은 성적 불륜관계를 가진 여성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다.

새로운 무슬림의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새로운 무슬림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자신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숭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문란할 경우 참 신앙인이 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무슬림이나 믿음이 약한 무슬림에게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무슬림이 유대교 여성이나 기독교 여성과 결혼했을 경우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대다수 학자들은 꾸란 5장 5절에 근거하여 그녀들과의 결혼을 허용하고 소수의 학자들은 그 결혼을 금지하고 또 다른 소수는 조건부로 허용을 하고 있다.²⁷¹⁾ 여기서는 세부적인 토론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무슬림은 자신의 특별한 입장을 숙고해야 한다.

새로운 무슬림은 유혹의 문에 노출되어는 안 된다. 유혹에

271) 이 결혼을 허용하는 측 몇 가지 조건을 내놓고 있다. (1)자신의 종교를 수행할 것 (2)무슬림들과 전쟁 중에 있지 않는 부류 출신의 여성이어야 할 것. 이븐 아부 샤흐바는 이븐 압바스의 말을 인용하여, 유대교 여성이나 기독교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국가가 이슬람 국가와 전쟁을 하고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른 학자들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무슬림 국가에서 살고 있는 비무슬림 여성들과 그렇지 않는 여성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 사이의 차이는 분명하다. 미국 법정은 아이의 보호권을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 아이의 종교는 무시한다. 이런 일은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3)그 여성은 아피파(afifah), 즉 순결해야 한다. 순결하지 않은, 즉 성적 불륜이 죄로 보지 않는 일부 유대교 여성이나 기독교 여성과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출되면 그의 새로운 종교를 이탈하게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비무슬림 여성이 그의 새로운 종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거나 믿음이 돈독한 무슬림처럼 그의 새로운 믿음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없이, 새로운 무슬림은 비무슬림 여성과의 결혼을 자제하는 것이 더 좋다.

한편 무슬림 여성 혹은 새로운 무슬림 여성의 비무슬림 남성과의 결혼에 대하여 알굼마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꾸란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무슬림 여성이 비무슬림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이것은 종교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결혼이 허용된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한 불신자다.²⁷²⁾ 보편적으로 남자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무슬림 여성이 비무슬림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결혼은 금지되어야 한다.”

07-남편과 아내의 권리

모든 기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배우자는 처음도 끝도 서로가 서로를 위한 무슬림으로서 이슬람의 형제애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형제애에 근거한 모든 권리는 배우자 간의 권리다. 무슬림의 예절, 사랑, 무슬림 간의 예절에 관한 책들이 있다. 이 모든 기본적인 원칙들은 기혼자에게 해당된다. 왜냐하면 상대방 역시 이슬람 형제애와 무슬

272) Abdullah al-Ghumari, *Rafu al-Shakk wa al-Irtiyab an Tahrir Nisa Ahl al-Kitab* (Tanjah, Morocco, 1989), p. 25.

림 공동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²⁷³⁾ 그러나 배우자는 말할 필요가 없이 다른 무슬림 형제들보다 배우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갖는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계약에 의해 결합된 관계이기 때문이다.²⁷⁴⁾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권리를 토론할 때는 냉담한 법적인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각자가 지켜야 할 그 이상의 것이다. 사랑과 도움과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관계이어야 한다. 각자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과 상대방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일 서로가 타협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물론 결혼에 의한 모든 권리를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양보를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배우자 어느 한쪽도 상대방의 권리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고 완벽한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다. 그러므로 부부는 각자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남편은 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예언자께서는 충고하셨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권한과 더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여러분 중에서 가

273) al-Bukhari and Muslim.

27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 어떻게 되돌려 받으려 하느냐? 너희는 이미 서로가 동거하여 생활하였고 그녀들은 너희로부터 엄숙한 맹세를 받지 않았더냐?” (4:21)

장 훌륭한 자는 가족(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가족(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²⁷⁵⁾ 역시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여성들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가장 많이 굽은 갈비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갈비뼈를 반듯하게 펴려고 하면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굽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성들을 잘 다루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²⁷⁶⁾

실질적으로 부부는 각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배우자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거칠게 대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동시에 이슬람법은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228....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나 남성이 여성보다 한 단계를 더 갖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이니라 (2:228)

남편에 대한 아내의 권리와 남편의 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편으로부터 적정한 혼임금(mahr)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5) al-Tirmizi and ibn Majah.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계보가 확실한 것(sahih)이다. Muhammad Nasir al-Din al-Albani, *Sahih al-Jami*, hadith #3315.

276) al-Bukhari.

4. 결혼할 여자에게 혼임금을 주라 만일 너희에게 그것의 얼마가 되 돌아온다면 기꺼이 수락해도 되느니라(4:4)

2)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생활비와 부양받을 권리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양해야 하느니라...(4:34)

부카리와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힌드(Hind bint Utbah)가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여, 저의 남편 아부 수피안이 너무 인색합니다. 생활비도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러니 남편 몰래 남편의 재산을 가져와도 됩니까?’ 그러자 예언자께서 대답하길,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충분히 가져가세요.’”

3) 아내는 친절하고 적절하게 대접 받을 권리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 ...여성들에게 친절 하라. 만일 너희가 그녀들을 싫어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행의 일부를 싫어함과 같은 것이니라(4:19)

4) 성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븐 힙반이 전한 하디스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스만(Uthman ibn Maz'un)의 아내가 예언자에게 남편이 여자를 싫어한다는 불평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낮에는 금식을 하고 밤에는 예배에만 몰두합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그녀의 남편에게 물으셨다. ‘여러분이 본 받아야 할 내가 아닌가요?’ 그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를 두고 맹세합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당신은 낮에는 금식을 하고 밤에는 예배에만 집중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하고, 잠도 자고, 금식도 하고, 금식을 깨뜨리기도 하시오.’”

5) 프라이버시를 가질 권리가 있다. 다음의 하디스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러분 중에 아내에게 다가갔을 때 문을 닫고, 이불로 가린 후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자께서 물으셨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앉아서 이불 밑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예,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조용히 있자 이번에는 여성들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다. “여성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여성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때 한 처녀가 발가락 걸음으로 조용히 걸어왔다. 예언자는 그녀를 볼 수 있었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예언자여, 남자들은 물론이지만 여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모두가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는 자들은 길거리에서 여자 사탄을 만난 남자 사탄이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후 그 여성을 버리고 떠난 자와 같습니다.”²⁷⁷⁾

6) 교육을 받을 권리와 종교를 배울 권리를 갖는다. 한편 남

277) Abu Dawood.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hadith #7037*.

편의 권리와 부인의 의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남편은 가장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양해야 하느니라...(4:34)

이것이 남자의 권리다. 그러나 남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은 무겁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가족은 가장을 따라야 의무를 갖는다. 이것은 남편의 첫 번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권위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책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아내는 남편이 잠자리를 원할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남편이 아내에게 잠자리로 부를 때 이를 거절하는 아내는 아침이 될 때까지 천사의 저주를 받습니다.”²⁷⁸⁾

(4) 아내는 남편의 허락 없이 어느 누구도 집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에서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남편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 줄 마음으로 남녀가 결혼을 한다면, 특히 결혼생활에서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이슬람 에티켓으로 대한다면, 인샤알라, 그들의 결합은 현세와 내세까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278) al-Bukhari.

08-이혼

결혼에 관한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슬람은 실천에 의한 생활의 종교다. 그래서 이슬람은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한다. 좋은 의도로 남녀가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각자의 인격과 성격차이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할 때가 있다. 행복하게 출발한 결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이슬람법은 불행한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이혼을 허락한다.²⁷⁹⁾ 이슬람법의 목표는 다정하게 함께 살도록 하거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혼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1. 아내와 이혼을 하고 법정기간을 채웠을 때 그녀들에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녀들을 자유롭게 하여 줄 것이니라...(2:231)

2. 그녀들이 정하여진 기간을 채웠을 때 정당히 재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정당히 헤어질 것이니라...(65:2)

이슬람법에서 이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이혼으로 번역되는 딸라끄(talq)가 있는데 이것은 남편이 말로 이혼을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딸라끄 후에는 아내가 인다(iddah) 단계로 들어간다. 이것은 법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으로 약 3개월 정도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간단하게 남편과 부인으로 재결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일 남편이 ‘딸라끄, 딸라끄, 딸라끄’하고 세 번을 선언했다면 기다리는 법정기간 ‘인다’

279) 불행하게도, 오늘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법이 제시하고 있는 임무와 책임이 소홀이 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혼이 하나의 주제가 되었다.

기간에 재결합할 수 없다. 이때는 일단 이혼이 성립된다. 두 번째는 쿨라(khula')라는 이혼 형태가 있는데 이는 아내가 결혼생활에 만족을 못할 경우 결혼생활을 끝내는 대가로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면서, 예를 들어 혼인금을 돌려준다든지,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 형태다. 세 번째 형태는 남편이 아내의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부인은 법정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은 분명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며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될 사항이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결혼한 모든 부부가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혼은 당사자들이 서로를 위해 선택해야 할 과제다.

09-자녀와의 관계

자식은 큰 선물인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자손은 하나의 시험에 불과하니라. 그러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천국의 보상이니라(64:15)

6. 믿는 자들이여, 인간과 돌들이 연료가 되어 타고 있는 불로부터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을 구하라. 그 위에 천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엄하게 집행하느니라(66:6)

본 절의 의미를 예언자께서 강조하고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

하길, “여러분 모두는 목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양들에 대한 보호와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가족에 대한 목동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내는 가정과 남편에 대한 목동입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남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인은 주인의 목동입니다. 그러므로 하인은 주인의 재산과 주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각자는 목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책임자입니다.”²⁸⁰⁾

어린이의 권리는 아버지의 좋은 아내 선택과정을 시작으로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다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가정과 자녀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첫 단계다. 이것을 넘어 가장 중요한 어린이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01)올바른 방법에 의한 의식주를 제공받는 권리
- 02)종교 교육을 받을 권리
- 03)사랑과 애정을 받을 권리
- 04)자식 간에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 05)부모의 모범을 볼 수 있는 권리

10-이웃과의 관계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6. 하나님을 경배하되 다른 것과 비유하지 말라. 또한 부모

280) al-Bukhari and Muslim.

에게 효도하고 친척과 고아와 불쌍한 사람들과 친척과 친척이 아닌 이웃과 주변의 동료와 방랑자와 너희의 오른 손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하나님은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사랑하시 아니 하시니라(4:36)

이에 더하여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는 좋은 말을 하든지 아니면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는 손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²⁸¹⁾

역시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가브리엘 천사는 마치 이웃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처럼 이웃에 관하여 나에게 계속 충고를 하였습니다.”²⁸²⁾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물었다. “예언자여,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이웃이 안전을 느끼지 못하는 자입니다.”²⁸³⁾

예언자께서 한 여성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예배에 충실하고 금식도 잘 지키며 자선도 많이 베푼 여성이었다. 그런데 입으로 이웃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곤 했었다. 그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예언자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그녀는 지금 지옥불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예배도 수행하지 않고 자선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은 여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예

281) al-Bukhari and Muslim.

282) al-Bukhari and Muslim.

283) al-Bukhari and Muslim.

언자께서 말씀하길, “그녀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²⁸⁴⁾

예언자께서는 이웃에 대한 예절을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셨다. 예언자께서 아부 다르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아부 다르르, 고깃국(mirqah)을 요리할 때는 물을 더 많이 부어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²⁸⁵⁾

이웃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아플 때 방문하고, 일반적인 복지에 관하여 협조하고 돕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웃의 권리에 대하여 아부 바크르 자자이르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도움을 청하는 이웃을 도와야 하고, 지원을 청하는 이웃을 지원해야 하고, 아픈 이웃이 있으면 방문해야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야 하고, 고생을 하는 이웃이 있으면 위로를 해야 하고, 궁핍한 이웃이 있으면 도와줘야 하고, 먼저 인사해야 하고, 친절하게 말해야 하고, 이웃 아이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현세와 내세를 위한 안내자가 되어주어야 하고, 실수를 덮어주고, 사생활을 염탐하지 않고, 집을 지을 때나 개량을 할 때 이웃의 벽과 달라붙게 하지 말고, 쓰레기나 폐기물을 이웃집 주변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와 예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284) Ahmad, ibn Majah and al-Hakim. 알리 하산 할라비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i Hasan Abdul Hamid, *Huquq al-Jar fi Sahih al-Sunnah wa al-Athar* (Amman, Jordan: al-Maktabah al-Islamiyah, 1993), p. 31. 본 하디스는 종종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두 번째 여성은 의무예배와 금식은 지켰으면 자선 행위는 적었다. 오늘날 의무예배는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의무예배를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 하디스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285) Muslim.

선행들입니다.”²⁸⁶⁾

학자들은 비무슬림 국가에서 이웃을 세 가지 형태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친척과 무슬림인 이웃이다. 이러한 이웃은 세 가지 형태의 권리를 갖는다. 두 번째는 친척이 아니나 무슬림인 이웃이다. 이러한 이웃은 두 가지 형태의 권리를 갖는다. 세 번째는 친척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닌 이웃이다. 이러한 이웃은 단지 이웃으로써의 권리만 갖는다.²⁸⁷⁾ 비록 이웃이 비무슬림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은 이웃으로써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상설 연구원 위원회가 비무슬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웃이 선물을 주는 경우 이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회신한 내용이다. “이웃이 비록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에게 잘 해야 된다. 그 이웃이 선물을 주면 그에 대하여 적절한 보답을 하면 된다. 예언자께서도 로마의 지도자가 보내온 선물을 받으셨다. 물론 그는 기독교인이었다.”²⁸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가 적의를 품고 있는 자들과의 사이에 우정을 갖게 하실 수도 있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가장 관대하시며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라(60:7)

8. 하나님께서 종교를 이유로 너희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친절하고

286) Abu Bakr al-Jajairi, *Minhaj al-Mulsim* (Beirut: Dar al-Fikr, 1992), p. 107.

287) Muhammad ibn Uthaimin, *Sharh Riyadh al-Salihin* (Riyadh: Dar al-Watn, 1995), vol. 5, p. 205.

288) Ali Abu Lawz, *Answers*, pp. 32-33.

그들과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셨나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60:8)

63. 그분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사랑을 불어 넣으셨노라 만일 너희가 지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도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울 수 없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사랑을 베푸셨노라 실로 그분께서는 강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라(8:63)

103. 모두가 하나님의 동아줄을 붙잡되 분열하지 말라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라 너희가 서로 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희의 마음들이 하나 되어 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며 만일 너희가 지옥의 문턱에 있다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계시를 밝히셨나니 너희는 광명으로 인도되리라(3:103)

이븐 우싸이민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슬람이 금지하고 있는 하람만 아니라면 믿지 않는 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해가 되지 않는다. 이웃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이슬람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슬람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⁸⁹⁾ 무슬림은 비무슬림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않는다. 쉐이크 빈바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웃에게 잘 하시오. 절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오. 만일 그가 가난하다면 자선을 베풀고, 만일 그가 부자라면 그에게 유익한 충고를 해주시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가 이슬람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289) Ali Abu Lawz, *Answers*, pp. 32.

이웃에 대한 권리는 큰 것입니다.”²⁹⁰⁾

여러 사회와 여러 문화에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상실되고 말았다. 그래서 만일 새로운 무슬림이나 혹은 오래된 무슬림들이 이슬람 정신의 한 부분인 이웃에 대한 정신을 회복시킨다면 대단히 훌륭한 업적이 될 것이다.

11-다른 무슬림과의 관계

오늘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튼튼한 유대관계가 무엇이고 질문한다면 혈육관계, 동일민족, 동일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한편 바탕이 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면 이러한 유대관계는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현실과 꾸란은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통해서 카인과 아벨 두 형제간의 혈육관계를 예로 들고 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살해하였고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의해 우물에 버려진 사건이 있었다. 모두가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들의 욕망과 목적과 세상물욕에 굴복하고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혈육관계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관계가 맺어진다면, 비록 그것이 혈육관계든 동일민족 사이에 맺어진 관계이든, 그 세속적인 목적이 달성

290) Ali Abu Lawz, *Answers*, pp. 30-31.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붕괴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는 가장 튼튼한 유대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을 가장 튼튼하게 결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에 바탕을 둔 이슬람의 유대관계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녹아서 생긴 유대관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3.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사랑을 불어 넣으셨느니라. 만일 너희가 지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도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사랑을 베푸셨노라 실로 그분께서는 강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니라(8:63)

103. 모두가 하나님의 동아줄을 붙잡되 분열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라 너희가 서로 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희의 마음들이 하나 되어 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며 만일 너희가 지옥의 문턱에 있다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계시를 밝히셨나니 너희는 광명으로 인도될 것이니라(3:103)

꾸란과 순나는 믿음에 의한 관계가 가장 튼튼한 유대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분만을 숭배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함께 어울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슬림들은 함께 일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과 자비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 꾸란과 하디스는 무슬림들에게 보편적인 사해동포애와 범세계적인 형제애와 자매애를 구축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²⁹¹⁾ 여기서도 몇 절만 소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1. 남자나 여자나 믿는 자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들이라 그들은 선을 권유하고 악을 금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현명한 분이시니라(9:71)

10. 믿는 자들은 한 형제이니라...(49:10)

29.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니라.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에 강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 정을 나누며 친절하게 대하느니라(48:29)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믿는 자와 믿는 자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여 주는 하나의 건물과 같습니다.”²⁹²⁾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믿는 자들을 비유하사 한 몸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

291) 이슬람의 형제애는 보편적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족 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종교문제로 사실상 혈육에 의한 유대 관계는 끝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45.** 노아가 주님을 불러 구원의 기도를 하였노라. 주여, 저의 아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당신의 약속은 진실이며 당신은 가장 의로우신 심판자 이십니다. **46.**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노아야, 실로 그는 너의 가족이 아니며 불의한 행동을 한 자이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¹⁾ 내가 무지한 자 가운데 하나가 될까하여 내가 너에게 충고하느니라.”(11:45-46) 그래서 비무슬림은 이 형제애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여 이 형제애에 합류하는 것은 대환영이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형제애는 민족이나 동족 혹은 국적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들의 종교 선택에 따라 이 형제애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후에 다루겠지만, 무슬림들은 이런 비무슬림들에 대한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다.

292) al-Bukkhari and Muslim.

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동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²⁹³⁾

이러한 이슬람의 형제애는 이론적이거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천적이다. 기본적인 분명한 체계를 갖고 있다. 꾸란과 순나가 강조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 권리와 의무는 모든 무슬림들이 의무적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실천해야 한다. 형제애를 구현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의무사항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무슬림의 무슬림에 대한 사랑은 의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무슬림들을 사랑해야 한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무슬림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²⁹⁴⁾

두 번째 의무사항은 상호협력, 상호지원, 상호원조다. 무슬림 형제가 박해나 학대를 받는다면 정신적으로 그리고 재물로 그를 도와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의 꾸란에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5. 너희는 하나님의 길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약자와 어린이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주여 이 어두운 압박의 마을로부터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였느니라(4:75)

세 번째 의무사항은 믿는 자들 간의 자비와 따뜻한 배려다.

293) Muslim.

294) al-Bukhari and Muslim.

이것은 서로에 대한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예언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무슬림들에게 설명하셨다. “믿는 자들을 비유하사 한 몸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동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²⁹⁵⁾

마지막 의무사항으로는 실천이다. 진정한 형제애란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다. 입으로만 외치는 형제애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이슬람의 아름다운 장점 중에 하나는 문제들을 이상적인 이론으로 두지 않는데 있다. 각 개인으로 하여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언자께서는 무슬림이 무슬림 형제로부터 기대하는 권리를 실천하도록 하는 행위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형제를 위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이다. 예언자께서 제시한 구체적 실천사항으로는 여섯 가지가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다른 무슬림을 위한 무슬림의 권리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무슬림을 만났을 때 인사하고, 초청을 받으면 수락하고, 자문이나 조언을 원하면 그렇게 하여주고, 재채기를 하면 ‘알함두릴라(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라고 말해 주고, 몸이 아프면 방문하고, 사망했을 때 운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²⁹⁶⁾

이러한 실천사항 외에도 이슬람법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 무슬림들에게 가이드라인

295) Muslim.

296) Muslim.

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슬림이 하나님을 위해 다른 무슬림을 사랑한다면 그 감정을 그에게 표시하라고 가르친다. 예언자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위해 무슬림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는 그것을 그 형제에게 알리시오. 이렇게 하면 보다 유대관계가 오래 유지되고 사랑이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²⁹⁷⁾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분에게 맹세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알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입니다.”²⁹⁸⁾ 본 하디스는 인사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서로간의 평화가 하나 됨을 강조하고 있다.

예언자께서는 선물교환을 통한 축복도 언급하셨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²⁹⁹⁾ 상호방문도 역설하셨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서로 방문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시오. 상호방문은 상호간의 사랑을 증대시키고 미움을 제거하여 줄 것입니다.”³⁰⁰⁾

이러한 모든 행위 외에도 개인 간의 유대관계를 위해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험담, 비방, 거짓말, 기만, 정탐 등

297) Ibn Abi Dunya, *Kitab al-Ikhwān*.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좋은 것(hasan)이다. al-Albani, *Sahih al-Jami al-Saghir* #280.

298) Muslim.

299)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좋은 것(hasan)이다. al-Albani, *Sahih al-Jami al-Saghir* #2583.

300) al-Tabarani.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Albani, *Sahih al-Jami al-Saghir* #280.

상호관계를 해치는 그래서 이슬람이 금지하고 있는 나쁜 행위들은 반듯이 피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슬람이 실제로 적용되고 실천에 옮겨질 때 무슬림은 이 세상 모든 무슬림들의 진정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다른 무슬림을 위해 좋은 것 외에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좋은 일을 하고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된다.

12-비무슬림과의 관계

분명한 사실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무슬림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바탕이 된 길을 걷는다. 타인에 대한 무슬림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자세와 흡사하다. 무슬림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며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서 완벽한 친근성과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³⁰¹⁾ 그렇지만 무슬림은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비무슬림과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원칙은 모든 비무슬림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일부 비무슬림들은 무슬림들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거나 일부는 노골적으로 무슬림들을 조롱하거나 증오하기도 한다.³⁰²⁾

301) 세속주의자들의 경우와 비슷하다. 좌파 정치인들은 우파 정치인들을 싫어하고 우파 정치인들은 좌파 정치인들을 싫어한다.

302) 무슬림 국가가 비무슬림 국가에 전쟁을 선포하지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한 교전 상황은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은

비호전적인 비무슬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가운데 하나가 다음 꾸란 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 하나님께서 종교를 이유로 너희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친절하고 그들과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셨나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60:8)

이에 더하여 비무슬림에 대한 무슬림의 책임은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복지와 전 세계를 위해 믿는 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것이다³⁰³⁾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신자의 기쁨이요 희망이다 예언자께서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꾸란 여러 곳에서 신자가 되기를 거절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언자께서 얼마나

아니며 장래에 협조의 불가능성을 암시하지 않는다. 사실상 유럽 국가들은 서로가 지속적으로 거의 100년 가까이 싸워왔다. 그런데 오늘날 그들 국가들은 유럽연합이 되었다. 교전 상황은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비정상적인 경우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본서의 영역을 넘어서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303) 이것은 무슬림의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일부 현대인들은 이 부분을 왜곡하고 있다. 사실상 비무슬림을 이슬람으로 유혹하는 무슬림은 없다.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 사실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장점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무슬림들이 비무슬림들에게, 이들이 무슬림들에게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방식대로, 이슬람을 강요한다면 그들은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다.

슬퍼하였는가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 아마도 그대는 저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울 때가 있을 것이니라(18:6)

예언자께서 메카 불신자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학대를 받았다. 산의 천사가 예언자에게 나타나 메카 산들로 하여금 저들을 덮치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 천사의 제의를 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의 후손들 중에서 어떤 사신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희망합니다.”³⁰⁴⁾

하나님의 종교로 초대하는 방법은 예언자께서 보여주신 길이요 예언자의 추종자들이 따랐던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8. 말하라 이것이 나의 길이라 나와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분명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부르니라.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는 사신들과 하나님을 혼동하는 자가 아닙니다(12:108)

이것이 바로 무슬림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할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일들 중의 하나다.

불신자들을 상대로 한 두 번째 무슬림의 자세는 적절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쉐이크 빈바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슬림은 비무슬림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비무슬림이 이슬람 국가의 시민이거나 보호를 받고 있거나 동맹관계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무슬림은 다

304) al-Bukhari and Muslim.

른 사람의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그의 재산을 갈취해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되고 기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살해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들도 그러한 것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³⁰⁵⁾

무슬림은 비무슬림과 상호교류하면서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그들로부터 구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임대도 하고 임대를 놓는 등 서로 공존해야 한다.³⁰⁶⁾ 사회적 관계에서도 식사도 함께 하는 등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러나 가릴 것은 가려야 한다. 현실에 대한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서로 다른 견해차가 불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기준에서 볼 때 상대방의 종교로 인해 불만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다.³⁰⁷⁾ 덧붙여 말한다면 무슬림의 용모와 행위의 차이점 등이

305) Ali Abu Lawz, Answers, p. 30.

306) 비무슬림 친척들과 비무슬림 이웃들과의 관계는 앞서 이미 다루었다.

307)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 믿는 자들이여, 나의 적과 너희의 적을 친구로 삼지 말며 그들에게 사랑도 베풀지도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도래한 진리를 거역하고 너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도와 너희들을 추방한 자들이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전하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말라. 나는 너희가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모두 알고 있나니 너희 중에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니라.”(60:1) 본서의 저자는 비무슬림 환경 출신의 무슬림으로 전에는 비무슬림들과 어울려 살았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경멸하고 외면하는 종교 단체들이 많은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타종교에 무척 너그럽고 개방적이며 정직하고 순수한 종교는 유일하게 이슬람뿐이다. 다른 종교단체들은 대다수가 사랑이란 슬로건만 내세울 뿐 마음으로는 타종교를 혐오하거나 하물며 비방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님 아래의 한 공동체(One Nation Under God)란 제목으로 책을 쓴 루스 왈튼(Rus Walton)이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비무슬림들과 가까이 하여 어울리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 특히 무슬림은, 마약흡입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비무슬림의 술자리에 함께 하기가 어렵다. 이슬람이 금기하고 있는 비무슬림들의 행사나 활동에 참가하기가 쉽지 않다. 무슬림은 남녀관계, 특히 불법적인 성관계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동성끼리도 마찬가지다. 이성(異性)에 적합하지 않는 야담을 한다거나 현대사회에 퍼지고 있는 성희롱 대화를 해서도 안 된다.

비무슬림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이슬람으로 안내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여 사랑과 형제애의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비록 비무슬림이 적대적이고 무례하게 행동할지라도 무슬림은 그로 인해 있을 수 있는 나쁜 것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 선행과 악행이 같을 수 없노라. 그러므로 더 좋은 선행으로 악을 물리쳐라. 그리하면 그대의 적도 가까운 친구가 될 것이니라(41:34)

쉐이크 빈바스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무슬림이 무슬림에게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무슬림은 이슬람 예절에 따라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그들을 속이거나 배반하

구세주이며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적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적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구절이 없으며 그들과 계약을 맺으라는 한 원문을 찾을 수 없다.”

Andrew J. Bacevich, *The New American Militarism: How Americans Are Seduced by War*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30.

지 말고, 그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과 의논하고 토의할 일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과 예절로 그들을 대하고, 토론에 있어 공명정대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6. 성서의 백성들을 인도함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하라 그러나 저들 중 부정한 자들과는 논쟁하지 말라...(29:46)

그들을 좋은 것으로 안내하는 것도 무슬림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선으로 안내함에 있어 충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5.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로 모두를 주님의 길로 초대하고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대할 것이니라 실로 주님께서서는 바른 길을 벗어난 자를 잘 알고 계시며 바른 길로 가는 자도 잘 알고 계시느니라(16:125)

83....부모와 친인척과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하셨느니라...(2:83)

무슬림은 비무슬림에게 자선금을 낼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이슬람 연구 상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무슬림은 자신이 도살한 고기로 이웃 비무슬림을 도울 수 있다.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과 여행자들, 계약관계에 있거나 포로로 잡혀 있는 비무슬림에게도 자신이 도살한 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 빈곤한 자의 권리, 혈육관계의 권리, 이웃의 권리에 대한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도살한 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슬림 국가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선은 무슬림들을 억압하고 허약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 자선이 무슬림에게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자선은 다음의 꾸란 절이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 하나님께서 종교를 이유로 너희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친절하고 그들과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셨나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60:8)

예언자께서는 아부 바크르의 딸 아스마에게 불신자인 그녀의 어머니에게 재물을 드리라고 지시하셨다.³⁰⁸⁾

13-사회와의 관계

무슬림이 어떤 사회에서 살려고 한다면 그는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그 나라의 법을 위반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무슬림이지만 그가 살아갈 나라는 이슬람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살던지 본 장에 언급될 기본 원칙들을 적용하면 무난할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 국가들은 무슬림에게 금기된 것들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무슬림은 이러한 것들을 피하거나 멀리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슬람에서 금기되고 있는 것을 무슬림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법을 준수

308) Ali Abu Lawz, Answers, pp. 47-48.

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무슬림은 그가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 면에서 그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존경받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좋은 일은 앞장서서 실천하고 나쁜 일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살인, 강도, 도둑, 강간 등 모든 사회가 중대한 죄로 간주하는 범죄에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술과 마약을 피해야 하고 마약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그 사회에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 사회의 모든 구성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서구뿐만 아니라 지구촌 어떤 사회에서 살든지 간에 무슬림은 그 사회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무슬림의 충성심과 애국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슬람 정부에 대한 무슬림의 감정과 비무슬림 국가에 대한 감정은 분명히 다르다. 이것은 그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반정부 감정이나 그 나라에 해를 끼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한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은 미국정부와 특히 대법원에 불만을 표시하는 토론이 벌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꽤 많은 민주주의자들은 공화주의자들의 행정에 충성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만일 애국심이 정부가 말하는 것을 따르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이라면 지식층은 아무도 애국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거

짓말하고 때로는 속이고 기만하는 정부가 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정부를 위해 애국하는 지식층은 없을 것이다. 한편 애국심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마다 나라를 위해 보는 최선의 방법이 각양각색이 된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여 말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그들의 권리도 질문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슬람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이 자란 고국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무슬림들이 불신자들의 지배하에 있던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해야만 했을 때 상당수의 사하바(sahabah: 예언자의 교우들)들도 메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이슬람국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살게 된 나라에 대한 사랑이 싹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역시 고국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바라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무슬림들의 생각은 공유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은 도박이나 매춘이나 외설문화의 종지부를 보고 싶어 할 수 있다. 무슬림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비무슬림들은 이러한 목적에 동감하지 않는다. 여기에 바로 문제의 핵심이 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현대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자유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비이슬람 국가에서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를 따른다 할지라도 무슬림은 자신의 가치와 전통을 지켜야 한다. 물론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 만일 자유

국가들이 무슬림들에게 그것까지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외치는 이상(理想)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자는 무슬림이 아니다. 무슬림들은 단지 지배적인 문화와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좋은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³⁰⁹⁾

14-재물과 재산과의 관계

이슬람은 재물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베푼 은총이다. 그래서 이슬람에서의 재물은 결코 나쁜 것도 아니요 일부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필요의 악도 아니다. 오히려 이슬람은 재물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이슬람 목적 가운데 하나다. 이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309) 전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무슬림들은 평화주의자들이 되어야 하고 반전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슬람에서 허용되고 있는 전쟁의 형태는 단 하나로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뿐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제외하고 무슬림은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테러의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미 여러 무슬림 학자들이 테러를 강력하게 비난하였고 무슬림의 윤리에서 테러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비무슬림들의 대중매체들은 테러한 대한 무슬림 학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기는커녕 무슬림들이 테러방지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무슬림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저자는 2004년 4월 20-22일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 주제는 ‘테러와 폭력 그리고 극단주의에 대한 이슬람의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주제의 국제회의가 바티칸에서 개최되어 회의결과가 나왔다면 서구의 언론은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방송을 하였을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참석한 국제회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언론매체는 회의결과를 거의 방송하지 않았다.

별고 재물을 저축할 것을 권장한다.

그렇지만 재물에 대한 한계는 있어야 한다. 재물이 건전하고 올바른 사람의 손에 있으면 재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을 파괴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일종의 시험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 너희의 재산과 너희의 자손은 하나의 시험에 불과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천국의 보상이니라(64:15)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부활의 날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때까지 인간의 두 발은 꿈쩍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고, 지식으로는 무엇을 했으며, 재물을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³¹⁰⁾

예를 들어, 종교 교육에 우선적으로 재물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재물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삶의 궁극적 목적도 아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허용된 합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해야 하고 허용된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반듯이 이슬람의 윤리적 가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재물이 현세와 내세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사람은 자신의 재물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므로 각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잘 보호

310) al-Tirmizi and al-Darimi.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재물을 재물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대로 아무 데나 자신의 재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무슬림은 알고 있다. 무슬림들에게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금기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재물을 뇌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하람, 즉 금지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8. 남의 재산을 부정하게 삼키지 말 것이며 또 타인의 재산을 탐내어 재물을 교만하게 재판의 미끼로서 사용치 말라 너희는 다 알고 있느니라(2:188)

15-이슬람의 에티켓

이슬람의 는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치열한 경쟁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슬람의 는 튼튼한 윤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모든 는 도덕과 윤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무슬림은 깨달아야 한다.

는 발전한 사회의 중요한 한 단면이다. 예언자께서는 에 대한 많은 지침서를 언급하셨다. 무슬림은 이 지침서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 지침서는 부정한 거래와 비합리적 관행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과 증오심들을 크게 제거하여 줄 것이다.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형제애가 모든 에 퍼지게 될 것이

다. 단지 돈만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형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언자께서는 형제애와 공정한 거래를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지 말고 서로가 가격을 부추기지 마시오. 서로가 미워하지 말며 서로가 등을 돌리지 마시오. 서로가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형제들이 되시오. 무슬림은 무슬림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무슬림이 무슬림을 해치지 않고, 무슬림이 무슬림을 저버리지 않고, 무슬림이 무슬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바로 가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께서는 세 번이나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셨다. “무슬림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악입니다. 모든 무슬림에게 신성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재물과 명예입니다.”³¹¹⁾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하나님께서서는 물건을 팔 때 관대하고, 물건을 살 때 관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관대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³¹²⁾

거래 당사자가 축복을 받게 될 열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있다. 그 열쇠는 바로 신뢰와 정직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가 헤어지지 않는 한 선택의 권리를 갖습니다. 쌍방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들은 거래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다면 거래의 축복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³¹³⁾

311) al-Bukhari and Muslim,

312) al-Bukhari and Muslim,

313) Yahiya al-Nuri, *al-Minhaj Sharh Sahih Muslim ibn al-Hujaj*

도덕과 윤리에 입각하여 양심적으로 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현세보다는 내세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징벌에 노출될 이유가 없고 하찮은 이익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필요가 없다. 그는 오히려 무슬림 형제들과의 신뢰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커다란 보상을 내리실 것이다.

상거래의 보편적 원칙은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동의 혹은 승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재산을 부정하게 삼키지 말라 서로가 합의한 교역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하느니라 너희 자신들을 살해하지 말라. 진실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니라(4:29)

고별순례 때 예언자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스스로의 동의가 없는 무슬림의 재산은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³¹⁴⁾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강요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강요에 의해 상거래를 할 수 없다. 강요는 불법이므로 강요에 의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동시에 이슬람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거래는 모든 무슬림에게 자유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누누가 국가나 다른 힘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처신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슬람 경제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개념과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Beirut: Dar al-Ma'rifah, 1999), vol. 10, p. 424.

314) al-Bukhari and Muslim,

상거래에 있어 또 다른 보편적 원칙은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모든 거래가 허용된다. 그러나 금지된 것이 일부분이라도 포함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는 상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듯 이슬람법은 반드시 피해야 할 몇 가지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았다.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들은 공개되지 않는 것, 유효기간이나 날짜 조건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 투기적인 것, 모험적인 것, 이자, 도박, 사기, 기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만일 계약서상 이런 요소들 중에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정도에 따라 그 계약은 효력을 잃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은 이런 금지사항들을 잘 알아서 깨끗한 삶이 되고 합법적인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룰 것이다.

16-투기 혹은 모험적인 것(gharar)

가라르(gharar)는 투기 혹은 모험적인 거래를 의미한다. 이맘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에서 가라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다. “예언자께서는 가라르 거래를 금지하셨습니다.” 부카리와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우마르가 전하고 있다. “과일이 영글기 전까지 그리고 과일의 부패 여부가 확인할 때까지는 주인과 구매자 간의 거래를 금지합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하디스에 대한 평가에서 나와위(Nawawi)는 당사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이

유를 설명하였다. “판매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구매자는 그것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자신의 재산을 잃을 수가 있고 그런 방법에 의한 재산낭비는 금지되었기 때문이다.”³¹⁵⁾

이들 하디스와 그 밖의 하디스 내용에 근거하여 이슬람법학자들은 과도한 위험이 있거나 확실성이 없는 거래는 효력이 없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한 거래는 한쪽 혹은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다. 가라르(gharar)의 의미에 대해 라이너(Rayner)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슬람법은 공정하고 윤리적 가치에 의한 상호거래를 위해 부당이익 금지를 결정하였다.

이 원칙은 불확실 하고 모험적인 요소가 들어간 모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³¹⁶⁾ 전반적인 문맥에서 볼 때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이슬람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이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떠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위험은 수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불확실성에 의한 투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을 띤 투기 혹은 모험적인 거래는 금지된다.³¹⁷⁾

이슬람법이 위험이 많은 투기성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315) Yahiya al-Nuri, *al-Minhaj Sharh Sahih Muslim ibn al-Hujaj* (Beirut: Dar al-Ma'rifah, 1999), vol. 10, p. 424.

316) S. E. Rayner, *The Theory of Contract in Islamic Law* (London: Graham & Trotman, 1991), p. 289.

317) 당사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래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거래가 쌍방이 모두 만족해야 거래가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리한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고 있다.³¹⁸⁾ 이븐 알아씨르느 이 용어의 사전적 의미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라르(gharar) 거래란 일부는 현혹하고 싫어하는 부분은 숨기는 것이다. 그래서 현혹하는 요소는 구매자를 유혹하고 구매자가 싫어하는 부분은 숨겨져 있다. 이븐 주자이에 의하면 가라르(gharar)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모두 해당된다.

- 01) 가격을 알 수 없고 상품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는 것.³¹⁹⁾
- 02) 가격과 상품의 특성을 알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설명서 없이 판매되는 옷감의 천.³²⁰⁾
- 03) 상품의 부재로 상품인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³²¹⁾
- 04) 병든 동물의 경우처럼 상품 존재에 대한 모호함이 있는 경우.³²²⁾

318) Mubarak ibn al-Athir, *Jami al-Usul fil Ahadith al-Rasul* (Maktabah al-Hilwani, 1971), vol. 1, pp. 527-528.

319) Nayla Comari-Obeid, *The Law of Business Contracts in the Arab Middle East* (London: Kluwer Saw International, 1996), p. 58.

320) Ibid., p. 58.

321) Ibid., p. 58.

322) Ibid., p. 58.

17-이자(riba)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주는 것이다.³²³⁾ 꾸란이 이자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무슬림이라면 의심할 여지없이 최선을 다해 이자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5. 이자를 취하는 자들은 악마가 스침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며 말하길 상거래를 이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나 하나님께서 상거래는 허락하였으되 이자는 금지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자를 단념한 자는 그의 지난 모든 과거가 용서될 것이며 그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니라. 그러나 이자로 다시 돌아가는 자 있다면 그들은 지옥의 동반자로서 그곳에서 영주할 것이니라(2:275)

276. 하나님은 이자를 없애고 자선의 행위에 축복을 더하시며 사악한 모든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2:276)

277.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2:277)

278.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만일 너희들이 믿는

323) 아랍어인 리바(riba)를 한글의 고리대금(usury)으로 번역할 때 번역할 때 완전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리바는 과대한 증가 혹은 비합리적인 증가 혹은 부당한 증가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슬람법에서 말하는 리바는 원금에 덧붙여지는 것으로 금액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하람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원금에 덧붙여지는 금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리바다. 그래서 리바를 한글의 고리대금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자(interest)로 옮기는 것이 더 리바 번역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역자 주)

자들이라면 추구하는 이자를 포기하라(2:288)

279.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예언자께서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며 너희가 회개한다면 원금은 갖되 부정을 저지르지도 말고 부정을 당해서도 아니 되느니라(2:279)

여러 꾸란 절들과 하디스에 근거하여 자베르는 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주는 자, 이자와 관련하여 기록하는 자, 이자와 관련된 두 명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³²⁴⁾ 이 하디스에서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자를 주는 자, 받은 자, 금지된 거래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자, 증인까지 모두가 범죄에 가담한 자로 예언자께서 이들 모두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도 금지고 이자를 받는 것도 금지다. 은행거래를 통해서 받는 이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돈이 필요한 형제가 은행에서 용자를 하려할 때 형제애로써 보증인이 되어주는 것은 형제애를 실천하는 것으로 자선의 행위가 된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람이다. 이익을 창출할 사업목적으로 용자를 하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금을 대여한 사람은 투자자이므로 빌려준 원금상환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빌린 사람만 사업의 위험을 감당하고 빌려준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슬람은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많은 투

324) Muslim.

자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정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한편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을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18-사기와 기만

이슬람은 사기와 기만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품의 결함을 숨기는 행위도 역시 금지사항이다. 어느 날 예언자께서 시장에 나가 곡물 포대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포대 바닥이 물에 젖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상인에게 질문을 하셨다. 그러자 비가 내려 포대바닥이 젖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젖은 부분을 그 포대 제일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속이는 자는 나의 공동체 일원이 아닙니다.”³²⁵⁾

이븐 마자가 전하고 있는 하디스에서 예언자는 이슬람의 형제애와 상거래를 강조하셨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무슬림은 무슬림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무슬림이 무슬림에게 결함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³²⁶⁾

325) Muslim.

326) ibn Majah. Ahmad and al-Hakim도 그와 마찬가지로.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sahih)이다. al-Albani, *Sahiah al-Jami*, vol. 2, p. 1136.

19-금지된 재물 취득

재물을 취득하는 데 있어 금지된 또 다른 형태들이 있다. 강도와 약탈, 뇌물, 도박, 투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슬람은 비록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금지된 상품거래를 금지한다. 알코올, 포르노관련 상품, 마약 등과 같은 유사상품의 거래도 금지사항이다.

*결론

본장에서 믿는 자들과 타인과의 관계 및 거래를 다루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상호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거래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분명한 지침서를 보내 타인과의 관계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까지도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배우도록 하셨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사회 각 개인들과의 관계, 하물며 동물을 비롯한 재물과 같은 무생물들과의 거래에 필요한 모든 지침서를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자

들을 상징하는 에티켓이 담긴 지침서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무슬림이라면 이 에티켓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
해 이슬람의 예절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제7장 | 믿음의 강화와 증대

본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슬림은 종교적 일과 연계된 사항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증대될 수 있고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천국의 사람들처럼 일을 하여 그와 천국 사이가 한 뼘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옥의 사람들처럼 일을 하는 운명이 되었다면 그는 지옥에 들어갑니다.”³²⁷⁾

무슬림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과 수단도 분명해야 한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고 피해를 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때 곧바로 가던 길을 수정하여 바른 길로 가야 한다.

01-마음의 청결(tazkiah)

저자는 다른 작품에서 마음의 청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마음속에서 육성된 건전한 요소들이 마음을 파고드는 오염들을 제거하고 지배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숭배함에 절

327) al-Bukhari and Muslim.

정(ihsan)에 달하게 하면서 삶의 목적을 달성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³²⁸⁾

마음의 청결은 하나의 수행이다. 다시 말하면, 정적인 것이 아니다. 마음의 청결은 다이내믹하고 버라이어티한 것일 수도 있다. 마음의 청결과 관련하여 자신의 절대적인 잠재력으로 근접해가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 목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완벽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설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6. 내가 진과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만을 숭배하게 하려 함이니라(51:56)

그러므로 삶의 목표는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가장 고매하고 가장 존경받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을 숭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그것보다 더 고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무슬림들은 바로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 목표를 향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며 하나님만을 진정한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분만을 경배할 때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알미끄리지는 올바른 숭배 방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언급하였다.

328) 이흐산(ihsan)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절정에 이르는 단계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만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Muslim.

- 01) 무엇이 하나님과 예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아는 일.
- 02) 그것들을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 03) 그것들을 말로 실천하는 것.
- 04) 그것들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³²⁹⁾

이들의 각 요소는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종이 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각 개인은 제일먼저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방법이 자신의 개인적 기분이나 철학이나 변덕스러운 생각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에 근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꾸란과 순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알게 된 지식은 반듯이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 속에 내재한 그것들에 대해 승리하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다.

이것들 외에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 과정이 완성되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자발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븐 타이미야는 이바다(ibadah: 숭배)의 의미를 다음과 같

329) ibn Taimiyah 번역문에서 인용. *Servitude: Tajrid al-Tawhid al-Mufid*, p. 29.

이 상술하였다. “이바다의 본래 의미는 겸손과 복종이다. 많이 밟혀서 부드럽게 된 길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무화된 이바다는 사랑과 함께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역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아이나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바다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어느 것보다 가장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느 것보다 위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온전한 사랑과 숭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³³⁰⁾

마음에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이바다를 위한 마음의 청결이 단순한 동작이나 의식행위 혹은 종교적 또는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³³¹⁾ 앞서 언급했듯이 청결의 목

330) Ahmad ibn Taimiyah, *Ibn Taymiyah's Essay on Servitude*, pp. 37-38.

331) 역사를 들여다 볼 때 일부 경건한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극단에 빠져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과 정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와 함께 한 마음의 청결을 거부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극단주의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일상적인 삶에 속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는 것이 마음의 청결을 위한 바른 접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세의 축복을 등지고 극단주의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현세에서 해야 할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지침서가 꾸란과 순나와 예언자의 교우들이 걸어온 전통에 있다. 다

적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종이 되는데 있다.

이바다의 정확한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이븐 타이미아가 정의한 이바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바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외적·내적인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단어다. 예를 들어, 예배, 자카트, 금식, 성지순례, 대화의 진실성, 신뢰, 부모에 대한 효도, 친척간의 유대관계, 약속이나 계약 이행, 선행의 권장과 악행퇴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을 상대로 한 성전, 이웃과 고아와 불우한 자와 여행자와 노예와 동물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 기도, 하나님 상기, 꾸란 읽기, 하나님과 예언자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회개, 역경이 있을 때 인내하고 축복이 있을 때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일, 하나님에의 의탁,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 등 이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바다이다.”³³²⁾

음의 꾸란 절을 통해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준 것으로 내세의 안식처를 구하라 그리고 현세에서 너의 몫을 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베푸셨던 것처럼 선을 베풀라 그리고 땅 위에 해약을 퍼뜨리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해약을 퍼뜨리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28:77)

332) Ibn Taimiyah, *Majmu'*, vol. 10, p.449. 학자들은 이바다 어휘를 두 가지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어휘 사용에 있어 혼란이 초래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이븐 타이미아가 사용한 것처럼 일반적 의미로 사용된다. 때로는 이바다가 숭배와 관련한 특별한 의식행위만을 지칭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법에 관한 저서에서 이바다 장을 보면 여기에서의 이바다는 청결, 예배, 자카트 같은 의식적 행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아말라트(muamalt)장에서는 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상호교류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일반적 의미에서는 이바다 영역에 있는 모든 행위와 하나님에 올바른 숭배와 헌신 등을 포괄하고 있다.

마음의 청결은 사람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어가 외적 행위 뿐만 아니라 내적 품성에도 영향을 준다. 이슬라이가 언급했던 것처럼 청결은 우리의 모든 외적인 영역과 내적인 영역과 관계를 갖는다. 우리의 생각, 불안, 성향, 움직임, 먹고 마시는 것, 계약, 취미, 관심사, 삶의 일상적인 과정 등 우리의 모든 영역과 관계를 한다. 요약하면 우리의 삶이 마음의 청결과 연계되지 않는 것이 없고 청결 밖에 있는 영역도 없다.³³³⁾

무라드는 대단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음의 청결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삶의 과정에서 포괄적인 하나만의 목적을 갖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묘사했다. “마음의 청결, 즉 타즈키야를 포괄적인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의 각 분야는 상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각 부분으로 나누어져 다른 부분들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불협화의 삶과 불행한 인생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나 포괄적인 과정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 각 부분은 다른 부분들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고 당신의 천국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것이다.”³³⁴⁾

333) Amin Ahsan Islahi, *Self-Purification and Development* (Delhi: Adam Publishers and Distributors, 2000), p. 21.

334) Khuram Murad, *In the Early Hours: Reflections on Spiritual and Self Development* (Markfield, United Kingdom: Revival Publications, 2000), p. 16.

02-믿음의 증대와 감소

믿음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꾸란이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낭송될 때 그들의 믿음이 더 하여지고...(8:2)

4.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내려 주시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신앙심을 더욱 굳게 하고자 하심이니라...(48:4)

173. 무리가 그들에게 말하길 많은 군중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오나니 그들을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더욱 두터워졌으니 그들이 말하더라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나니 승리는 그분에게 의탁하는 자에게 돌아갑니다(3:173)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의 외적 행위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믿음이 증가하고 감소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다. 그러한 것이 믿음의 흔들림 때문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모든 양상은 이러한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마음의 움직임은 더욱 그렇다. 하물며 믿음의 수준 혹은 확신까지도 변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분명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쉽고 변화에 약할 수 있다.

각 개인은 위의 꾸란에 묘사된 사실을 경험했을 것이다.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한다. 마음속의 이러한 강한 느낌이 평

온함과 따뜻함을 가져다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준다. 그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욱 봉사하게 한다. 예를 들어, 늦은 밤 예배를 열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 자선을 베풀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사에 몰두하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서 이러한 믿음의 위대함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품행과 행위도 그전과는 같지 않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밤예배를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나 하나님을 위해 자선을 하고픈 마음이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던 믿음의 변화다.

믿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세상사와 가족과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을 때는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아부 바크르에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무슬림이 수집한 하디스에 언급된 이야기다. 한잘라가 울면서 아부 바크르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부 바크르가 물었다. “한잘라, 무슨 일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나는 위선의 죄를 지었어요. 예언자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을 때 예언자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내에게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내가 느꼈던 것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 말을 듣고 아부 바크르가 말했다. “정말이지 나도 그랬어. 믿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마음속의 확신과 지식의 수준도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간마다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야가 기술하고 있다.

“예언자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의 마음속에 내재한 확신은 예언자의 삶과 가르침을 자세히 알고 있는 자의 마음속에 내재한 수준과 같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과 그것들의 이름과 내세의 삶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확신과 지식의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되어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과 다를 수밖에 없다.”³³⁵⁾ 역시 이븐 타이미아의 말이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알고 다른 믿음은 부질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하여 진다.”³³⁶⁾

이븐 타이미아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³³⁷⁾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믿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서로 다른 수준의 사랑을 인정한다. 사랑은, 때로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거나 함께 하고 싶은 희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믿음도 대단히 중요하다.”

믿음의 증가와 감소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슬람 초기 학자들도 의견을 달리했던 문제다. 믿음의 수준이 고정되어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믿음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요 믿음의 감소를 두려워하거나 주의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자신의 믿음에 매우 위협할 수 있

335) ibn Taimiya, *Majmu*, vol. 7, p. 564.

336) ibn Taimiya, *Majmu*, vol. 7, pp. 565-566.

337) ibn Taimiya, *Majmu*, vol. 7, pp. 566-567.

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이 감소되고 있다는 신호를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슬림 각자는 믿음도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믿음이 감소하고 있는 증상이 있는지를 항상 감시하면서 믿음을 증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언자의 교우들이 보인 선례에서 믿음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교우가 어떤 교우의 손을 잡고 말하길, “일어나. 얼마동안 우리의 믿음을 증대하세요.” 이 말은 바로 꾸란 읽기, 하나님 생각하기 등을 통하여 믿음을 되살리고 증대하자는 것이었다.

03-믿음의 성장과 발전

이슬람에 입교하면 진실한 무슬림이 되고 실질적으로 믿는 자가 되기 위해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형태의 사신이나 미신을 청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비유했던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단계가 단 한번에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는 성장과 발전의 여지가 없이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무라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임무가 있다. 믿는 자(mu'min)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mujahid)가 되는 것이다. 이 임무를 시작할 때 이슬람 지식이 부족함을 느끼거나 당신이 기대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그런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슬람을 수행하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이슬람은 더 낡은 것들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당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매일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전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했다면 하나님을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이슬람의 이상(理想)이다. 이상을 실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상은 언제나 추구되어야 한다. 만일 이상이 쉽게 그리고 언제나 성취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상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꾸란 타우바 장 111절에 언급된 것처럼³³⁸⁾ 당신이 해야 할 계약의 임무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항상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쓰려는 노력, 이것을 가리켜 지하드(jihad)라 부르는데 타즈키야(tazkiya: 사전적 의미로는 청결)라고도 알려져 있다.”³³⁹⁾

338)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1.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부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재산을 사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노라.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고 투쟁하며 순교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과 꾸란에 약속된 것이니라. 하나님보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뇨?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기뻐하라. 그것이 영광된 승리이니라.

339) Murad, pp. 607. Elsewhere (p. 13), 그는 다른 주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와 같이 희망은 당신의 노력과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당신은 진실하게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당신의

이슬람에 첫발을 들여놓은 무슬림 혹은 무슬림의 자녀로 태어나 이슬람을 믿게 된 무슬림은 가장 큰 쉬르크(shirk: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잔재 그리고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도 있다고 믿는 행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이슬람의 타우히드(tawhid: 일위일체의 하나님)의 개념을 다 이해하여 그의 마음에 쉬르크의 잔재나 불신의 잔재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베두인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 사막의 유목민들이 ‘저희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노라 말하라 너희는 아직 믿지 아니하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니라. 너희의 마음에는 아직도 진실한 신앙심이 깃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믿는다면 그분께서는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조금도 감소하지 않을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니라(49:14)

예언자 시절 새로운 무슬림들은 아랍어에 능숙하여 꾸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도 타우히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들은 꾸란이 계시된 시기에 살고 있었던 무슬림들이었다. 다음은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아부 와끼드 라이씨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서 후나인에 갔을 때 다신교 신자들이 믿었던 ‘다트 완와트’란 나무를 지나가면서 그 나무에

모든 노력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월주의는 발전을 저해하고 열등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말살시킨다. 당신의 임무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신념, 희망 그리고 결심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무기들이 결려있는 것을 보았다. 예언자를 수행했던 교우들이 말했다. “예언자여, 저들이 ‘다트 완와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트 완와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맙소서. 이것은 모세의 백성들이 말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이 우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동상 하나를 만들어주시오. 나의 생명이 달려 있는 그분의 손에 맹세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이전 사람들의 전통을 닮으려 하는 것입니까?’”(340)

그렇지만 믿음이 성장해가면 새로운 지평선이 펼쳐진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 과거에 맞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와 경험은 과거의 잘못된 믿음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신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어 준다.

이븐 까이임의 글에서 인용된 다음 내용은 무슬림이 되어 이슬람 수행에 들어갈 때 무슬림 마음에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해가면서 이 부분은 더욱더 강해져 자신을 효과적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준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무슬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전날 밤에 들었던 일기예보를 회상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비가 내린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믿음의 수준이 초보자 무슬림과 다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

340) Ahmad and al-Tirmizi.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정확한 것 (sahih)이다. al-Albanin, *Sahih Sunan al-Tirmizi* (Riyadh: Maktab al-Tarbiyah al-Arabi li-Duwal al-Khalij, 1988), vol. 2, p. 235.

리게 한 것이지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 비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나 하나님께서 내린 일종의 징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븐 까이임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손실을 끼치고 이익을 주는 것, 베풀고 억제하는 것, 창조하고 양식을 주는 것, 생명을 주고 앗아가는 것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한 온전한 숭배수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완전한 의지는 신뢰와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물며 하늘과 땅에 있는 가장 작은 원자까지도 알고 계시며, 모든 비밀과 숨겨져 있는 것,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눈이 속이고 있는 것 등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무슬림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혀를 조심하고, 자신의 사지를 조심하고, 마음의 생각을 조심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다. 마음에 부끄러움을 갖게 되어 금지된 것과 부끄럽고 추잡한 것들을 피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족하신 분이시고, 관대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마음과 몸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장엄함과 위대함과 영광을 인식하고 겸손과 복종과 사랑으로써 하나님을 숭배하게 된다. 내적 정서와 외적 행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숭배하게 된

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벽성과 하나님의 완벽한 미와 하나님의 가장 고매한 속성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게 된다.”³⁴¹⁾

04-믿음을 증대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길

인간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 꾸란과 순나가 채택한 길은 너무 놀랍고 매우 분명하며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따르기에 무척 쉬운 길이다. 이 길은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그 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01) 올바른 믿음
- 02) 의무사항에 대한 수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접근해 가는 것
- 03) 의무사항 외에 자의적 추가수행을 통한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접근해 가는 것

05-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의심할 여지없이 첫 단계로써 자신의 마음을 청결(tazkiya)하게 하는데 있다. 이것이 바로 현세와 내세의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1) *Ibn al-Qayim, Miftah Dar al-Saadah*, vol. 2, 90.

14. 스스로를 청결케 한 자는 번성할 것이니라(87:14)

꾸란 평론가들은 본 절은 하나님에 대한 쉬르크(shirk)와 불신(kufr)의 상태를 완전히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³⁴²⁾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압바스는 본 절을 ‘쉬르크로부터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³⁴³⁾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의 방황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자신들 취미와 희망 혹은 맹목적으로 부모나 친구 등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한 사람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³⁴⁴⁾ 이처럼 멋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필요 없을 정도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은 사탄의 추종자가 되거나 열이면 열 모두가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

342) 본 절에 해석에서 쿠프르(kufr:불신)와 쉬르크(shirk:우상숭배 및 사신을 섬기는 행위)로 연계한 이유에 대해서는 al-Kakhar al-Razi, Al-Tafsir al-Kabir (Beirut: Dar Ihya al-Turath al-Arabi, n.d.) vol. 31, pp. 146-147. CF., Jalal al-Din al-Suyuti, al-Durr fi al-Tafsir al-Mathur (Beirut: Dar al-Kutub al-Ilmiyah, 1990), vol. 6, pp. 567-568.

343) al-Tabari, vol. 15, p. 156.

344) 이 저자는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놀랍게도 이슬람교를 믿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추측 또는 생각일 뿐이라는 말이 많이 들려온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거짓이다.

믿음의 선서 문구인 '라 일라하 일랄라', 즉 숭배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원칙과 사실을 수락하고, '타즈키야', 즉 모든 종류의 '쉬르크'로부터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이슬람에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다. 하나님에 대한 쉬르크는 큰 죄들 가운데 하나다. 특히 숭배의 가치가 전혀 없는 피조물을 숭배함으로써 자신의 영혼과 존엄성을 우롱하는 것처럼 큰 잘못은 없다. 하나님은 꾸란에서 루끄만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 루끄만이 그의 아들에게 훈계한 것을 상기하라 아들이 하나님께 비유하여 사신을 섬기지 말라 실로 사신을 섬기는 것은 큰 죄이니라(31:13)

이 범위의 가장자리에서 쉬르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 쉬르크가 오늘날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하늘의 종교에도 들어가 있다. 쉬르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극단을 향해 가고 있다. 그들의 영혼은 쉬르크 행위가 완전히 모순되고 가증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속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르크를 저지른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8.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비유하려 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나 그 외에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용서하시니라. 하나님에 어떤 것을 비유하려 하는 자는 죄를 조성하는 것이니라(4:48)

(4:116장 참조)

쉬르크를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지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금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2...실로 누구든 하나님께 다른 것을 비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금지하고 지옥을 그의 안식처로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는 어떤 구원자도 없느니라(5:72)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타즈키야, 즉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니 최소한 모든 쉬르크를 제거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쉬르크와 관련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지우고 ‘타우히드’, 즉 일위일체의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 먼저 이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된다. 하나님만을 위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위도 무의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디스를 통해서 전해오고 있다. “나는 완벽하게 자족하는 하나님이므로 나는 어떠한 동반자도 필요하지 아니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에게 동반자를 두는 자와 그리고 그 동반자는 나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³⁴⁵⁾

06-예언자에 대한 무슬림의 예절

예언자에 대한 무슬림의 태도와 예절은 타우히드(tawhid)와

345) Muslim.

직접 연계된다. 마찬가지로 타즈키야(tazkiya)와도 연계된다. 믿음의 선서를 하지 않고는 무슬림이 아니며 그러므로 타즈키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보지 않는다. 믿음의 선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는 분리될 수 없는 기본적인 것이다. 하나는 ‘아쉬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선서합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아쉬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롤라’(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나는 선서합니다)이다. 이 문구를 선서하는 것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의미한다. 이 두 문구는 예언자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 예언자는 누구였고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있어 그분의 임무는 무엇이었는가를 모두가 알아야 한다. 그분의 임무는 간단하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무슬림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분의 삶과 품행은 무슬림들에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배하는 방법에서부터, 금식, 선행에 대한 촉구, 인내, 하나님의 사랑, 독실한 신자가 되는 것,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고아와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무슬림들이 본 받아야 할 모범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예언자 무함마드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스승으로 또는 안내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비평에서 이븐 까이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음

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예언자들의 길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낸 목적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위해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들에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임무를 주셨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임무를 주셨다. 예언자들은 공동체를 정화하는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 중에서 무학자인 무함마드를 무지한 자들에게 사도로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들을 정화하여 성서와 지혜를 가르치도록 하셨느니라. 실로 그들은 분명히 방황하고 있었느니라'(62:2)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은 무척 어렵고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욱 더 힘들다. 정신적 수련이나 노력이나 예언자들이 가르치지 아니한 은둔생활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병을 자신의 개인적 생각으로 병을 치료하려는 환자와 같다. 그렇다면 의사의 지식과 진단에 관한 자신의 소견은 무엇인가? 예언자들은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들이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의 길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손이 아니고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다. 그러니 예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³⁴⁶⁾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내세의 성공을 원하는 모든 인간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본보기가 되도록 예언자들을 보내셨다고 하나님은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

346) Ibn al-Qayim

시기를,

21. 진실로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과 내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따라야 할 가장 훌륭한 모범자이니라(33:21)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인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이슬람법에 따라 예언자의 모범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³⁴⁷⁾

이슬라히는 모방(al-taqlid)하고자 하는 희망을 답습(al-mutaba'a: 답습, 추구, 추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답습의 영역은 복종(ta'ah)의 영역보다 훨씬 넓다. 복종 아래에는 의무사항, 강조된 순나, 금기사항이 있다. 그러나 답습에는 권장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것까지도 포함된다. 복종에서는 성실성과 사랑이 결여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답습에서는 경외심과 답습되는 것에 대한 존중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예언자의 길을 답습한 교우들의 열정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언자에게 복종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예언자에 대한 답습은 반드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언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된 분이셨다. 예언자의 품행을 포함함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 인식에 대한 증거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언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한다. 예언자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식을

347) 예언자 무함마드에게만 관련한 특별한 몇 가지 일이 있다. 그분의 행위들 중에 예언자 시대에 보편화되었던 관습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얻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예언자의 모든 행위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언자의 전통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은 다음의 꾸란에서 부각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 말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42:31)³⁴⁸⁾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강조되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 그분은 단순한 본보기가 아니라 본보기 그 자체인 것이다. 그 예언자의 생활방식보다 더 낫은 생활방식이 없고 그분이 선보인 믿음의 체계보다 더 낫은 믿음의 체계가 없다. 예언자 무함마드보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분이 없고 그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도 없다.³⁴⁹⁾

무슬림은 이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수용하여 이 의미를 행동으로 옮길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진정한 존중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예언자에 대한 사랑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없이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자신의 부

348) Islahi, pp. 92-93.

349)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가장 가까운 친구(khalil)로 두셨던 것처럼 나를 가장 가까운 친구(khalil)로 두셨습니다.” Muslim. 역시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만일 내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택한다면 아부 바크르를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두셨던 것처럼 나를 친구로 두셨습니다.” Muslim.

모나 자녀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은 한 진실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³⁵⁰⁾

이 점에 대하여 이슬라히는, ‘예언자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상이라는 말로 멋지고 완벽하게 표현하였다.

“이 기본과 원칙에 근거하여 어떤 원리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고, 삶의 각 영역에 그 원리와 이념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 밖의 다른 모든 원칙들과 삶의 방법 혹은 바라는 것 등은 뒤로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음으로 예언자에 대한 사랑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그 밖의 다른 원칙들은 그 다음 순서로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믿어온 원칙들을 격하시켜서는 안 된다. 자신의 신념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 해도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그 밖의 다른 것들이 자신의 신념을 가로막는다 해도 역시 그것들을 참아내야 한다.

아내와 자식들과 친척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원리원칙과 충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자신의 이념을 고집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는 아랑곳없이 자신의 이념을 두둔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바라는 것들을 저버릴 수 있다.”³⁵¹⁾

이 사랑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이 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이 열망했던 대상을 따라하고 모방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적인 삶의 각 영역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팬들이 자신들이 좋

350) al-Bukhari and Muslim.

351) Islahi, pp. 95-96.

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혹은 인기 배우들에 대하여 더 많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열망하는 목적의 일부는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요 또 다른 목적의 일부는 최대한 그들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이다. 이렇듯 어떤 대상을 답습하고 싶고 모방하고 싶은 마음과 정신이 어느 대상보다 예언자 무함마드에게로 집중될 때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진다.

요약하면, 마음의 청결을 위해 예언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정확한 것인지를 확신해야 한다. 예언자를 믿되 그 믿음이 정확해야 한다. 예언자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전통을 답습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걸어왔던 길을 사랑해야 한다.³⁵²⁾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확고부동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 무함마드가 오게 된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다.

무라드는 예언자에 관하여 관심을 끄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예언자의 임무다. 서구사회의 물질주의 현상에 관한 토론을 한 이후다. 이러한 사회의 현상들이 어떻게 이슬람사회로 스며들어오고 있으며 물질주의에 바탕을 두고 불가시계를 부정한 서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슬람의 가르침과 어떻게 모순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서구사회에서 서구스타일로 살기로 했다면 당신을 위한 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다. 그분도 역시

352) Islahi, p. 96. 사랑이 없는 복종은 위선의 일종이고 복종과 추종이 없는 사랑은 이설(異說: bid'a)이다.

거의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 신성한 지침서를 받고 새로운 경험을 한 후 히라 동굴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지에 어울리지 않는 문화와 사회로 들어가셨다.

그분의 메시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었다. 모든 지식, 모든 문화, 모든 문명, 모든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졌다. 이것은 당시 예언자가 살고 있던 그 사회에 완전히 생소하고 이상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상황과 별다름이 없는 낯선 사회에서의 삶을 위해 예언자의 전통을 고찰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이슬람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낯선 문화의 사회에 살면서 이슬람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합리적인 사고와 토론 그리고 정서적 모범과 문화적인 본보기를 통해서 이슬람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서적 그리고 문화적 모범과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언자의 순나뿐이며 이를 통해서만 무슬림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³⁵³⁾

07-선행

꾸란 여러 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열쇠가 단지 믿음의 선서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위선적인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한 실천이 함께하는 믿음이 구원의 열쇠라고 분명히 밝히셨다. 믿음은 마음으로는 믿음, 혀로의 표현, 그리고 몸

353) Murad, pp. 91-93.

으로의 실천 이 세가지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결론 내린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에 대한 실천을 믿음과 연계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4.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리니 실로 나는 그를 위해 그것을 기록하느니라(21:94)

지옥으로부터 구제되는 길은 믿음과 실천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 흘러가는 세월을 두고 맹세하사(103:1)

2. 실로 인간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느니라(103:2)

3.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를 권고하고 인내하는 자들은 제외되느니라(103:3)

꾸란 다른 절에서 하나님은 믿음과 실천 두 가지가 인간을 천국 혹은 지옥으로 안내한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1. 악을 저지르는 자의 죄악이 그를 포섭하나니 그는 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기거하느니라(2:81)

82.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 그곳에서 영생하느니라(2:82)³⁵⁴⁾

354) 좋은 일을 실천한 것 하나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이 행하는 훌륭한 일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훌륭한 일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좋은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이란 위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이에 더하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다.(이것은 믿음과 타우히드를 증대시켜 준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대단히 중요한 동적인 관계가 있다. 때로는 정확하게 통찰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매우 분명하다) 이 점은 앞서 언급된 하디스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한 종교적 의무에 대한 수행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은 없느니라.”

여기서 의무에 대한 실천이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의무사항을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율적 사항보다 의무사항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투피(al-Tufi)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의무사항을 실천하라는 명령은 엄격하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 그와는 반대로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nafil)가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 의무사항과 함께 수행하면 의무사항을 완성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

것이다. 이에 내용은 예언자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좋은 일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다. “당신 예언자도 그런가요?”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그렇습니다.”(al-Bukhari and Muslim)

다. 의무사항이 토대나 반석과 같다면 자발적 행위는 가지 또는 건물과 같은 것이다. 명령받은 대로 존중과 경의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증명하고 숭배 받을 권리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위대한 길이다.”³⁵⁵⁾

의무사항이 반석이나 뿌리와 같다면 자발적 행위는 가지와 같은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반 또는 반석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³⁵⁶⁾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의무사항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청결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하나를 충족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러므로 첫 단계로 의무사항을 먼저 충족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의무사항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 01) 마음의 의무사항
- 02) 이슬람의 오행과 관련된 의무사항
- 03) 다른 의무사항
- 04)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자제하는 것

올바른 방법으로 의무사항을 충족시키고 나면 마음의 청결 수준에 오르게 된다. 그렇지만 마음의 청결과정은 의무사항을

355) Ahmad Farid, *al-Tazkiyah baina Ahl al-Sunnah wa al-Sufiyah* (n.d.), p. 22.

356) CF., Ahmad ibn Hajar, *Fath al-Bari bi-Sharh Sahih al-Bukhari* (Mecca: al-Maktabah al-Tijariyah, 1993), vol. 13, p. 145.

완수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마음의 청결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신앙인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다른 더 좋은 일을 추구하게 된다. 마음의 청결 세 번째 단계는 의무사항을 수행한 후 자발적인 추가사항(nafil) 수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발적인 추가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 그리고 행하면 더 좋은 권장사항까지 포함한다. 이 자발적인 추가사항들은 서로 다른 덕목의 수준에 이른다. 일부 덕목은 예언자께서 강조하셨던 것이고 일부 덕목은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인 추가사항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는다. 더 많은 가치를 갖는 자발적인 추가사항을 수행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앞서 언급했던 신성 하디스(hadith qudsi)를 다시 언급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한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자발적인 추가사항을 수행함으로써 나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느니라.”³⁵⁷⁾

끝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 하나만 더 언급하고자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다. 이 길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 단계가 요구되지도 않는다. 누구나 청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진실성과 헌신은 단지 다음의 몇 가지만 수행된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부터 의무사항을 수행해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357) al-Bukhari.

있기 때문이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안내하여 주는 그 길을 계속 걷는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auliya)이 걷고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처럼 편안하고 걷기에 쉬운 이 길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은총 가운데 일부분이다.³⁵⁸⁾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일부 신앙인들은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추가사항들까지 수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런 신앙인은 의무사항을 수행할 때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밖으로 표출한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수행한다. 의무사항에다 자발적인 추가사항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의 표출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한 그의 진실한 소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단순히 하나님의 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혐오사항들을 멀리하면서 자발적인 추가수행을 하는 자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신성 하디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 자발적인 추가사항을 수행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만큼 그를 사랑

358) CF., Ibrahim Hilal, *Introduction to Muhammad ibn Ali al-Shaukani, Qatr al-Wali, ala Hadith al-Wali* (Beirut: Dar Ihya al-Turath al-Arabi, n.d.), p. 149.

할 것이니라. 내가 그를 사랑함에 있어 그가 듣는 것을 내가 들어줄 것이요, 그가 보는 것을 내가 보아줄 것이요, 그의 손이 붙잡는 것을 내가 붙잡아 줄 것이요, 그의 발이 걷는 것을 내가 걸어줄 것이니라. 만일 그가 나에게 요청한다면 나는 분명히 그에게 줄 것이며 그가 만일 나에게 은신처를 요구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에게 그것을 제공할 것이니라.”³⁵⁹⁾

이 신성 하디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하디스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들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기쁨과 관용을 성취하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wali)가 되는 것이다. 앞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업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이나 다른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현세의 쾌락들을 파멸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에 두고 있는 그의 종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인간을 창조하고 형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몇 가지 의무사항을 두셨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청결케 하고자 원하는 자들을 위한 것들이다. 이 의무사항들 외에는 모든 것을 개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행하도록 하셨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의무예배 외에 자발적인 추가예배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359) al-Bukhari.

그 결과 믿음의 수준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얻는다. 자발적인 추가예배 수행을 못할 때는 슬픔을 느낀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일반적인 의무예배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추가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식, 자선 혹은 성지순례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이다.

아직도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다른 것들이 있다. 의무사항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자발적인 지하드나 종교 전파, 비무슬림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일 등이 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보다 많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못하고 조금만 실천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³⁶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오는 현실이다.

의무사항 외에 자발적인 추가사항의 수행은 각자의 선호도에 따른 각 개인의 자유다. 자발적인 일들의 영역은 넓고 다양하다. 찾기에 불편한 일도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다.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은 서로 다른 취향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첫째로 의무사

360) CF., Farid (pp. 30-31) from Muhammad ibn al-Qayim, *Tariq al-Hijratayn*, p. 179.

항을 준수하는 각 개인에게 달려있다. 만일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길에 있지 않다.

08-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돕는 방법

스스로가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보다 수행해야 할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청결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수단과 방법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수단과 방법은 간단하다. 이것들은 청결의 수행을 위한 단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즉 의무사항이나 혹은 권장사항의 영역에 있을 뿐이다. 이들 과정들 중에 추가적인 유익함과 함께 마음의 청결을 실현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01)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지식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어난다. 그래서 매사,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길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안내를 구해야 한다.

02) 건전하고 유익한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한 기도에 의해 성취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히 마음의 청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꾸란과 예언자의 말씀 하디스를 공부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가 없다.

03)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크르(zikr) 수행을 한다. 하나님

에 대한 지식 다음에는 지크르 수행이다. 지크르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대한 수준의 정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배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지식을 유용할 수 있다.

04) 하나님에 대한 명상과 사색이다. 명상은 믿음의 단계를 더 튼튼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준다. 명상은 지크르가 바탕이 된다. 그리고 지크르를 강화시켜준다. 명상은 얻은 지식에 대한 이해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명상은 지식을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에 연결시켜주면서 지크르의 정신을 강화시켜준다.

05) 세속적인 존재에 대한 진정한 실상을 깨닫는다. 이것은 명상 혹은 정신적 발달에서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내세의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현세의 삶은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생존을 위한 모든 수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세에서의 진정한 삶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은 현세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는데 도움을 준다.

06)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의 성향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jihad nafs)은 위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보다 쉬어진다. 마음은 항상 유혹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허약한 점들을 주어진 올바른 도구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07) 올바른 교우들, 올바른 친구들, 올바른 배우자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더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

다.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크르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충고와 자문을 하고 마음이 약해질 때 힘이 되어주며 올바른 일을 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할 때나 혼란기에 있을 때 서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안내를 공유한다.

08) 성원에 참석하는 것이다. 성원에 참석하게 되면 다른 건전한 무슬림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청결의 열쇠가 되는 예배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배우게 된다. 이슬람 성원은 삶의 목적을 상기시켜주는 공간을 제공하고, 마음의 청결을 위해 보탬이 되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09)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 자신의 행위, 품행, 성격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는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 자신이 세운 계획들과 그것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오류나 잘못이 있으면 반듯이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홀이 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헤어나갈 힘든 깊은 구렁으로 빠지게 된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09-마음에 피해가 되는 것들

무슬림은 마음의 청결을 수행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주요 장애물들과 위험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반듯이 인식하고 있어

야 한다.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01) 욕심, 관능적인 욕구 그리고 연정이 있다.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부도덕한 행위로 유도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는 노력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인간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에 따라 인간은 그것들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다.

02) 무지, 의심 그리고 오해가 있다. 무지 때문에 바른 길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의 행위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인데도 옳은 것처럼 보인다. 이에 더하여 무지는 의심과 의혹을 낳는다. 더 나아가 의심과 의혹은 마음의 청결수행 길에 남아 있으려는 결심과 헌신에 악영향을 미친다.

03) 이설(異說)과 이단의 종교가 있다. 이것은 마음의 정화에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자를 잘못된 길로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 나쁜 함정에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바른 지식과 예언자의 길을 답습하는 것 밖에 없다.

04) 죄가 있다.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 죄의 크고 작고를 떠나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은 마음의 청결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05) 속세와 속세의 쾌락에 지배되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현세사회에서 넘쳐흐르는 쾌락과 흥분이다. 이러한 속세의 삶이 인간의 초점을 잃게 한다. 현대의 인간들은 내세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속세의 재물들을 축적하느라 정신들이 없다. 이러한 상황이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에 열중하도록 만든다. 여기에 마음의 청결을 수행하는 노력에 엄청난 패배의 소리가 들려올 수밖에 없다.

06) 나쁜 친구, 부패한 환경과 나쁜 주변 환경이 있다. 주변 환경과 친구는 한 개인에게 무척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쁜 친구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친구에게 해가 되는 행위나 생각을 제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일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 그러한 친구와 환경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수행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07)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인간의 적을 두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지와 헌신을 시험하도록 하셨다. 사탄은 인간이 마음의 청결을 수행할 때 이를 방해하고 사탄에게 항복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임무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항상 사탄과 그의 유혹을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는 자들과 방황케 하신 하나님의 적들이 있다. 이들은 마음의 청결수행 길에서 알게 모르게 이탈한 자들이다. 이들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바른 길에서 탈선시키려 노력하거나 무슬림들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이탈하도록 무익한 혹은 해로운 충고를 하기 때문이다.

10-회개

마음의 청결수행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인간의 본성은 종종 비틀거린다.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³⁶¹⁾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죄를 짓게 될 때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지 않는 한 회개할 시간은 남아 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잘못된 실수와 저지른 죄를 회개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3. 말하라 자신에게 죄지은 나의 종들이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느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니라(39:53)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는 다음 사항이 충족되어 한다.

- 01) 저지르고 있는 죄를 그만 두는 것이다.
- 02)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후회해야 한다.

361) Ahmad, al-Tirmizi and al-Hakim.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훌륭한 것(hasan)이다. al-Albani, *Sahih al-Jami*, vol. 2, p. 831.

03) 그와 같은 죄를³⁶²⁾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순수한 마음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에로의 진정한 복귀가 인간의 삶의 목표다.

이러한 사항들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쁜 욕망을 회개하는 것보다 나쁜 믿음을 회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븐 타이미아는 지적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의무사항을 믿고 있으면서 혹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의무사항을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나쁜 짓을 한다면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의무사항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나쁜 행위로부터 그를 지켜줄 것이다. 행하게 하려는 어떤 힘과 멈추게 하려는 어떤 힘은 확고부동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두 요소는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이 두 요소가 서로를 지배하려 할 때 자신의 마음이 이를 지켜볼 것이다. 때로는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때로는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나쁜 행위를 하고 때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슬림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는 무슬림들이 있고, 때로는 나쁜 짓을 하는 무슬림들이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는 무슬림들이 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두 요소, 즉 좋은 것을 하려는 욕구와 나쁜 짓을 하려는 욕구가 서로가 서로를 제압하려고 하기 때문이

362) 만일 그 죄가 다른 사람의 권리에 연루되어 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개선해야 한다.

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좋은 일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나쁜 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믿음의 기반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다.

의무사항으로 잘못 믿고 행하고 금기사항으로 잘못 알고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해도 멈추게 하려는 힘과 행하게 하려는 힘은 마음속에 확고부동하지 않다. 그것은 위의 문장 단락에서 언급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믿음을 수정하는 회개를 한 후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하는 힘이 없으면 첫 번째 경우보다 더욱 어렵다. 첫 번째 경우에는 나쁜 행위를 멈추게 하려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이다.”³⁶³⁾

사실상 모든 인간은 매 순간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된 하디스의 내용이 보여주듯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의무사항을 수행하고 자발적인 추가사항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 상황이라면 믿는 자는 즉시 그 죄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부끄러운 일, 즉 죄를 범하고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저지르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천국의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열쇠는 여기에 있다. 그들은 죄가 되는 행위를 즉시 그만두고 하나님께

363) Ibn Taimiyah, *Risalah fi al-Tawbah*, vol. 1, pp. 237-238.

간절히 용서를 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5.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염원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느냐! 그리고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
(3:135)

136. 그들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의 관용이 있을 것이며 그들
은 밑으로 물이 흐르는 천국에서 영생하며 무한한 은총을 받을
것이니라(3:136)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하는 인간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왜냐
하면 회개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가장 너그러우시고 가장 자비
로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
을 멀리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기 때문이다. 예언자께
서 말씀하길, “하나님께서서는 다음의 사람이 주는 기쁨보다 믿는
자의 회개가 주는 기쁨을 더 좋아하십니다. : 물이 없는 사막에
서 어떤 사람이 낙타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실어놓은 채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양식과 물을 도둑맞았
다. 이곳저곳을 헤매며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또 찾았으나 갈증
만 심해졌다. 그러자 그는 자문자답을 했다.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잠이나 자버릴까!’ 그래서 그는 그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죽으려고 베개에 머리를 얹고 잠에 들었다. 죽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실려 있는 낙타가
있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실려 있는 낙타를

발견하고 얻은 기쁨보다 믿는 자의 회개를 더 기뻐하십니다
.”³⁶⁴⁾

하나님의 이 기쁨은 회개하는 자를 위한 매우 특별한 보상이다. 믿는 자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모든 죄와 잘못들에 대한 회개의 신앙심이 더욱 강해진다.

마음의 청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회개는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오염과 불결한 것들을 제거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하나님과 고리를 맺는 인간의 마지막 정거장이다. 신앙심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주님의 권리와 관련하여 분명히 결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 결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명상을 다루면서 이미 상당부분 언급하였다. 그러한 명상과 회개하게 하려는 힘 사이에는 튼튼한 관계가 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01) 인간의 숭배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족하게 된다. 과도하게 혹은 지나친 형태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마음과 정신에 오히려 위험하다.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숭배의 행위를 완성한 후 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관용을 간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숭배행위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겸허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364) Muslim.,

다. 예언자께서는 의무예배를 마치자마자 세 번 하나님의 관용을 간구하라고 가르치셨다. 이 전통은 누구나 자신의 숭배 수행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02)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어느 수준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리에 충족될 만큼 하나님께 충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귀중한 생명을 주어 존재하게 하여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에 상응하는 완벽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온전하게 그리고 충족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한 자신의 부족한 능력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03) 인간의 행위에는 드러내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 (riya')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라면 그것에 관해 하나님께 반듯이 회개해야 한다.

신앙심이 경건한 신자일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용을 간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타이미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간은 항상 감사를 필요로 하는 축복과 관용의 추구를 필요로 하는 죄 사이에 놓여 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필연적으로 인간과 함께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죄를 짓고 있어 회개가 필요하고 관용을 간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모든 인간의 지도자이자 신앙심이 돈독한 신자들의 지도자인 예언자 무함마드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용을 간구하셨다.”³⁶⁵⁾

예언자께서는 하루에도 1백번 이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관용은 간구하셨다고 무슬림은 기록하고 있다.

죄를 제거하면서 간구하는 진실한 회개는 마음의 청결을 수행하는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주님 앞에 서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겸허하게 만든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허약한 점과 자신의 죄를 인식할 때 하나님께 겸허하게 회개하는 일 외에는 다른 안식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관용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은총이다.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진지하게 회개할 때 자신이 얼마나 방황했는가를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노력한다.

회개는 자신의 길을 고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간에 그의 태도를 개선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꾸란 부르즈 장에서 살아 있는 신자를 화형시키는 자들에 대한 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 실로 믿는 남성과 믿는 여성을 학대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의 징벌을 맛 볼 것이니라. 그들은 타오르는 불지옥의 징벌을 맛보게 되느니라(85:10)

이처럼 회개의 문은 어떤 죄인에게도 열려있다.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

365) Ibn Taimiyah, *Majmu'*, vol. p. 88.

바른 길로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된다. 회개하고 바른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과거의 나쁜 행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회개 이전의 상황보다 개선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죄를 이미 경험했고, 그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변경하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길을 수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수행의 긴 안목에서 과거의 죄를 뒤돌아 볼 필요는 없다. 이미 그 행위에서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성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그 회개는 주님께 회귀한 기쁨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승화시켜 줄 것이다.

***결 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덕분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길과 믿음을 증가하는 방법이 분명해졌으며 이 길을 따르고자 원하는 자에게는 까다롭지 않고 더욱 확실해졌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시정하고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런 후 시정된 믿음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길은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데 있어 진지해야 한다.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어대거나 그 길

에서 그를 밀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옳지 않다.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믿음의 건전성 상태를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믿음을 증가시켜주고 믿음에 도움이 되는 수단과 방법을 항상 찾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믿음의 건전성에 피해를 주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따라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의 안내를 추구해야 한다. 바른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실수를 할 때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관용을 간구하고 바른 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아름다운 길, 믿음의 길 위에 다시 세워달라고 간구한다.³⁶⁶⁾

366) 본 장은 저자의 작품에 기술된 ‘마음의 청결 부분’을 되풀이 한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독자는 언급한 저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새로운 무슬림에게 드리는 마지막 글

새로운 무슬림은 분명히 멋진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들어섰다. 이슬람을 준수함으로써 현세와 내세의 두 가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새로운 무슬림들, 특히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사실상 과거의 생활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선택에 대하여 가족들과 친구들이 달갑지 않게 받아들일 것이다. 새로운 무슬림은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올바른 안내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여러 요인들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정서적인 아픔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혼란에 직면할 때는 자신이 이슬람을 선택한 궁극적인 목적을 마음으로 되새겨야 한다. 그 목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쾌락은 덧없이 지나갈 뿐이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저질스러운 욕망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고귀함을 받아들여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합동예배에 참석하고, 꾸란을 읽고,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 성

취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 새로운 무슬림은 이런 저런 많은 유혹들을 혼자서 이겨내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은 초보자이고 종교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슬람 공동체와 가까이 하고 지역 이슬람 성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유일한 피안처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무슬림들과 어울리면서 믿음을 돈독히 하고, 이슬람 지식을 쌓고, 이슬람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무슬림은 무슬림 공동체나 이슬람 성원으로 부터 완전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슬람에는 공식적인 교회, 즉 기독교의 교회처럼 직업적으로 일하는 무슬림들이 없다. 대다수 많은 이슬람 성원들, 특히 서구에 있는 이슬람 성원들은 다른 직업들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슬람 성원들이 많이 배운 무슬림을 임명하여 새로운 무슬림을 보살피게 한다면 그 이상 훌륭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렇지만 각 무슬림 공동체는 새로운 무슬림이거나 그 지역의 무슬림을 막론하고 모두가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 하나의 대열에 서는 것을 환영하고 모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인내하다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무슬림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무슬림은 모든 무슬림들로부터 이슬람의 훌륭한 모습만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무슬림들 중에는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학식이 풍부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무슬림들이 있다.³⁶⁷⁾ 그러므로 새로운 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무슬림은 전체 무슬림을 기준으로 넓은 영역에서 무슬림들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무슬림은 종종 이슬람에 열성을 보이면서 다른 무슬림들을 향해 이슬람의 형제애를 표출한다. 성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다른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인사를 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일부 무슬림들은 인사에 대한 답례가 최소한의 예절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기는커녕 그를 이상하게 보기도 한다. 열정과 기쁨에 찬 새로운 무슬림이 성원에 들어와 인사를 하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이 새로운 무슬림이 느낄 수 있는 좌절감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무슬림 어느 누구도 그의 행위에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울 밖에 없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새로운 무슬림이 만나는 많은 무슬림들 중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무슬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무슬림 자신도 다른 무슬림들과의 관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아직은 그가 가야할 길이 멀 수도 있다. 이슬람 이전의 생활에서 남겨진 마음의 병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새로운 무슬림은 무슬림들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기존 무슬림들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무슬림은 외설적인 어투로 성(姓)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무슬림의 에티켓

367)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족함이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으로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성을 희롱할 수도 있다. 새로운 무슬림이나 기성세대의 무슬림 모두에게 불편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인내와 끈기가 꼭 필요하다. 새로운 무슬림은 항상 자신을 일깨워야 한다. 자신은 새로운 무슬림으로써 아직 이해하지 못한 믿음의 여러 영역이 있고 아직까지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 다른 무슬림들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간의 결점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 현실 생활에서 부딪치는 사소한 문제들이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마지막 여정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환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런 사소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슬림은 현세의 여러 유혹과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노력해야 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는 내세의 보상인 천국을 얻는 것이다.³⁶⁸⁾ 하나님께 아무 것도 바치지 아니하면서 천국을 요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면서 천국을 바라고, 인내하지 않고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무슬림이라 할 수 없

368)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실로 하나님의 상품은 귀하고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품은 바로 천국입니다.” al-Tirmizi. 알바니에 의하면 본 하디스는 훌륭한 것(hasan)이다. al-Albani, *Sahih al-Jami al-Saghir* #6222.

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 우리는 믿습이다 라고만 말하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느냐?(29:2)

3. 이전의 사람들을 시험하였듯이 나는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식별할 것이니라(29:3)

214. 너희 이전에 떠난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시련이 없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느냐? 그들에게도 고통과 역경과 정신적 진통이 있었느니라 사도와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진실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오느냐고 질문하였느니라 실로 하나님의 구원은 가까이 있느니라 (2:214)

새로운 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무슬림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모든 시련을 이겨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슬림은 허용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신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 이슬람성원을 찾아 꾸란과 순나에 근거하여 살고 있는 훌륭한 무슬림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

무슬림은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슬람 성원에서 열리고 있는 강의나 독서나 그 밖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최근에는 새로운 무슬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어나 한글로 된 자료들이 무척이나 많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슬람에 관한 그러한 자료들의 질과 신뢰도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그 많은 분량의 자료들을 질과 신뢰도에 따라 세분화하기란 무척 어렵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일부 출판사들이 선별되어 소

개되고 있다. 그 중에 두 출판사를 소개한다.

다루 쌀람(Dar al-Salam: www.darussalam.com) 출판사와
바시르(al-Bashir: www.al-basheer.com) 출판사가 있다. 또 이
슬람에 관한 좋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 다
음과 같은 웹사이트를 찾아 이용할 수 있다. (www.islamway.com),
(www.whyislam.org) 그리고 (www.usc.edu/dept/MSA) 등
이 있다.

마지막으로 무슬림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길
로 가는 안내를 간구하고 그 길에서 확고부동할 수 있게 하여달
라고 기도해야 한다. 최소한 하루 예배에서 무슬림은 17회 꾸란
의 첫 장 수라틀파티하(surat al-fatiha)를 암기한다. 본 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저희를 바른 길로 안내하여 주소서” 이 기도에는
바른 길로 안내하여 주고 그 바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
부동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하
여 예언자께서는 무슬림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예언자께서 자주 하셨던 기도문을 아나스가 전하고 있
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지요, 저의 마음이 당신의 종
교에 확고부동하도록 하여 주소서.”

한국의국어대학교 아랍어과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아랍어와 아랍문학을 전공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이슬람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이슬람학을 전공하고 수단 옴두르만 이슬람 국립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슬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이슬람문화원에서 아랍어와 이슬람 담당 전임교수로 근무하였고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왕립 대학교 초청 객원교수로 있었다. 명지대학교 인문대학장을 역임하고 그 밖에도 한국 중고등학교 아랍어 국정교과서 교재편찬 심의위원, IMAX 벤처기업과 LG 전자 자문교수, (재단법인) 국제 자연환경 교육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명지대학교 아랍지역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에서 이슬람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메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 세계 이슬람 총연맹 최고회의 위원과 (사단법인) 숲사랑 소년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학술 업적으로는 꾸란(코란) 번역을 비롯하여 꾸란 주해, 예언자 무함마드, 인간 무함마드,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무함마드의 언행록, 아랍어-한글 사전, 꾸란 어휘사전, EBS 입에서 톡 아랍어, 이슬람문화, 이슬람역사와 문화,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 나의 이슬람문화 체험기 등 60여권의 아랍어와 이슬람 관련 책들을 저술 및 번역하였으며 200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이븐 압둘아지즈 국왕 국제 번역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Abdul Hameed, Ali Hasan. *Huqooq al-Jaar fi Saheeh al-Sunnah wa al-Athaar*. Amman, Jordan: al-Maktaba al-Islaamiya. 1993.

Abdul Khaaliq, Abdul Rahmaan. *Al-Zawaaaj fi Dhill al-Islaam*. Kuwait: al-Daar al-Salafiyyah. 1988.

----*The General Prescripts of Belief in the Quran and Sunnah*.
The Majliss of al-Haqq Publication Society. 1986.

Abu Lauz, Ali, compiler. *Answers to Common Questions from New Muslims*. Ann Arbor, MI: IANA. 1995.

Al-Adawi, Mustafa ibn. *Fiqh al-Taamul ma al-Waalidain*. Riyadh: Daar Balansiyah. 2002.

Al-Adheemabaadi, Muhammad Shams al-Haqq. *Aun al-Mabood Sharh Sunan Abi Dawood*. Beirut: Dar al-Kutub al-Ilmiyyah. 1995.

Ahmad, Salaah. *Dawah Shaikh al-Islaam ibn Taimiya wa Atharuhaa ala al-Harakaat al-Islaamiyah al-Muasirah*. Kuwait: Dar ibn al-Atheer. 1996.

Al-Aini, Badr al-Deen. *Umdah al-Qaari*. Beirut: Daar Ihyaa al-Turaath. N.d.

Al-Alayuwi, Saalih. *Mabaahith fi al-Niyyah*. No publication information given.

Al-Albani, Muhammad Nasir al-Din. *Irwa al-Ghaleel fi Takhreej Ahadith Manar al-Sabeel*. Beirut: al-Maktab al-Islami. 1979.

-----*Saheeh al-Jaami al-Sagheer*. Beirut: al-Maktab al-Islaami. 1986.

-----*Saheeh Sunan al-Tirmidhi*. Riyadh: Maktab al-Tarbiyah al-Arabi li-Duwal al-Khaleej. 1988.

-----*Silsilat al-Ahaadeeth al-Saheehah*. Riyadh: Maktabah al-Maaarif.

Al-Ansari, Muhammad Abdul Haq, trans. *Commentary on the Creed of at-Tahawi by ibn Abi al-Izz*. Riyadh: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2000.

Al-Arnaut, Shuaib. Introduction to Zain al-Din al-Maqdisi. *Aqaweel al-Thiqaat fi Tarweel al-Asma wa al-Sifaat wa al-Ayaat al-Muhkamaat wa al-Mushtabihaat*. Beirut: Muassassat al-Risalah. 1985.

Al-Ashqar, Umar. "The Wisdom behind the Creation of Satan." *al-Basheer*. Vol. 2, No. 3, Sept.-Oct. 1988.

Baadi, Jamaal. *Al-Athaar al-Waarada an Aimmat al-Sunnah fi Abwaab al-Itiqaad*. Riyadh: Dar al-Want. 1416 A.H.

Al-Baaz, Abbaas. *Ahkaam al-Maal al-Haraam*. Amman, Jordan: Daar al-Nafaa`is. 1999.

Al-Baihaqi, Abu Bakr. *al-Itiqaad ala Madhhab al-Salaf Ahl al-Sunnah wa al-Jamaah* Beirut: Dar al-Kutub al-Arabi. 1984.

Al-Barbahaaree, Abu Muhammad al-Hasan. *Explanation of the Creed*. Birmingham, UK: Al-Haneef Publications. 1995.

Comair-Obeid, Nayla. *The Law of Business Contracts in the Arab Middle East*. Lond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Commentary on the Creed of at-Tahaawi by ibn Abi al-Izz. Muhammad Abdul-Haqq Ansari, trans. Riyadh: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2000.

Curtis, RoyYoung Muhammad. "Authentic Interpretation of Classical Islamic Texts: An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Ibn Kathir's '*Tafseer alal*.'"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89.

Al-Dausiri, Abdul Rahman. *Safwat al-Athaar wa al-Mafaheem min Tafseer al-Quran al-Adheem*. Kuwait: Dar al-Arqam. 1981.

Al-Dhahabi, Muhammad Hussein. *alseer wa al*. Dar alal. 1976.

Al-Dhahabi, Muhammad. *Siyar Alaam al-Nubala*. Beirut: Muassasah al-Risaalah. 1990.

Al-Draz, Muhammad Abdullah. *The Quran: An Eternal Challenge*. Leicester, United Kingdom: The Islamic Foundation. 2001.

Al-Dubyaan, Dubyaan. *Ahkaam al-Tahaarah: al-Ghusl* Riyadh: Maktabah al-Rushd. 2004.

Fareed, Ahmad. *Al-Tazkiyah baina Ahl al-Sunnah wa al-Soofiyah*. No publication information given.

Al-Ghumaari, Abdullah. *Rafu al-Shakk wa al-Irtiyaab an Tahreem Nisaa Ahl al-Kitaab*. Tanjah, Morocco: 1989.

Hakimi, Haafidh ibn Ahmad. *Maarij al-Qubool bi-Sharh Sullim al-Wusool ila Ilm al-Usool fi al-Tauheed*. Beirut: Dar al-Kutub al-Ilmiyah. 1983.

Al-Hammad, Muhammad. *Tauheed al-Uloohiyah*. Dar ibn Khuzaima. 1414 A.H.

Hilaal, Ibraaheem. Introduction to Muhammad ibn Ali al-Shaukaani. *Qatr al-Wali ala Hadeeth al-Wali*. Beirut: Daar Ihyaa al-Turaath al-Arabi. n.d.

Al-Hilali, Muhammad al-Hilali and Muhammad Muhsin Khan, trans. *The Noble Qur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Meanings and Commentary*. Madinah, Saudi Arabia: King Fahd Complex for the Printing of the Holy Quran. n.d.

ibn al-Atheer, Mubaarak. *Jaami al-Usool fi Ahaadeeth al-Rasool*. Maktaba al-Hilwaani. 1971.

ibn al-Qayyim, Muhammad ibn Abu Bakr. *Ahkaam Ahl al-Dhimmah*. Damam, Saudi Arabia: Zamaadi li-l-Nashr. 1997.

-----*al-Waabil al-Sayyib min al-Kalim al-Tayyib*. Beirut: Daar al-Bihaar. 1986.

-----*Madaarij al-Saalikeen bain Manaazil Iyyaaka Nabudu wa Iyyaaka Nastaeen*. Beirut: Daar al-Kitaab al-Arabi. n.d.

-----*Miftaah Daar al-Saadah*. Beirut: Daar al-Fikr. n.d.

-----*Shifa al-Aleel fi Masa`il al-Qadha wa al-Qadar wa al-Hikma wa al-Taleel*. Beirut: Dar al-Marifah. n.d.

ibn Hajar, Ahmad. *Fath al-Baari bi-Sharh Saheeh al-Bukhaari*. Beirut: Daar al-Marifah.

-----*Fath al-Baari bi-Sharh Saheeh al-Bukhaari*. Makkah: al-Maktaba al-Tijaariyyah. 1993.

Ibn Jibreen, Abdullah. *al-Shahadataan*. No city or publisher given. 1990.

Ibn Katheer, Ismaeel. *Al-Bidaayah wa al-Nihaayah*. Beirut: Dar al-Kutub al-Ilmiyya. n.d.

-----*Tafseer al-Quran al-Adheem*. Kuwait: Dar al-Arqam. 1985.

-----*Tafsir ibn Kathir (Abridged)*. Riyadh: Darussalam. 2000.

Ibn Qudaamah, Abdullah. *al-Mughni*. Beirut: Daar al-Fikr. 1405 A.H.

ibn Rajab, Abdul Rahman. *Jaami al-Uloom wa al-Hikm*. Beirut: Muassasat al-Risaalah. 1991.

ibn Taimiyyah, Ahmad. *Ibn Taymiyyah's Essay on Servitude*. Birmingham, United Kingdom: al-Hidaayah Publishing and Distribution. 1999.

-----*Majmoo Fatawaa Shaikh al-Islaam ibn Taimiyyah*. Collected by Abdul Rahmaan Qaasim and his son Muhammad. No publication information given.

ibn Uthaimen, Muhammad. *Majmooat Fataawa wa Rasaail Fadheelat al-Shaikh Muhammad ibn Saalih al-Uthaimen*. Riyadh: Dar al-Want. 1413 A.H.

-----*Sharh al-Aqeedah al-Waasitiyah*. al-Damaam, Saudi Arabia: Dar ibn al-Jauzi. 1415 A.H.

-----*Sharh Hadith Jibreel Alaihi al-Salaam*. Dar al-Thuraya. 1415 A.H.

-----*Sharh Riyaadh al-Saaliheen*. Riyadh: Daar al-Want. 1995.

-----*Sharh Usool al-Imaan*. Fairfax, VA: Institute of Islamic and Arabic Sciences in America. 1410 A.H.

Idris, Jaafar Sheikh. *The Pillars of Faith*. Riyadh: Presidency of Islamic Research, Ifta and Propagation. 1984.

Al-Isfahaani, Al-Raaghib. *Mu'jam Mufradaat Alfaadh al-Quran*. Beirut: Dar al-Fikr. n.d.

Islahi, Amin Ahsan. *Self-Purification and Development*. Delhi: Adam Publishers and Distributors. 2000.

Al-Jarullah, Abdullah. *Bahjah al-Naadhireen fima Yuslih al-Dunya wa al-Deen*. 1984.

Al-Jazaairi, Abu Bakr. *Minhaaj al-Muslim*. Beirut: Daar al-Fikr. 1992.

Al-Karzoon, Anas. *Manhaj al-Islaam fi Tazkiyah al-Nafs*. Jeddah: Daar Noor al-Maktabaat. 1997.

Khan, Muhammad Muhsin, trans. *Sahih al-Bukhari*. Riyadh, Saudi Arabia: Darussalam Publishers and Distributors. 1997.

Al-Kurdi, Fauz bint Abdul Lateef. *Tahqeeq al-Uboodiyah bi-Marifah al-Asmaa wa al-Sifaat*. Riyadh: Daar Taibah. 1421 A.H.

Lane, E. W. *Arabic-English Lexicon*. Cambridge, England: The Islamic Texts Society. 1984.

Maudoodi, Abul Ala. *The Meaning of the Quran*. Lahore, Pakistan: Islamic Publications. 1982.

Al-Mubaarakfoori, Muhammad. *Tuhfah al-Ahwadhi*. Beirut: Daar al-Kutub al-Ilmiyyah. n.d.

Murad, Khurram. *In the Early Hours: Reflections on Spiritual and Self Development*. Markfield, United Kingdom: Revival Publications. 2000.

Al-Muslih, Abdullah and Salaah al-Saawi. *Ma La Yasa'u al-Muslim Jahla*. Islamic Foundation of America. 1995.

Nadwi, Abul Hasan Ali. *The Four Pillars of Islam*. Lucknow, India: Academy of Islamic Research and Publications. 1976.

al-Nawawi, Yahya. *Al-Majmoo Sharh al-Muhadhib*. Beirut: Daar al-Fikr. 1997.

----*al-Minhaaj Sharh Saheeh Muslim ibn a-Hajjaaj*. Beirut: Daar al-Marifah. 1999.

Njozi, Hamza Mustafa. *The Sources of the Quran: A Critical Review of the Authorship Theories*. Riyadh, Saudi Arabia: World Assembly of Muslim Youth. 1991.

Nomani, Mohammad Manzoor. *Meaning and Message of the Traditions*. Lucknow, India: Academy of Islamic Research and Publications. 1975.

Philips, Bilal. *The Fundamentals of Tawheed*. Riyadh: Tawheed Publications. 1990.

----*Tafseer of Soorah al-Hujuraat*. Riyadh: International Islamic Publishing House. 1988.

Al-Qaisi, Marwaan. *Maalim al-Tauheed*. Beirut: al-Maktab al-Islami. 1990.

Al-Qurtubi, Abu Abdullah Muhammad. *Tafseer al-Qurtubi*. Beirut: Daar Ihyaa al-Turaath al-Arabi. n.d.

Qutb, Muhammad. *Diraasaat Quraaniyyah*. Beirut: Dar al-Shurooq. 1982.

Qutb, Sayyid. *The Islamic Concept and Its Characteristics*. American Trust Publications. 1991.

Rayner, S. E. *The Theory of Contracts in Islamic Law*. London: Graham & Trotman. 1991.

Al-Saadi, Abdul Rahman. *Al-Fatawa al-Saadiyah*. Riyadh: Manshooraat al-Muassasat al-Saeediyah. n.d.

Al-Saalihi, Ali. *Al-Dhau al-Muneer ala al-Tafseer*. Riyadh: Muassasat al-Noor. n.d.

Saheeh International. *The Quran: Arabic Text with Corresponding English Meaning*. London: AbulQasim Publishing House. 1997.

Salaam, Ahmad. *Muqaddimah fi Fiqh Usool al-Dawah*. Beirut: Dar ibn Hazm. 1990.

Al-Shaayi, Muhammad. *Al-Furooq al-Laughawiiyyah wa Atharaha fi Tafseer al-Quran al-Kareem*. Riyadh: Maktabah al-Ubaikaan. 1993.

Siddiqi, Abdul Hameed, trans. *Sahih Muslim*. Beirut: Dar al-Arabia. n.d.

Siddiqi, Abdul Hamid, trans. *Sahih Muslim*. Lahore, Pakistan: Sh. Muhammad Ashraf Publishers & Booksellers. n.d.

Al-Tabari, Muhammad ibn Jareer. *Jami al-Bayaan an Taweel Ayi al-Quran*. Beirut: Dar al-Fikr. 1988.

The Bible Library [Software]. Oklahoma City, OK: Ellis Enterprises. 2001.

Zarabozo, Jamaal al-Din. *The Authority and Importance of the Sunnah*. Al-Basheer Company for Publications and Translations. Denver. 2000.

----*Commentary on the Forty Hadith of al-Nawawi*. Al-Basheer Company for Publications and Translations. Denver. 1999.

----*"He Came to Teach You Your Religion."* Al-Basheer Company for Publications and Translations. Denver. 1997.

----*Purification of the Soul: Concept, Process and Means*. Denver, CO: Al-Basheer Publications and Translations. 2002.